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지역의 공공 문화인프라 활성화방안 연구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황 시 권

지도교수 신 경 호

2008년 2월

지역의 공공 문화인프라 활성화방안 연구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황 시 권

상기자의 교육학(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소 속	직 위	학 위	성 명
심사위원장	전남대학교	교수	미술학석사	허 진
심 사 위 원	전남대학교	교수	미술학석사	신경호
심 사 위 원	전남대학교	조교수	미술학석사	김철우

2008년 2월

목 차

국문초록.....	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3
제2장 문화 인프라로서의 공공미술관	5
제1절 문화기반시설의 종류와 정책방향.....	5
제2절 21세기 미술관의 새 패러다임.....	7
제3장 지역의 공공미술관 현황과 실태	22
제1절 지역별 주요 공공미술관 운영현황.....	22
제2절 최근완공 및 건립중인 공공미술관.....	31
제4장 제주지역 문화 인프라의 현황과 운영분석	37
제1절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현황.....	39
제2절 사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현황.....	48
제5장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안 분석	56
제1절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운영계획.....	57
제2절 문화예술분야 BTL 사업방식의 개선점.....	78
제6장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통한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방안	85
(설문조사 분석)	
제1절 도내 공공미술관의 네트워크 구축.....	96
제2절 제주미술문화의 활성화 여건 마련.....	100

제3절 지역특성 살린 국제미술전람회 육성.....	105
제7장 결 론	109
부록	112
설문지.....	116
참고문헌.....	119
Abstract	124

표 목 차

<표-1>.....	6
<표-2>.....	16
<표-3>.....	17
<표-4>.....	23
<표-5>.....	23
<표-6>.....	24
<표-7>.....	24
<표-8>.....	25
<표-9>.....	35
<표-10>.....	37
<표-11>.....	38
<표-12>.....	40
<표-13>.....	41
<표-14>.....	41
<표-15>.....	43
<표-16>.....	43
<표-17>.....	44
<표-18>.....	55
<표-19>.....	60
<표-20>.....	61
<표-21>.....	62
<표-22>.....	63
<표-23>.....	65
<표-24>.....	70
<표-25>.....	101

그림 목 차

<그림-1>.....	15
<그림-2>.....	43
<그림-3>.....	66
<그림-4>.....	68
<그림-5>.....	72
<그림-6>.....	74
<그림-7>.....	80
<그림-8>.....	81
<그림-9>.....	85
<그림-10>.....	86
<그림-11>.....	86
<그림-12>.....	86
<그림-13>.....	87
<그림-14>.....	87
<그림-15>.....	87
<그림-16>.....	88
<그림-17>.....	88
<그림-18>.....	88
<그림-19>.....	89
<그림-20>.....	89
<그림-21>.....	89
<그림-22>.....	90
<그림-23>.....	90
<그림-24>.....	90
<그림-25>.....	91
<그림-26>.....	96

지역의 공공 문화인프라 활성화방안 연구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효율적 운영을 중심으로-

黃 時 權

전남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指導教授：申 旻 浩)

(국문초록)

무한한 최첨단 과학의 가능성에 바탕을 둔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이전의 산업사회와는 달리 새롭게 개척하고 규정지어 나가야 할 신문명으로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예비하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도가 눈부신 문화예술 분야 가운데서도 특히 미술관의 경우는 기존의 컬렉션과 전시기능에서 벗어나 미적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서 외연확대를 통해 일반인들의 참여기회가 늘어나는 동시에 고품격 예술향유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국민소득 증대에서 오는 문화예술 욕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 정책에서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문화예산이 1%를 넘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걸맞는 공공 문화기반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거나 추진 중이다.

특히 2009년 2월 개관예정인 ‘제주도립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예산 편성에만 의거하지 않고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채택,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향토 미술인들의 오랜 염원이던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더불어 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공 문화인프라 및 지역미술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우선 문헌수집 · 방문취재 등의 다양한 사례분석과 함께 직접적인 현장 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가급적 논리상 오류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사례분석의 경우, 21세기 미술관의 새 패러다임을 추구해온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미술관 · 광주시립미술관 · 부산시립미술관 · 대전시립미술관의

운영현황과 함께, 최근완공 또는 건립중인 경기도미술관 · 백남준미술관 · 이응노 미술관 · 대구시립미술관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주요 공공미술관들은 전반적으로 전시 연구 · 미적 교육 · 체험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운영예산 면에서는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뒤이어서 제주도립미술관이 세워지는 제주지역의 공사립을 망라한 전체 문화 인프라 현황분석과 함께 현장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기반시설 및 미술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하였다. 제주지역 미술관련 전시공간으로는 공립미술관 3개소 이외에 국공립박물관과 복합문화공간 전시실 11개소가 있으며, 사립 시설로는 미술관 6개소 외에도 박물관과 복합 문화공간 전시실, 갤러리 등 15개소 안팎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제주도내 미술전시공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히 ‘박물관 천국’이라 이를 만큼 양적 성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 전시회 종류나 규모, 횟수 등 질적으로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지 못하다. 전문 인력이나 재정적 측면에 있어서도 아주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갤러리 경우에는 전문화랑으로서 면모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BTL방식으로 건립 중인 제주도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서는 실제 건축규모에 근거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운영재정의 확보, 바람직한 전시 · 수집 · 연구 ·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① 충분한 건축공정 통한 부실공사 예방, ② 미술관 증축 가능성 고려, ③ 대형전시회 대비한 드넓은 야외공간구성 계획 마련, ④ 지역미술문화의 구심 공간육성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 ⑤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연계한 국제미술전람회 개최 등의 중장기 미술관 발전전략에 관하여 연구 모색하였다. 덧붙여서 우리나라 보다 먼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민자사업 추진정책 사례가 주는 교훈 또한 간략히 짚어보았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제주도립미술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공공 문화인프라 및 지역미술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① 공공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② 미술창작스튜디오 설립 지원, ③ 문예진흥기금 확충과 지원확대, ④ 지역미술은행제도 도입, ⑤ 기업메세나 운동 전개, ⑥ 향토색 반영한 세계자연유산 제주엑스포 육성 등의 여러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창의성과 지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지식정보화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문화산업은 국가의 핵심적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나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같은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에서부터 창조적 지식과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이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 앨빈 토플러 박사는 여러 저서들¹⁾을 통하여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를 정확히 예측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미술관의 경우는 예술가들을 위한 컬렉션과 전시기능이란 기존의 단순성에서 벗어나 미적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서 외연확대를 통하여 일반인들의 참여기회가 늘어나는 동시에 고품격 예술향유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개인소득이 높아짐에서 오는 문화예술 욕구증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정책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마침내 2000년 접어들면서 문화예산이 1%를 넘어섰으며, 지역균형발전에 걸맞는 문화예술시설들이 들어서거나 계획 중이다. 여기서의 문화예산은 체육 및 청소년 부문을 제외한 문화관광부 예산과 문화재청 예산을 합친 것을 말한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간직한 자랑스러운 민족적 정통성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과정에서의 쇄국정책 및 일제 식민지시대의 민족문화 말살과 왜곡, 6.25 한국전쟁시의 문화유산 대량파괴,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최우선의 독재정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문화예술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순수 예술인들과

1) 앨빈 토플러가 쓴 1970년의 『미래의 충격(Future Shock)』 1980년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1991년 『권력이동(Powershift)』 등 세권의 저서는 1950년대부터 대략 2025년까지 동일한 기간의 변화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서, 『미래의 충격』은 ‘변화의 과정’을 그리고 『제3의 물결』은 ‘변화의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권력이동』은 ‘변화의 통제’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그가 제안한 ‘물결이론’으로 현대정보사회를 설명하고자 한 『제3의 물결』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새로운 정보혁명과 정보사회를 예측하였는데,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과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에 이은 제3의 물결로서 ‘정보혁명’을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다가올 제4 물결을 예고한 2006년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식혁명’의 대 소용돌이를 명쾌히 분석하고 있다.

일부 상위계층의 전유물 정도로 치부하여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군부정권 유지 차원에서 출발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통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1990년 문화부를 신설하면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²⁾하여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는 10년간 3조8천억원을 투입하여 특수 예술학교 설립과 전국 시군단위 민속축제 개발, 주요 지방 국립극장과 예술단 신설 등이 핵심골자였는데, 그 당시 0.35%였던 문화예산을 1%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정책에 힘입어 우리사회의 핵심 문화 인프라로서 대형 공공미술관이 전국단위로 들어서고 있다. 1986년 국립현대미술관의 과천 신축개관 이후에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의 신축이전, 1992년 광주시립미술관 개관, 1998년 부산시립미술관과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2004년 경남도립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2006년에는 경기도미술관이 개관하였다. 또한 건립 중에 있거나 추진하는 곳으로는 대구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인천시립미술관, 경북도립미술관, 충남도립미술관, 충북도립미술관, 강원도립미술관 등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화정책이 과거 문화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대중으로 확대함에 따라 정책적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의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사회통제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의 획일적 문화정책에 주어졌다면, 지금의 관심은 일반대중의 문화에 대한 실질적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을 담보로 하는 다원적인 지역문화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³⁾ 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하드웨어적인 공공 문화 인프라가 이렇듯 꾸준히 확충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고품격 대형 미술관건립을 염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적인 미적 감상의 향유기회와 다양한 예술적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미술관들이 내외적 도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어려움의 실체는 우선 아직도 적은 규모의 관람객과 잠재관람객을 개발하고 유인하는 정책의 부족, 빠르게 변하는 미술계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미술

2)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보도자료, 1990.6.25자.

3) 백병준, “국내 문화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6, p.4.

행정, 체계적이지 않고 작품 수량마저 빈약한 미술관 소장품, 미술관 전문인력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근무조건, 디지털 영상문화의 발전으로 인한 문화예술분야의 지형변화와 그에 따른 대중들의 취미변화, 사립미술관들의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서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술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술관 진흥을 위해 참여정부는 2004년 직제개편을 통해 박물관정책 내에서 추진하던 미술관정책 기능을 독립적인 정책 분야로 분리, 국립현대미술관 직제에 미술관정책과를 신설하였다. 정부의 혁신적인 조치는 국제적인 문화환경 변화에 부응해 미술관이 지니는 문화 정체성 제고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기능을 높이고, 여타 문화기반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가 지원정책에서 홀대받았던 국내 미술관들을 진흥 발전시킬 목적으로 취해진 것이다.⁴⁾

이런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앞으로는 지역별 공공미술관 설립 위주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극복하고, 미술문화의 지역균형적인 발전과 일반국민의 참여 제고에 역점을 둔 문화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21세기 중추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주요 공공미술관 현황과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건립중인 ‘제주도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미술문화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먼저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미술인들의 오랜 염원인 제주도립미술관의 신축 건립과 올바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핵심 문화인프라로서 새롭게 변화된 공공미술관의 패러다임(paradigm)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및 지역의 주요 공공미술관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본 연후에, 구체적인 제주지역 문화 인프라의 현황과 운영분석을 심도 있게 해나갈 것이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 서남쪽 외곽 한라산 1100도로변 38,744㎡(11,720평) 부지에 총사업비 약 182억원을 들여 연면적 7,087.09㎡(2,143.84평) 규모로

4)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선진국을 위한 투자, 미술관정책』, 2005, p.1.

것고 있다. 2007년 11월 착공하여 2009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지자체와 정부예산 편성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자유치방식(BTL)을 채택했다. 따라서 정부는 미술관 완공 이듬해부터 매년 상환금액 가운데 국비 30%를 분담해 약정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다.⁵⁾

BTL(Build-Transfer-Lease)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을 넘겨준 다음에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민간사업자가 그 시설의 사용과 수익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런 사유로 인해 비영리 문화기반시설인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등은 근본적으로 BTL사업에 맞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대단위 민간자본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그만큼 앞당겨서 조기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준다.⁶⁾

따라서 국내최초 BTL방식으로 건립되는 대구시립미술관과 더불어 제주도립미술관이 지역의 핵심 문화인프라로서 순조롭게 개관하여 바람직한 미술관 운영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분석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이 시행중인 민자유치 정책과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과 각종 도서자료집, 선행 연구서에 기반한 폭넓은 문헌조사와 병행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미술관 전문인력 또는 정책당국자들과의 면담이나 전화문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논리상 불충분한 부분들을 보충하였다. 특히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지역문화 활성화방안 모색의 경우는 지역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순수 미술전시공간은 양적 성장에 비해 그 질적 면모가 아주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다채로운 자료 수집을 위해서 현장방문 취재와는 별도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그밖에 국내외 문화정책과 미술관 사례조사는 직접 방문을 포함하여 지리적 · 경제적 · 시간적 여건상 관련 문헌자료나 인터넷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연구 조사, 분석하였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제주도, 『제주도립미술관 BTL방식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적격성 조사연구』, 2005, pp.4~5. 미술관 부지와 연면적, 총사업비, 건립공사 기간 등은 최종 확정된 수치로 정정함.

6) 한국개발원 · 기획예산처, 『임대형 민자유치(BTL)』, 2006, pp.2~6.

제2장 문화 인프라로서의 공공미술관

제1절 문화기반시설의 종류와 정책방향

경제적 풍요와 신체적 건강에 힘입은 현대인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높아지는 오늘날에 있어서 문화(culture)의 개념은 ‘예술활동’을 포함하여 심미적 차원을 지닌 인간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 창조활동과 그 결과물을 포괄하는 것⁷⁾으로서 전 인류의 총체적인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향유 수준의 향상에 따른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이를 바탕으로 삼아 현 참여정부의 문화관광부는 원대한 「문화강국(C-KOREA) 2010비전」 아래 3대 정책목표와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실천함으로써,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시장친화 · 블루오션(Blue Ocean) · 협치(Governance) 시스템 등 3개 추진전략을 펼쳐오고 있다.⁸⁾ 3대 정책목표는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과 동아시아 관광허브 도약, 세계 10대 레저스포츠 선진국 진입 등이다.

특히 공공문화시설의 경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해 열람 · 전시 · 공연 등의 문화예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기반시설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박물관 · 미술관 · 문예회관 · 문화의 집 · 도서관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공공문화시설은 시민의 문화체험과 학습공간이자 문화향수와 문화창조 활동의 거점인 것이다.⁹⁾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김문환의 경우 ① 공공도서관 ② 문예회관 ③ 박물관 ④ 미술관 ⑤ 문화의 집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안했으며, 문화관광부의 경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① 공연시설 ② 전시시설 ③ 도서시설 ④ 지역문화 복지시설 ⑤ 문화보급 · 전수시설 ⑥ 그 밖의 문화시설 등으로 나누고 있다.¹⁰⁾

7) Alex Inkeles, What is Sociology? : An Introduction to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Cliffs, NJ : Prentice-Hall, 1964, PP.2~3. (백명준, 앞의 책, p.14에서 재인용함)

8)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참조.

9) 김종세, “중소형 공공문화시설의 지역네트워크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7집, 2005, p.124.

2004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 현황을 보면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운영중인 355개소 외에 53곳을 건립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총 500개소 건립목표를 가지고 있다. 2003년도까지 누적 지원실적은 135개소에 약 1,080억원이며 건립할 때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해주고 있다. 471개소가 운영중인 도서관은 건립중인 곳이 37개소로, 2011년까지 750개소 개관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3년도까지 지원실적은 258개소에 1,028억원이고, 2004년 한해 지원예산만도 51개소에 약 336억원이나 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축할 때 총공사비의 20%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특히 농어촌인 경우에는 총공사비 8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문예회관의 경우는 운영중인 곳이 122개소, 건립하는 곳이 45개소로서 2011년까지 건립목표는 250개소이며 건립시 정액 20억원을 지원한다. 2003년도까지 지원실적은 81개소 1,509억원이었고, 2004년 지원예산은 26개소 221억원이다. 문화의 집은 2011년까지 500개소가 건립되는데 운영중인 135개소 외에 17개소가 건립중이다. 2003년까지 모두 28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2004년 지원예산은 10개소 20억원에 이른다. 건립할 때 정액 2억원이 지원된다.¹¹⁾

<표-1>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 현황

구 분	건립목표 (2011년)	운영중	건립중	지원기준	'03년까지 지원실적	'04년 지원예산	비고
박 물 관	500개소	355개소	53개소	총공사비의 30%	135개소/ 1,079.5억원	33개소/ 290억원	
도 서 관	750개소	471개소	37개소	총공사비의 20%	258개소/ 1,028억원	51개소/ 335.8억원	농어촌 80%
문예회관	250개소	122개소	45개소	정 액 (20억원)	81개소/ 1,509억원	26개소/ 221억원	
문화의집	500개소	135개소	17개소	정 액 (2억원)	142개소/ 280.3억원	10개소/ 20억원	

(’04년 1월 기준)

이와 같은 정부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우리

10) 구분준 외,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기초조사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 논문집』, 1999, p.10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한 문화시설의 종류는 부록의 [별표1] 참조.

11) 백병준, 앞의 책, pp.39~40.

나라 문화기반시설은 2000년대 들어 많은 양적·질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다양한 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크게 넓혀나가고 있다.

공공 문화기반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프로그램의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아카데미 형식의 강좌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또한 기관에 따라 아마추어 교양강좌에서부터 영재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까지 그 전문성에 있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주요 대상층 역시 주부 일색에서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직장인, 가족 등으로 점차 다변화하고 있다. 일례로 국립현대미술관이 2004년부터 개설한 ‘시니어 미술강좌’나 국립국악원의 가족대상 프로그램 ‘주말 국악문화강좌’는 이런 변화를 잘 보여준다.¹²⁾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각 문화기반시설들이 제공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다음 5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환경체험 프로그램, 문화욕구유발 프로그램, 창작욕구 실현 프로그램,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등인데, 실제 현장에서 진행상황을 보면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을 ‘문화적 환경체험→문화욕구발생→문화 창조적 삶’의 순으로 점진적인 진행을 제안하고 있다.¹³⁾

그러므로 문화기반시설 가운데서도 가장 화려한 꽃이라 일컬어지는 미술관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이에 대한 장기적이면서도 자율성을 최대한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미술관 정책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21세기 미술관의 새 패러다임

무엇보다 미술관은 미술인들의 기본적인 창작발표의 터전인 동시에 일반국민들의 문화예술 창조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다. 허나 오랜 인류역사에 비추어볼 때 본격적인 미술관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

12) 양지연, “문화예술교육 공교육화를 보장하라”, 『민족예술』 2004년 7월호, 2004, p.46.

13) 김태희, “사회문화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전망”, 『민족예술』 2001년 3월호, 2001, p.21.

미술관¹⁴⁾이란 용어는 미술박물관의 약칭으로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의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감상, 계몽, 연구를 위해 전시하는 곳이다.¹⁵⁾ 때로는 박물관(museum)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트 뮤지엄(art museum) 또는 뮤지엄 오브 아트(museum of art)라고 하거나, 아트 갤러리(art gallery) 혹은 갤러리 오브 아트(gallery of art)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아트(art)’ 앞에다가 ‘순수(fine)’나 ‘현대(contemporary)’ ‘근대(modern)’ 등을 넣어 그 성격을 강조하기도 한다.

미술관을 박물관의 한 종류에 포함시키는 국제박물관협회(ICOM)¹⁶⁾는 “박물관은 인류와 인류환경의 물질 증거를 연구·교육·향유할 목적으로 이를 수집·보존·조사·연구·상호교류(교육·전시)하는 비영리적이며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련법규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 정의)에서는 “미술관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⁷⁾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공공미술관은 스위스의 바젤미술관(Kunstmuseum Basel)으로서 16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바젤 시당국과 바젤대학교가 함께 설립, 유명가문의 방대한 소장품을 사들여서 개관했던 당시의 소장품들은 유럽 최초로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공기관의 공유물이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본보기로 삼는 시민적 의례를 처음으로 제공한 공공미술관의 원형은 18세기 프랑스의 루브르미술관이다.¹⁸⁾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공

14) 박물관에서도 특히 미술작품의 수집과 보존, 전시를 담당하는 시설인 미술관(museum) 명칭의 어원인 ‘뮤제이온(museion)’은 그리스 신화에서 학예를 관장하는 9명의 여신 ‘뮤즈(muse)’에서 비롯하였다. 뮤즈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 창건된 신전이 고전적 개념의 박물관으로서 종교적 봉헌물들을 사람들에게 개방하여 신앙심을 고양 하였다. 인류 최초의 박물관이자 미술관은 BC 280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os)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세웠던 거대한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15) 한미애, “한국과 일본의 국·공립미술관 기획전시 비교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2005, p.7.

16) 1946년 유네스코 산하의 비정부기구로 출범한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은 회원가입한 130여 나라의 국가위원회와 29개의 박물관 관련분야 국제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3년마다 ‘문화올림픽’이라 불리는 대규모 총회를 열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 제20차 총회를 개최했다. (하계훈, “문화유산 보존과 박물관의 역할”, 『월간미술』 2004년 11월호, p.68.)

17)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p.12.

18) 캐롤 던컨, “공공미술관과 문명화의 의례”, 『오늘의 문예비평』 제47호(2002년 겨울), 2002, p.186.

공미술관의 개념이 확립된 것은 프랑스혁명 직후로서, 1793년에 혁명정부는 정권교체에 의한 ‘양시앙 레짐’(구체제)의 붕괴를 적극 선전하기 위하여 왕궁이었던 루브르궁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안에 있던 왕의 소장품 모두가 시민의 것임을 선언하였다.¹⁹⁾ 이 시기부터 ‘공중(the public)에게 보여주기’라는 의미의 ‘전시(exhibition)’라는 관행이 비로소 싹텄는데, 문화의 고른 분배라는 근대국가의 이상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은 유럽열강들이 앞다투어 국립미술관을 세우는 기폭제로 작용했던 것이다.²⁰⁾

특히 이들 국가는 미술관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에게 근대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교육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권력-지식론(pouvoir-savoir)을 주창해온 미셸 푸코의 시각²¹⁾에서 볼 때 공공미술관은 근대의 주체·진보·민족 등 핵심적 지식들이 생산되고 그것이 권력과 연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주요공간으로도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성을 내포한 근대적 미술관의 출발은 1세기동안 다져진 식민지 열강제국들의 급속한 산업화 물결과 함께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면서 과학과 산업중심의 전문박물관들이 들어서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면서부터는 전시 위주의 미술관에서 벗어나 생태·자연·지역·유적중심의 열린 박물관(open museum)시대²²⁾를 맞이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미술관·박물관이 단순한 유물 보존창고나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민들 스스로가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진화를 거듭하게 된 것이다.

1. 컬렉션과 전시기능에서 미적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미술관(박물관)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나갈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는 정보

19) 서지원, “미셸 푸코의 계보학적 입장에서 본 공공미술관”, 『미학』 제41집(2005년 3월), 2005, p.147.

20) 윤난지, “성전과 백화점 사이, 후기 자본주의시대의 미술관”, 『월간미술』 2002년 4월호, p.196.
프랑스 혁명정부는 1793년 8월 10일 군주제 함락기념일에 루브르미술관 개관기념식을 가졌다.

21) 서지원, 앞의 책, p.165.

22) 양현미 외,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pp.7~8.

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산업(CT) 등 5개 신 기술 분야²³⁾가 있는데, 박물관·미술관은 관광과 결합하고 소장품들을 디지털화 하거나 응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통해 문화콘텐츠의 보고(寶庫)로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종의 문화산업체가 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21세기 미술관 정책은 시민을 교육하는 전시와 예술가를 지원하는 컬렉션 기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일반대중들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적 교육과 문화체험의 메카로서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 이 변화물결의 근저에는 국가경제의 선진국 대열 합류, 주5일 근무제 확산,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이란 우리 생활환경의 발전적인 변화가 깔려 있다. 그렇다고 다국적 기업의 확산에 의한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운 급속한 세계화 과정에서 파생하고 있는, 각국의 민족적·지역적 고유성이 파괴되고 다양한 인류문화의 획일화를 가져오게 하는 신 문화제국주의 출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염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에 유네스코에서도 박물관·미술관이 21세기에 걸맞는 열린 정체성의 형성과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문화적 생명력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또는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²⁴⁾에 기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 각 나라의 모든 지역은 그 지역사람들에 의해서 표현된 고유한 문화적 특징과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그 어떤 자유시장 경제체제 논리 보다 가장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고로, 21세기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① 유물(object)에서 체험(experience)으로 ② 보존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③ 계몽(enlightment)에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로 ④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⑤ 국가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⑥ 표준화에서 특성화로 ⑦ 오프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결합으로 ⑧ 관료주의에서 경영합리화로 ⑨ 학예연구원 중심에서

23) 중앙일보, 2001.8.18자.

24) 1992년 LA에서 흑인과 라틴계에 의한 최악의 인종폭동을 겪은 이후에,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인 미국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주장을 권리로서 인정하기 위해 이 용어가 사용되면서 본격적인 논쟁을 촉발했다. (조지 산체서, “미국을 다시본다②”, 한국일보, 2002.7.8자)
마침내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2005년 세계 각국의 문화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보호 협약」(문화다양성협약)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했는데, 미국이 자유통상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저지에 나선 것은 오히려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중앙일보, 2005.10.21자)

전문인력들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⑩ 기억의 축적에서 미래의 창조로 등 10가지 변화로 크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²⁵⁾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평생학습센터이자 이성적 교육(education)과 감성적 쾌락(entertainment)의 조화에 기초한 에듀테인먼트의 장으로서, 21세기 박물관·미술관의 새로운 변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학예연구 분야이다. 물론 소장품 수집관리와 전시, 교육기능에 있어서의 변화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지만 날로 전문화·특성화되는 박물관·미술관의 기능에 대해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그간 업무의 대부분을 도맡아 수행해온 학예연구원들을 고유한 업무인 소장품 연구와 전시기획 부문으로 국한시키고, 사무직(registrar)기능·보존관리·전시디자인·교육·자원봉사관리·홍보·마케팅부문 등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박물관·미술관 조직체계가 관료주의에서 경영합리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권위주의적인 수직적 위계질서를 지양하고, 다양한 전문인력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폭넓게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980년대 초에 이미 “문화에 대한 투자가 곧 경제에 대한 투자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²⁶⁾임을 외치며 ‘그랑 프로젝트(grands projects)’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야말로 대단히 뛰어난 선각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세계 최고 문화대통령으로서 1981년부터 14년간 프랑스를 이끈 그는 집권 초기 국내외적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대혁명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랑 프로젝트라는 문화적 대 프로젝트를 강력 추진한 것은 국가적인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유리피라미드로 유명한 루브르 미술관 확장공사, 오르세 미술관과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건설, 라 데팡스의 신개선문 설치, 국립도서관 신축 등은 30년이 가까워 오는 오늘날 “미국에 맨해튼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라 데팡스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자부심을 프랑스 국민들에게 가지게 해주었다.²⁷⁾

25) 양현미 외, 앞의 책, pp.18~22.

26) 홍사중, “문화민국의 출발”, 동아일보, 1999.9.21자.

27) 자크 아탈리(김용채 역), 『미테랑 평전』, 뷰스, 2006, 참조.

급작스런 전립선암 수술로 인해 2대 연임 마지막 해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1995년 5월 17일 사임한 프랑수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대통령은 은퇴 연설에서까지 “미래를 생각하는 인간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파리가 ‘21세기 알렉산드리아’로 남는 것을 꿈꾸며 문화강국의 미래위상을 드높이고자 모든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은 21세기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이 목표인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의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최초의 근대적 개념의 박물관으로는 1907년 경운궁(현 덕수궁)에서 즉위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같은 해 11월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박물관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 1909년 11월 창경궁 개방때 동물원 식물원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이왕가박물관’이 그 효시이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1919년 1월 고종황제가 타계하자 그가 재위하는 동안 많은 외국사신이 진상한 진귀한 선물들을 보관하였던 덕수궁 석조전에서 그해 10월부터 일본의 근대미술품들이 전시되자 한국 미술품도 전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된다. 이에 따라 마침내 1938년 3월 덕수궁에 새 건물을 완공하여 창경궁의 이왕가박물관에서 미술품만을 이관시켜 ‘이왕가미술관’을 발족시켰는데, 8개의 전시실과 수장고, 강당 등을 갖추으로써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미술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²⁸⁾

이왕가미술관이란 명칭은 이미 1915년 9월 일제통치 5년 홍보목적으로 「물산공진회(物産共進會)」를 근 2개월간 개최한 직후 경복궁에 설립한 ‘조선총독부 박물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붙여졌다. 작고 협소했던 총독부박물관은 1939년 경복궁 뒤뜰에 새 미술관을 준공하였으나 「조선전람회」 등의 기획전을 개최하는 정도로 그쳐 상설미술관 구실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제 식민지정책 아래서 그나마 미술관 활동을 전개한 선각자는 간송

28) 이난영, 『(신판)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99, pp.81~92.

전형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민족문화재 수집가였던 그는 서화, 고서, 도자기, 불상 등 각 분야에 걸쳐 방대한 유물들이 수집되자 1936년 서울 성북동에 국내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보화각’을 만들었다. 비록 상설전시활동을 활발히 하지는 못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뒤떨어지고 일본으로 혈값에 팔려나가는 고귀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민족적인 수문장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것이다.

8·15광복 직후 미군정 시기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지방박물관(경주·부여·공주·개성)은 1945년 12월 국립박물관이 신설 개관하면서 분관체제로 흡수 통합되었다. 또 이왕가미술관은 46년 3월 덕수궁미술관으로, 조선총독부미술관은 경복궁미술관으로, 은사과학기념관은 45년 10월에 국립과학박물관으로 재편하였다.²⁹⁾

1950년 6·25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듬해 국립박물관 소장유물들을 부산으로 대피시켰다가 53년 서울환도와 함께 경복궁으로 옮겨온 국립박물관은 그 다음해 1월 남산분관에서 정식 개관해 명분을 유지하다가, 55년 6월 덕수궁 석조전을 수리, 다시 이전하면서 국립박물관의 덕수궁시대를 열어나갔다.

이후에 본격적인 국립박물관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은 1969년의 일로 덕수궁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이 통합함으로써 구한말 이왕가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관이 국립박물관과 하나로 뭉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1960년 4·19혁명으로 다져진 민족적 자각과 고양된 민주주의식은 1969년 국립현대미술관, 1972년 국립과학관 신설과 함께, 후일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발전하게 되는 1966년 한국민속관 설립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유신 독재시대의 경제개발 최우선 논리에 밀려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국립박물관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채 표류해 오다가, 1984년 「박물관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에 공포(법률 제3775호)하면서 비로소 국가박물관으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가. 국립현대미술관 일반현황

1969년 8월 국립현대미술관 직제 제정으로 그해 10월에 경복궁에서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은 1973년 7월 덕수궁 석조전의 옛 국립박물관으로 자리를 옮긴

29) 양현미 외, 앞의 책, pp.10~11.

후 1986년 8월 25일 과천으로 신축 이전할 때까지 주로 담당한 것은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 개최업무였다.³⁰⁾ 이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목적이 국전운영 및 전시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소장품을 수집하는 컬렉션기능이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덕수궁미술관이 소장해온 미술작품들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첩시킨 것은 크나큰 오점으로 남고 말았다.

국가에 의해 설립된 유일한 공공미술관으로서 본격적인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과천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였는데, 직제를 개정하여 사무국과 학예연구실을 신설하고 사무국 아래 관리과 · 전시과 · 섭외교육과를 두었다. 86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적 규모의 전시시설과 야외 조각장을 겸비하여 이전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작품 및 자료 수집 · 보존, 전시 및 조사 · 연구와 이에 관한 국제교류는 물론 미술활동의 보급과 교육을 바탕으로 미술문화의식을 향상시키는 명실상부한 국립미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³¹⁾

경기도 과천 청계산 기슭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야외조각장 33,000㎡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73,361㎡(22,192평)에 달하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 연면적은 37,500㎡(11,344평)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시실은 6개소 14,143.5㎡(4,278평)이고 수장고는 9개소로 3,355㎡(1,015평)이다. 강당은 2개소 1,161.5㎡(351평)이며 연구 및 교육시설은 1,494.1㎡(452평)이다.

1998년 12월에는 우리나라 근대미술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체계화해 근대미술에 나타난 미의식과 역사관을 정립할 목적으로 서울 한복판 덕수궁에 분관형태인 덕수궁미술관을 개관하여 근대미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제시대 건물인 동서 석조전 가운데 연면적 4,115㎡(1,247평)인 동관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연면적 3,403㎡(1,031평)인 서관은 덕수궁미술관으로 사용하는 중이다.

이외에 2004년 6월 운영규정을 본격 마련한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2개로서 창동 스튜디오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497㎡(453평)에 스튜디오 14실과

30) 이정성,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 시공사, 1998, pp.204~206.

1972년 8월 국립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경복궁으로 신축이전(현 국립민속박물관 자리) 개관하자 이듬해 국립현대미술관이 덕수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으로서, 이때 국립중앙박물관은 직제를 개편하여 사무국과 학예연구실을 신설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참조)

3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연보』, 2005, pp.8~15.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oc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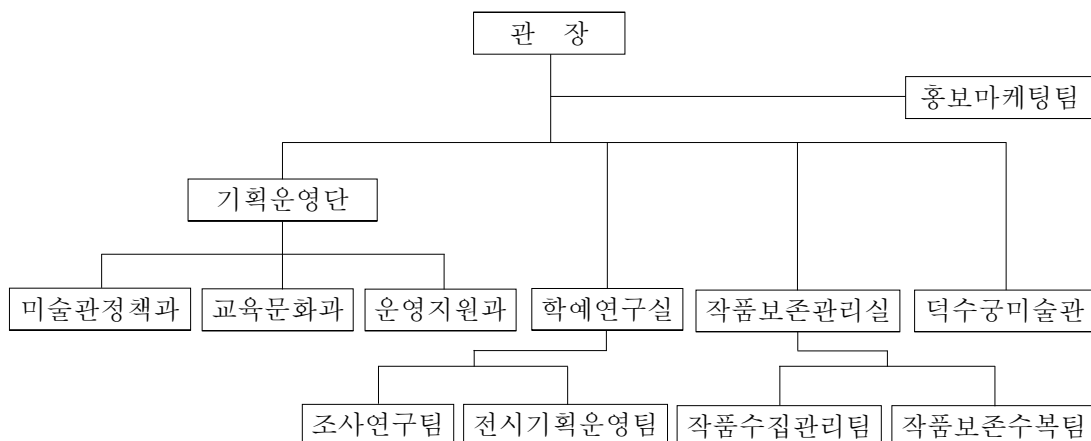
전시실 1실(40평)이 있으며, 고양 스튜디오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00㎡(726평)에 스튜디오 23실과 전시실 1실(40평) 등이 갖추어져 있다.

2004년 11월에는 새로운 예술정책에 기초한 국립현대미술관 직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문화관광부의 박물관정책 내에서 추진되던 미술관정책 기능을 흡수하여 독립적인 ‘미술관정책과’를 신설, 전문성에 의거한 실효성 있는 국내 미술관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미술관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과천 신축개관 20주년을 맞은 2006년 1월에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³²⁾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강력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국민에게 열린 미술관으로서 관람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수준의 미술문화 가치창출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1> 국립현대미술관의 직제

(2006년말 기준)



지난 1969년 처음 개관할 때는 정원 8명으로 모두 일반 행정직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12월 현재 관장을 포함하여 총 97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직(관장) 1명, 일반직 43명, 일반 또는 별정직 12명, 별정직 10명, 기능직 31명으로서 모자란 학예연구관(4급 상당) 1명과 기능직 2명을 빼고는 정원 100명

32) 2000년도부터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6년말 현재 45개 기관이 운영중에 있으며, 일반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 운영에 부합되는 국가사무에 대하여 그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연구소 위주의 행정형 기관과 국립병원 중심의 기업형 기관 2종류로 크게 나뉘는데, 문화예술관련 책임운영기관으로는 국립중앙극장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다.

모두 채우고 있다. 특히 학예연구 분야의 인력은 모두 24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할 만큼 신장되고 있다.

또한 미술정책 수립 및 각종 전시사업 계획 등 미술관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20인 이내의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으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수집 대상인 근·현대기 국내외 미술작품과 자료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15인 이내 소장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나. 운영실태와 문제점

미술 분야의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은 ① 미술작품과 자료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 ② 국내 미술관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육성 지원 ③ 미술활동의 보급과 교육을 통한 국민의 미술문화의식 향상 ④ 국제교류를 통한 우리 미술문화의 발전과 세계화 도모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219억9300만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 약 67% 대폭 늘어난 것은 소장품구입 10억원, 주차장 건립비 55억원, 중장기 전시개발 및 사이버미술관 확충에 2억원 정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2006년 이후로는 매년 10억원 넘게 증액 중이며, 2007년도 편성예산의 경우 237억5200만원에 이른다.

<표-2> 국립현대미술관 예산 및 관람객·입장료 추이

연 도	예 산	입 장 료	관 략 객		
			본관 유료(무료)	덕수궁 유료(무료)	외국인
2002	165.06억원	4억6677만원	367,740(325,252)	141,097(81,146)	4,847
2003	146.54억원	4억4237만원	292,873(282,785)	208,950(139,124)	3,434
2004	213.43억원	3억5510만원	230,766(252,969)	105,491(113,563)	14,506
2005	209.46억원	5억6553만원	224,814(355,728)	170,434(48,081)	17,060
2006	219.93억원	7억5445만원	243,242(282,029)	103,864(33,825)	7,702

또한 이와 같은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2004년도부터는 국립미술관 건립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문이 매년 30~50억 정도씩 추가함으로써 각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야외조각장을 포함한 10개 전시공간 가운데 미술관 상설전시는 6개 전시실에서 국제현대미술과 한국현대미술을 시대별·장르별·주제별로 나눠 하고 있다. 기획전시 경우에는 매년 덕수궁미술관의 4~5건을 포함하여 15건 안팎의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해마다 50억원 가까운 수집예산을 투입하는 소장작품은 200~300점씩 늘어나고 있다.

소장작품 관리에 있어서도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정밀 상태조사·보존수복 및 예방보존처리·보존처리기자재 확보 외에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이용허락 관리 등을 해나가고 있다. 미술은행의 경우는 행정기관·지방 문예회관·공립미술관·사립미술관 등에 활발한 작품대여사업을 진행 중이다. 2006년 12월말 현재 소장 미술작품은 모두 5,936점이며 기타작품(158점)과 자료(2,021점) 등을 포함하면 총 8,115점이나 된다.³³⁾

<표-3> 소장작품 수집현황 및 구입예산 추이

연 도	작 품 수 집	수 집 예 산	예산총액 대비 작품구입 비율(%)
2002	285	25억7200만원	15.58%
2003	602	42억2554만원	28.83%
2004	150	49억4568만원	23.17%
2005	215	46억4504만원	22.18%
2006	317	45억1820만원	20.54%

이밖에도 심도 있는 학예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내외 미술정보 조사, 북한 미술 조사연구, 정기학술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연구지 발간, 워크숍과 공청회, 연구업무 전담제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미술관 교육은 관람객들에게 전시회와 소장품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서 미술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갖게 해준다. 일반인과 교사,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관학 강좌」 「시니어 미술강좌」 「토요미술 공개강좌」 「초등·특수교사 미술연수」 「교사초청 전시

33)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연보』, 2006, pp.6~15.

설명회」 「청소년 현대미술 감상」 「어린이 미술탐험」 「장애아동 미술관소풍」 「우리가족 미술여행」 등 다채로운 사회교육과 학교연계교육, 어린이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특히 2005년부터는 미술관 운영전반에 대한 강의에서 벗어나 특정주제인 미술관교육 중심으로 전환한 「미술관학 강좌」는 미술 관련 분야 종사자들 사이의 정보공유와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전문성 향상에 많은 역할을 두고 있다.

지역과 계층간의 균등한 미술문화 향수권 신장과 대중화를 위한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과 함께, 지하철역이나 국제공항과 항만 등의 공공시설에 전시문화 공간을 마련하는 「작은 미술관」 사업도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다양한 전시 및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이버 미술관」과 「e-미술마을」 운영을 통해 기획전시와 연계한 ‘관람후기 이벤트’나 회원행사인 ‘작가와의 만남’ 등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회원 간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선용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청소년 및 소외지역 아동들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공간을 탐방하고 체험시키는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주말을 이용한 미술관 무료음악회인 「클래식데이트」 「정기영화감상회」 등을 개설하여 여가문화 활성화와 복합문화 공간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술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작업공간과 편리한 작업여건을 제공해주기 위해 2002년 6월 서울 도봉구에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설립 개관한 이래, 2004년 4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를 개관하여 ‘오픈 스튜디오’를 통한 활발한 창작전시는 물론, 입주작가의 해외스튜디오 연수방문 국제교환 프로그램, 아시아작가 초청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작가들의 국제교류를 적극 지원해나가고 있다.³⁴⁾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와 같은 전향적인 미술정책과 예산확충, 다채롭고 폭넓은 연구·수집·전시·교육·지원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3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 연보』, 2005, 참조.

첫째는, 경직된 조직구조의 문제로서 특정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춘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1989년 ‘학예연구 직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 15년이 흐르면서 인원확충은 많이 이뤄졌지만, 선진화된 미술관 운영에 걸맞도록 학예연구직들의 전공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장기적 지속적이어야 하는 학문연구 업무의 특성상 신분보장 없는 일부 학예연구직의 계약직 충원은 조직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술관 행정에 있어서도 미술과 미술관 활동 모두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정영역의 업무이지만, 미술관 정원의 1/3을 차지하는 일반 행정직의 경우 순환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 축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5년간 사무국장과 과장 등 주요 간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여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해준다.

게다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기관폐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관련 법조항(제7조③항)이 있기는 하나, 지난 역대관장들의 3~5년 평균 임기에 비춰볼 때 책임기관장의 임기 치고는 너무 짧다. 적어도 기관장이 미술관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미술관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임기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루브르미술관·메트로폴리탄미술관·뉴욕현대미술관 등 주요 미술관 관장들이 20~30년 동안 장기재임하면서 세계적인 미술관의 전형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³⁵⁾

둘째는, 현재의 미술관 소장작품을 국제적인 규모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품수집관리 및 보존수복처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꾸준한 채용과 교육, 보존처리 기자재 확보 등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35) 강승완, “국립미술관 시스템의 전문성 구현의 한계와 대안”, 『현대미술관 연구』 제15집, 국립현대미술관, 2004, pp.44~48.

이는 선진국 국립미술관들이 보유한 수만에서 수십만점의 소장작품 숫자와 비교할 때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며, 미술품 보존수복분야의 본격적 도입 또한 일천하기에 해외파견 실무교육을 통한 노하우 축적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미술관 시설의 낙후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부족이다.

신축한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대적인 미감과 미술개념의 변화, 대중친화적인 미술관 기능을 담아내기에는 아주 어려운 실정으로, 특히 3.7m에 불과한 전시실 천정높이는 설치·영상·미디어아트 등 새로운 현대미술작품들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외부와 단절된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느낌의 전시장 구조는 나날이 증가하는 미술애호가와 학생·청소년·가족 관람객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휴식·교육·오리엔테이션 등 각종 편의시설의 부족현상이 동반되고 있다. 전체 관람자 50%이상을 차지하는 청소년층의 경우는 주로 단체로 관람하러오는데 반해 점심식사 제공이나 도시락 먹을 공간조차 제대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³⁶⁾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교육과 연계한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대책이 시급히 세워져야 할 것이다.

다. 중장기 발전계획

2007년 2월 책임행정기관으로서 기관장 리더십, 조직·인사 관리, 예산·회계 관리, 업무수행과 지원방식, 고객서비스 및 만족도에 대한 공통평가와 더불어 전시·연구기반, 문화향수 교육프로그램, 미술작품 수집관리, 미술관 진흥정책 등에 관한 고유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를³⁷⁾ 보면, 기관장의 리더십과 신축적 조직관리, 전시기획·평가의 활성화와 중장기 전시계획, 미술관 진흥정책, 고객서비스·만족도 등에서 개선사항들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최고평가를 받을 만큼 미술관의 질적 발전에 적극 매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양현미 외, 앞의 책, pp.291~294.

37) 문화관광부, 『2006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2007, 참조.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국제적 면모를 지닌 국립미술관으로 더한층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품수집과 관리를 담당할 레지스트라, 미술관교육을 담당할 에듀케이터, 미술작품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관리와 수복기능을 담당할 컨서베이터(conservator), 미술관 홍보마케팅 담당자 등의 세분화 전문화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미술관 노후시설의 보수, 전시공간의 재구조화,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본격적인 리노베이션 계획과 함께 국립현대미술관이 우리 미술문화를 대표하는 21세기의 창조적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관 및 분관 설치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건립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의 자리는 여건상 해외관광객들의 방문이 몹시 힘든 실정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이자 국가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산업의 핵심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관계로 수도권 관광코스에서 곤잘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지난 2004년부터 경복궁 맞은편에 위치한 기무사령부(기무사)의 지방이전 결정에 따라서 이곳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을 짓자는 여론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본관의 여러 기능적 제약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조화와 균형 이론 운영기본원칙을 충실히 제정하여 실행에 옮긴다면 획기적인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검토요소로서는 보존관리·연구기능은 본관에서 담당하고 전시·수집·교육기능 위주의 ‘전시관 형태’만을 유지하는 방안, 국립사진아카이브(archive)나 국립공예·디자인박물관과 같은 독자적인 ‘전문미술관 형태’ 신규설립 방안³⁸⁾ 등에 대한 심층연구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한 과거행태와는 달리 충분히 선형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덕수궁미술관의 경우에는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는 동관까지 확장하여 우리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근대미술에 대한 집중적인 수집·전시·연구·교육기능을 갖춘 ‘근대미술관’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모색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38) 양현미 외, 앞의 책, pp.137~140.

제3장 지역의 공공미술관 현황과 실태

제1절 지역별 주요 공공미술관 운영현황

우리나라에는 2005년말 현재 국립미술관 2개소 이외에 공립 13개소, 사립 51개소, 대학 1개소 등 총 67개소의 미술관이 있으며, 이중 서울 21개소, 경기도 21개소로 수도권에 전체 미술관의 50%가 집중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 16곳 가운데 공립미술관이 설립된 지역은 서울(서울시립미술관), 부산(부산시립미술관), 광주(광주시립미술관), 대전(대전시립미술관), 경남(경남도립미술관), 전북(전북도립미술관), 전남(옥관미술관) 등 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³⁹⁾

최근들어 개관했거나 건립 혹은 계획중인 곳으로는 지난 2006년 10월 개관한 경기도미술관 이외에 백남준미술관이 2008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다. 대전의 이응노미술관은 2007년 5월에 문을 열었으며, 신축 이전하는 광주시립미술관은 2007년 10월에 새롭게 개관했다. 전국 최초로 미술분야 민자유치(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립미술관의 경우는 2007년 8월에 착공하였고, 제주도립미술관은 11월에 기공식을 가졌다.

특히 대구, 울산, 충남, 경북지역 등 4개 시·도에는 공립미술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의 경우는 규모가 작고 전문인력 또한 1~2명 정도에 불과해 실질적인 미술관 조직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⁴⁰⁾

이렇듯 핵심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인프라구축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실정에 처해 있다.

2006년도 전국 18개 공립미술관 가운데 1개 미술관당 평균 연면적은 5,479.5㎡(약 1,660평) 정도이고 평균 부지면적은 147,351㎡(약 44,652평)으로 나타났다.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는 부산시립미술관이 21,425㎡(약 6,481평)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전시실 규모는 총 3,738㎡(약 1,131평)에 모두 20개였다. 부지면적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이 공원부지를 포함해 2,439,000㎡(약 739,000평)에

39)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선진국을 위한 투자, 미술관정책』, p.38.

40) 국립현대미술관, 『2006 미술관백서』, 2007, p.249.

이르러 가장 컸다.⁴¹⁾

<표-4> 지역별 주요 공공미술관 시설현황

미술관명	부지면적	건물 연면적	전시실 (개수)	수장고 (개수)
경기도미술관	10,000m ²	8,277m ²	2,140m ² (8실)	700m ² (5실)
경남도립미술관	15,672m ²	8,888m ²	2,640m ² (8실)	789m ² (2실)
광주시립미술관	2,439,000m ²	17,122m ²	13,973m ² (18실)	357m ² (4실)
대전시립미술관	28,827m ²	8,407m ²	2,345m ² (5실)	431m ² (2실)
부산시립미술관	21,560m ²	21,425m ²	3,738m ² (20실)	1,369m ² (2실)
서울시립미술관	9,314m ²	13,433m ²	3,106.9m ² (7실)	1,007m ² (6실)
전북도립미술관	20,982m ²	6,904.8m ²	1,524.4m ² (5실)	375.2m ² (2실)

공립미술관 재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술관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할수록 적자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예산에서 미술관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달성조차 힘든 실정으로서, 이러한 운영수입마저도 대부분 관람료와 대관료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이나 기부금, 후원금 등은 전무한 상태이다.

<표-5> 2006년도 주요 공공미술관 수지현황

미술관명	수입	지출	수(△)지 규모	비고
경기도미술관		2,441,430	△2,441,430	신규개관
경남도립미술관	38,037	2,237,332	△2,199,295	
광주시립미술관	102,177	2,834,484	△2,732,307	
대전시립미술관	71,249	2,481,403	△2,410,154	
부산시립미술관	65,572	3,306,958	△3,241,386	
서울시립미술관	811,269	11,019,180	△10,207,911	
전북도립미술관	48,179	1,981,652	△1,933,473	

(단위 : 천원)

41)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2007, pp.253~258.

<표-6> 2006년도 주요 공공미술관 수입현황

미술관명	관람료	운영수입	기 타	합 계	비 고
경기도미술관					신규개관
경남도립미술관	36,848	1,189		38,037	
광주시립미술관	3,937	67,342	30,898	102,177	
대전시립미술관	71,249			71,249	
부산시립미술관	24,736	26,973	13,863	65,572	
서울시립미술관	534,730	157,684	118,855	811,269	
전북도립미술관	42,021	6,158		48,179	

(단위 : 천원)

2006년도 권역별 공립미술관의 관람인원을 살펴보면 대략 적게는 10만명부터 많게는 100만명 가까울 정도로 심한 지역적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지방도시로 내려갈수록 관람인원은 물론 관람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를 제외하고는 무료 입장객 비율이 현격하게 낮아짐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의 미술문화 향수기회를 그만큼 증진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7> 2006년도 주요 공공미술관 관람인원 현황

미술관명	유 료	무 료	합 계	(관람료)
경기도미술관		47,875명	47,875명	
경남도립미술관	50,335명	44,180명	94,515명	(38,037천원)
광주시립미술관	11,180명	62,281명	73,461명	(102,177천원)
대전시립미술관	154,143명	74,971명	229,114명	(71,249천원)
부산시립미술관	159,999명	238,907명	398,906명	(65,572천원)
서울시립미술관	468,444명	523,517명	991,961명	(811,269천원)
전북도립미술관	75,090명	33,484명	108,574명	(48,179천원)

미술관 예산 가운데 제일 큰 인건비 다음으로 전시개최 비용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소장작품 구입비이다. 매년 약 2~3억원에서부터 30억원까지 꾸준히 그 액수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이 또한 대도시에서 지방도시로 내려갈수록 큰 폭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⁴²⁾

<표-8> 주요 공공미술관 작품구입비 및 소장품 현황

미술관명	작품구입비		소장품수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경기도미술관		1,500,000		113점
경남도립미술관	481,000		330점	348점
광주시립미술관	180,000	266,000	2,679점	2,730점
대전시립미술관	163,014	250,000	601점	678점
부산시립미술관			745점	849점
서울시립미술관	3,000,000	3,000,000	1,812점	2,002점
전북도립미술관	500,00	500,00	340점	445점

(단위 : 천원)

이상과 같이 지역별 주요 공공미술관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설립연도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의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⁴³⁾이 개관한 것은 1988년 8월로 일제시대 이후 중등교육의 산실이었던 옛 경희궁터 공원부지에다 990㎡(300여평) 규모의 6개 전시실과 야외 조각공원을 갖추고서였다. 1990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미술 교양교육으로서 「금요시민미술 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왔는데, 91년 미술의 이해와 감상, 92년 한국미술의 이해 등 미술이론 및 시청각 교육 등으로 시민미술 강좌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42) 국립현대미술관, 『2005 미술관백서』, 『2006 미술관백서』 참조.

43)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seoulmoa.org> 및 『서울시립미술관연보 2002-2004』 참조.

1995년 8월에는 서울 600년 기념관이 전시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개관했다. 이 기념관은 1994년 서울정도 600년 탄생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을 개보수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2개 전시실과 그 밖의 편의시설을 갖추었다. 1998년 11월 원로 한국화가 천경자 화백이 자신의 대표작품 93점과 화구를 미술관에 기증했고, 1999년 6월에는 개관 이래 관장 없이 전시체제만 유지해 오던 상태에서 벗어나 예술 식견을 가진 전문가를 위촉하는 미술관장 직제를 도입하였다.

현재의 서울시립미술관은 2002년 5월 옛 대법원 자리에 신축 이전한 것으로, 지하2층 지상3층 건물 연면적 13,433.8㎡(4,063평, 별관 652평) 규모로 지어졌다. 이중 전시실은 3,106.9㎡(939.84평)이며 모두 7실에 이른다. 기존건물의 파사드 일부만 남기고 완전히 새로 건립함으로써 서울 한복판에 국립현대미술관 산하조직인 덕수궁미술관과 함께 대표적인 지역 공공미술관으로서 당당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03년 1월에는 최초 공개모집에 의하여 개방형직위 미술관장을 선임했으며, 같은 해 7월 서울 600년 기념관을 또다시 새롭게 단장하여 경희궁 분관으로 재개관했다. 연면적 2,591.55㎡(783.94평)인 이곳은 한국의 청년작가와 젊은 세대를 위한 예술창조의 장으로서 개방하고 있다.

제2의 분관으로서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은 2004년 9월에 개관하였는데, 연면적 1,569.58㎡(474.8평) 규모로 관악구 남현동에 소재한 옛 벨기에 영사관 건물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 또한 청년세대의 실험적 작품 및 새로운 모색을 추구하는 열린 공간이자 도심권에 비해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는 이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의 촉매제 구실을 하고 있다.

2006년말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은 한국화 426점, 서양화 735점, 판화 275점, 조각 164점, 공예 92점, 서예 20점, 미디어 아트(뉴미디어) 10점, 사진 273점, 설치 7점 등 모두 9개 부문에 총 2,002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관 조직은 개방형 직위의 관장 아래 총무부와 학예연구부가 있으며, 학예연구부 산하에는 교육홍보과 · 전시과 · 수집보존과로 나뉘진다. 특히 전시과에 속해 있는 미디어시티팀은 「서울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행사 기본계획 수립과 전시, 추진자문위원회 구성 ·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에는 1,152㎡(348.48평) 규모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를 개설했다. 2006년 기준 미술관 근무

인원은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4명 포함) 11명과 그 외 전문직 11명 등 총 67명에 이른다.

이밖에도 관장직속으로 미술시책 방향정립, 미술사업 계획수립, 대관허가 심의, 소장작품 구입 등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진흥을 위해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미술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기타 미술관 운영에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며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2.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에 이어 지방에서는 최초로 1992년 8월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⁴⁴⁾은 조출한 조직(1실2계) 구성으로 출발하였으나 그해 11월 상설전시실 개관을 필두해서 95년 비엔날레관 개관, 96년 비엔날레 지원본부와 통합개편(1국2부1실7과), 97년 교육홍보관 개관 등 조직 확충을 거듭해왔다. 1998년 9월에는 중외공원 관리사무소와 통합개편(1국2부1실5과) 하였고, 99년에는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를 분리(1실3과) 하였다. 또한 2003년 4월 금남로 분관을 개관(1실3과 1분관) 하였으며, 마침내 2007년 10월에는 국제 규모의 새로운 광주시립미술관 본관을 중외공원 속에 신축개관 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비엔날레 개최도시이자 문화수도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미술관 조직으로는 관장 밑에 총무과, 시설관리과, 전시운영과, 학예연구실, 금남로 분관 등이 있다. 특히 전시운영과에서는 고유한 전시업무를 포함하여 미술작품의 수집·기증·기탁에 관한 사항 및 수장고와 소장품의 보존관리·운용에 관한 사업 이외에도, 미술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미술관위원회를 담당하는 등 업무범위를 폭넓게 처리하고 있다. 2006년 기준 미술관 인력은 학예연구사 7명과 그 외 전문직 2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에 달한다.

연면적 1,152㎡(348.48평) 규모의 금남로 분관은 시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도심 한복판 인구밀집지역인 옛 동구청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데,

44)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artmuse.gwangju.go.kr> 참조.

국내외 우수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시기획이나 본관전시와 연계한 기획전 개최, 미술 자료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분관 외에도 젊고 유망한 작가에게 작업공간을 지원하고 전시회, 세미나, 작가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운영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미술인들을 지원하고자 설립한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양산동 창작스튜디오와 중외공원의 팔각정 창작스튜디오 등 2군데가 있다.

2006년까지 광주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은 한국화 261점, 서양화 927점, 판화 1,040점, 조각 98점, 뉴미디어 16점, 공예 39점, 사진 281점, 서예 64점, 기타 4점 등 9개 부문에 총 2,730점이 있다. 여기에는 허백련 및 오지호 화백의 기증 작품과 93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기증한 하정웅 컬렉션 1,865점이 포함돼 있다.

미술관 교육의 경우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는 물론 친숙하고 열린 미술관 정착과 미술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누드크로키·생활도예 등의 미술실기 및 이론 강좌, 어린이갤러리와 미술교실 등 다양한 미술관 문화학교를 개설 운영중이다.

특히 중외공원내의 과학관과 통일관 자리에 신축 개관한 광주시립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3층 부지면적 18,430㎡(5,575평), 연면적 8,660㎡(2,620평) 규모로 국비 78억원을 포함하여 총 259억원을 투입하였다. 일부 자연채광이 가능한 7개의 전시실 면적은 2,670㎡(807.68평)이며, 수장고는 5개로 1,408㎡(425.92평)에 이른다. 또한 옥상에는 야외 전시공간과 더불어 프랑스의蓬피두센터처럼 커피숍을 마련해 관람 이후 피로를 풀며 도심공원이 만들어내는 녹색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신축미술관은 그전 미술관과 연면적이 비슷하나 수장고를 3배 늘리고 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 배치하는 동시에 설치미술 공간을 별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 확충 노력과 더불어 언제나 빠듯한 미술관 예산과 부족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다.

3. 부산시립미술관

우리나라 세 번째 광역시도 단위 공립미술관으로서 1998년 3월 개관한 부산시립미술관⁴⁵⁾은 그 규모면에 있어서는 두번째를 자랑한다. 부산문화회관과 시민

45) 부산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busan.go.kr> 참조.

회관, 시립박물관 등과 더불어 문화 불모지라는 부산의 오명을 벗는 대표적 문화 공간인 부산시립미술관 규모는 대지 21,560㎡(6,522평) 건물 연면적 21,425㎡(6,481평)에 이르는 지하2층 지상3층 초대형건물로서 전시실 6,321㎡(1,912평)과 수장고 1,369㎡(414평), 강당, 미술자료실, 교육연구실, 야외조각공원, 식당과 카페테리아, 아트샵 등이 들어서 있다.

미술관에서는 각 장르별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 전시, 연구와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으로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에 부합하는 특색있는 미술문화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현대미술 및 부산 영남권 미술을 중점 수용하는 복합예술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00년부터 3년 연속 전국의 문화기반시설 가운데 박물관·미술관 관리운영분야 우수상과 장려상 등을 받기도 하였다.

미술관 조직구성은 임명 또는 공모에 의한 관장 아래 관리과와 학예연구실이 있다. 운영인력의 경우에는 학예연구사(자격증 미소지자 2명 포함) 7명과 그 외 전문직 1명 등 총 45명에 이른다. 특히 관리과 안에는 총무담당·교육홍보·전시담당·시설관리담당으로 다시 세분화시키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작품의 전시·연구·수집·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중심의 학예연구기능을 대폭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전시장 규모가 20개로 워낙 크다보니 상설전시와 기획전 위주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미술창작스튜디오 설립 지원사업이나 소장작품 구입관리 등에 많은 제약과 함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2년 3월 개관한 용두산 미술전시관은 문화회관 소속이었으나 부산시립미술관 신축건립을 하면서 이곳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었다. 건물 연면적 533㎡(161평)에 전시실 320㎡(97평)과 수장고 49㎡(15평) 등이 갖추어져 있다. 본관 건물에 위치한 2개의 시민갤러리와 함께 지역미술인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한 대관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은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거나 한국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 역량있는 청년작가 작품, 국제현대미술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현재 총 849점을 수집 소장중이며 장르별로는 한국화 97점, 서양화 554점, 판화 58점, 조각 82점, 공예 10점, 뉴미디어 5점, 사진 12점, 기타 31점 등이다.

다양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 가운데는 시민미술 교양강좌 및 전문 강좌, 어린이 미술강좌, 학술세미나, 작가와의 대화 등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나가기 위한 문화행사로는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순회 기획전시, 라이브 공연, 학생미술 실기대회, 무료영화 감상회 등을 펼치고 있다.

4. 대전시립미술관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에 위치한 대전시립미술관⁴⁶⁾은 대전과 중부권 최초의 공공 미술관으로서 지역미술은 물론 우리나라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모두가 그 성과를 함께 누림으로써 보다 여유롭고 깊이있는 삶을 공유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

대지 28,828㎡(8,720평) 위에 지하1층 지상2층 건축 연면적 8,407㎡(2,543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서 1998년 4월 개관하였다. 전체 2,345㎡(709평) 규모의 5개의 전시실과 함께 431㎡(130.38평) 규모의 2개 수장고, 강당, 세미나실, 자료실, 어린이 실기실 이외에도 야외분수대와 조각공원을 갖추고 있다.

미술관이 위치한 둔산지역은 1993년 대전엑스포 개최할 때 조성한 신시가지로서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하여 대전시청, 법원, 공공기관 및 대규모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다. 특히 약 60만㎡의 둔산공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갑천 사이에 대덕연구단지와 대덕밸리, 엑스포 과학공원, 국립중앙과학관, 유성온천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조직구성은 관장 밑에 관리담당과 전시담당, 학예연구실 등 세 부서를 두고 있으며, 2006년말 현재 인력현황은 자격증 미소지자 학예연구사 11명과 일반직원 20명 등 31명에 이른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학예연구사나 전문직 인력이 단한명도 없을 정도로 미술관 운영상황이 매우 취약하다.

미술관 소장품의 경우 2006년 현재 한국화 135점, 서양화 318점, 판화 89점, 조각 64점, 공예 26점, 서예 21점, 사진 9점, 뉴미디어 5점, 기타 11점 등으로 총 678점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열린 미술관을 지향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46)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dmma.metro.daejeon.kr> 참조.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성인미술강좌 · 어린이미술강좌 · 국내외 학술세미나 활동 등이 있으며, 문화활동 분야에는 미술교사 초청 전시설명회 · 영화상영 · 댄스페스티벌 · 야외 연극축전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2절 최근 완공 및 건립중인 공공미술관

앞서 지역별 주요 공공미술관의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핵심 문화기반시설로서 공공미술관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술관 운영예산의 미흡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애로점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개관했거나 건립중인 곳으로는 2006년 10월 개관한 경기도미술관을 선두로 백남준미술관이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응노미술관은 2007년 5월에 대전에서 문을 열었다. 전국 최초 미술분야 민자유치사업(BTL)사업으로 건립중인 대구시립미술관의 경우 2007년 8월 착공하였고, 같은 사업방식을 채택한 제주도립미술관은 2007년 11월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1. 경기도미술관

2006년 10월 문을 연 현대적 건축디자인 감각을 지닌 경기도미술관⁴⁷⁾은 개관 기념전으로 세계현대미술의 거장인 ‘호안 미로’ 작품 146점을 도민들에게 선보였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호안미로재단과 공동 기획한 이 전시회에서는 1999년 경기도와 자매결연 맺은 호안 미로의 고향인 스페인 카탈루냐가 전시 개최에 적극 참여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안산시 초지동 화랑공원 10,000㎡(3,025평) 부지에 세워진 미술관 규모는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8,277㎡(2,504평) 규모로서 총 259억원의 자체예산이 들었다. 3,063㎡(927평) 규모의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 이외에도 수장고 969㎡(293평),

47)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gma.or.kr> 참조.

정보검색열람실, 다목적홀, 아트샵, 카페테리아 등의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뛰어난 조형성과 예술성을 가진 것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경기도미술관은 건물전면을 유리로 시공하여 투명성과 쾌적성을 강조했으며, 주변의 화랑호수 등을 활용해 건물자체가 바다 위의 돛단배를 연상시키게 한다. 2007년도 미술관 관련 추진사업으로는 전문성과 대중성이 조화이룬 수준 높은 전시회를 계획 중이다.

미술관 조직과 인원은 관장 아래 총무팀과 전시팀, 조사연구팀을 두었으며, 학예연구사 4명과 그 외 전문직 2명을 포함하여 26명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관 소장품으로는 15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화 35점, 서양화 39점, 판화 4점, 조각 29점, 서예 4점, 설치 1점, 사진 2점 등 114점을 폭넓게 수집했다.⁴⁸⁾

그러나 신축개관 7개월밖에 안된 경기도미술관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속출해 경기도와 시공업체는 전면 보수공사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준공 직후부터 유리로 만들어진 천장부분에서 빗물이 새고 벽면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시공업체의 하자 보수팀이 5개월 동안 상주하며 보수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여 만에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 것이다.

2. 백남준미술관

2008년 7월 개관 예정으로 백남준미술관(백남준아트센터) 건립을 추진해온 경기문화재단은 2006년 5월 용인시 상갈동의 미술관 부지에서 첫 기공식을 거행한 이래 완공작업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있다. 경기도와 백남준 스튜디오측의 미술관 건립 합의에 따라 2001년 1월에 1차 협약을 체결했고 이듬해 6월 2차 협약에서는 백남준 이름을 내건 세계 유일의 ‘백남준미술관’을 경기도에 건립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현재 위치에 건립부지와 사업예산을 확정해 경기문화재단에 미술관 건립사업을 위탁하는 동시에, 2003년 8월 국제공모를 통해서 독일의 여성 건축가 크리스틴 세멜의 작품 「매트릭스」를 건축설계 아이디어 당선작으로 선정한 이후 기본설계 완료까지 2년 2개월이나 소요되었다.⁴⁹⁾

48) 경기도미술관, 「미술관 일반현황」, 2006, p.5.

49) 경기문화재단, 『백남준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2002, pp.3~4.

백남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paiknamjune.org> 참조.

경기도는 지난 5년 동안 1백억원을 투입하여 3차에 걸쳐 예술작품 67점을 작가로부터 직접 구입했는데, 이 컬렉션은 백남준의 시대별, 유형별로 대표성을 갖는 작품들로서 특히 2005년 25억원을 들여 구입한 2,285점의 비디오 아카이브는 백남준 예술의 전과정이 수록된 역사적 기록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 백남준 개인을 위한 미술관 건립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미술관과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따라 감사원 지적사항 일부를 수용, 당초 500억원 규모의 경기도미술관 신축건립을 300억원 규모로 축소 조정하였다. 이는 백남준의 경우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이므로 미술관 건립을 발판삼아 경기도가 21세기 새로운 미술경향의 하나인 ‘비디오 아트’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명분이 더 컸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289억원을 들여 154,681㎡(46,761평)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5,605㎡(1,695평) 규모로 세워지는 백남준미술관은 상설 및 기획전시실, 영상자료실, 창작공간, 교육실, 수장고, 연구실,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미술관 전시실에는 「삼원소」 「TV 물고기」 「TV시계」 「로봇 456」 등 비디오 작품 67점과 작가 개인 사물세트 3점, 비디오 아카이브(습작) 2,285점 등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3. 이응노미술관

2007년 5월 개관한 이응노미술관⁵⁰⁾은 한국 현대미술계의 거장인 고암 이응노(1904~1989) 화백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기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둔산 대공원의 대전시립미술관 바로 옆 부지 위에 2005년 9월 착공해 1년 7개월 만에 완공했는데, 지하1층 지상2층 건축 연면적 1,650㎡(500평) 규모로서 국비 17억원과 시비 40억원을 포함하여 총 57억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개관기념 첫 전시회는 ‘고암, 예술의 숲을 거닐다. 파리에서 대전으로’라는 주제로 그의 대표작인 「군상」 등의 문자 추상 이외에도 「인간」 시리즈 등의 회화와 조각, 세라믹 작품 53점이 선보였다.

충남 예산출신으로 인근 홍성에서 학교를 다니며 미술을 공부했던 고암은 예술적 성취가 정치적 탄압에 의해 가려져 만년을 이국땅에서 보내야 했던 비운의 화가다.

50) 이응노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ungnolee-museum.daejeon.kr> 참조.

동서양을 넘나드는 끊임없는 실험정신으로 유럽화단에서 인정을 받던 그는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옥중에서도 간장을 물감 삼고, 휴지를 화폭 삼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고암이 프랑스 파리에서 예술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부터 전 생애에 걸쳐 그린 작품 200여점을 부인 박인경(83)씨로부터 기증받아 소장 전시중인 이응노미술관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한국 근·현대미술 전문연구기관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이응노미술관 개관은 중부권 중심지인 대전이 국제적 미술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미술관 건물은 프랑스 건축가 로랑 보두앵이 고암의 예술세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으로서, 2006년 개관 때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대미술관처럼 미술관 자체가 또 하나의 예술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대구시립미술관

우리나라 3대도시 가운데 하나인 대구는 인구 250만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서 재정자립도가 2003년말 기준 76.3%로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3번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립미술관이 전혀 없는 관계로 말미암아 지역미술문화의 활성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문화지수 또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는 기현상을 초래해왔다.⁵¹⁾

이에 1997년부터 대구미술협회를 비롯한 지역 미술인과 언론계, 학계에서 미술관 건립을 요구하여 이듬해 건립자문위원회 구성, 1999년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과정 등을 거쳐 왔다. 2002년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대구시의 재정형편상 계속 미뤄져 오다가 2005년 정부의 BTL선도사업으로 지정돼 급물살을 타기 시작, 그해 12월 민간투자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민간투자 시설사업에는 재무출자자로 대구은행, 한국산업은행, 삼성생명보험, LIG 손해보험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공사로는 현대산업개발(주)와 대구 화성산업, 명신

51)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대구시, 『대구시립미술관 건립사업 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적격성 조사』, 2005, p.10.

건설, JR건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가 도입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처음 추진되는 대구시립미술관은 2010년 개관예정으로 있다. 2007년 8월 대구대공원 문화예술지구와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대구체육공원 사이에 위치한 수성구 삼덕동의 미술관 건립현장에서 착공식을 가졌으며, 부지면적 71,065㎡(21,497평) 및 건물 연면적 20,326㎡(6,148.6평) 규모에 총사업비 662억원이 소요된다. 대구시가 부지매입비 106억원을 부담하고 미술관 신축공사비 556억원은 민간자본으로 투입하는데, 민간투자비는 20년 동안 매년 45억원씩 분할 상환해나가야 한다.

주요기능별 면적현황으로는 전시실 8개소 4,866.19㎡(1,472평), 수장고 5개소 2,281.68㎡(690.2평) 이외에 문화교실 4개소 319.64㎡(96.69평), 이벤트홀 2개소 1,245.13㎡(376.65평), 다목적 강당 1개소 478.17㎡(144.64평), 다목적 로비 1개소 1,152㎡(348.48평) 등이 있다.

<표-9> 대구시립미술관 공간현황⁵²⁾

구 분	기 능	면 적 (㎡)	비율(%)
전시 · 관람	상설·기획전시실, 전시작품 반·출입	5,912.4 (1,788.5평)	29.1
작품보존·관리	수장고 및 소장작품 반·출입	2,844.6 (860.5평)	14.0
교육 · 학술	교육, 도서 및 자료 보급	995.2 (301평)	4.9
휴게 공간	관람객 휴게, 편의제공	1,826.2 (552.4평)	9.0
수익 시설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업	2,392.6 (723.8평)	11.7
관리 · 운영	관리 및 운영 등의 사무공간	547.5 (165.6평)	2.7
설비 · 기타	설비시설 및 계단, 화장실	5,807.5 (1,756.8평)	28.6
계		20,326.0 (6,148.6평)	100

오래된 지역 미술문화 보존과 함께 지역작가들에게 창작의욕 고취 및 국제적 역량 함양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역할을 수행해나갈 대구시립미술관은 타 국공립미술관 신축사업 때와는 달리 기공식 이전부터 전문 큐레이터를 채용하여 프로그램 개발, 소장품 확보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나가고 있다. 2007년 5월 구성한 ‘미술관 개관추진위원회’는

52)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 BTL사업 내부자료,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참조.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맡고 있으며, 2008년 상반기부터는 개관 준비팀을 운영하여 미술관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현재 약 800여점의 미술작품 소장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전시작품 확보가 미술관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판단 아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많은 예산을 투자한 작품구입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을 기증 받거나 위탁 관리해주는 방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숙원사업이던 대구시립미술관 신축건립에 대하여 지역미술인들은 일제히 반기면서도 접근성 문제해소와 더불어 미술관 특성화, 운영방향, 재원마련 등에 있어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⁵³⁾

지금의 미술관 부지는 지하철을 이용하고도 20~30분을 더 걸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초기부터 미술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개관하기 전에 미리 궤도열차 운행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다른 시·도립미술관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평범한 건물디자인은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서, ‘숲속의 미술관’을 표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배후의 좋은 산림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미술관 기능면에서 볼 때, 민간투자사업 특성상 전시동의 미술관 운영과 부속동의 상업적 활동은 상당한 이미지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가 부속동에서 결혼예식이나 컨벤션 운영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 변경시 부속 사업장 공간확보를 고려했다는 후문이고 보면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게 만들고 있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술관 운영방향은 미술관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소장품 수집정책과도 직결하는 것이다. 즉 ‘지역성’을 살리느냐 ‘세계화’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수집 성격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관은 소장품으로 말한다는 고전처럼 소장품 확보와 관리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외에도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 추진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예산지원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 하겠다.

53) 대구 매일신문, 2007.8.14자.

제4장 제주지역 문화 인프라의 현황과 운영분석

우리 국토 최남단 섬이면서 최고의 관광지로 평가받는 제주지역에는 2006년말 현재 박물관 20개소, 미술관 4개소 등 총24개소가 개관운영 중으로 문화 인프라로서의 문화기반시설이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박물관에는 전시관 3개소, 자료관 2개소, 식물원 3개소가 포함하여 있으며 미술관은 국립 2개소와 사립 2개소로 나뉘어 있다. 또한 문예회관은 현재 1개소 이외에 1개소는 신축 중에 있고, 공공도서관은 사립 1개소와 더불어 21개소이고 문화의 집은 20개소에 이른다.⁵⁴⁾

<표-10> 제주지역 문화기반시설

(명, %, 개소)

행정단위	인구수	재 정 자립도	도 서 관				박물관 · 미술관				문예 회관	문화 의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제 주 (2)	561,695	29.9	21	14	6	1	24	6	17	1	1	20
제 주 시	405,819		10	7	3		10	3	6	1	1	10
서귀포시	155,876		11	7	3	1	14	3	11			10

(2006.12.31기준)

2007년도에는 13개소가 추가등록을 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미술 분야에서는 국립시설인 제주현대미술관 이외에 사립시설인 제주조각공원과 자연사랑미술관, 러브랜드미술관, 도깨비공원, 돌하르방공원 등이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미술전문 갤러리들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속속 개관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다양한 미술문화 향수기회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게다가 아직 등록하지 않거나 설립과정 또는 계획하고 있는 크고 작은 박물관과 전시관은 모두 40~50곳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므로 제주지역은 가히 박물관 천국이라고 부를 만할 것이다.

54) 문화관광부, 『2007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07, p.13.

이에 따라 2005년 6월 사단법인 제주도박물관협의회가 창립하여 각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문화자원의 특성을 널리 보급, 선양을 통해 평생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⁵⁵⁾ 2007년 5월 처음으로 ‘제주박물관 문화엑스포’를 개최했으며, 현재 회원사는 총 30개소로서 공사립 종합박물관은 물론 민속, 자연, 교육, 영화, 정원과 식물, 역사자료, 해외, 인형과 미니어처, 음식, 미술, 사진, 건강, 소리 등 이색적인 테마박물관 또는 테마파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11> 제주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현황⁵⁶⁾

구 분	총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계	37	17	20
국립박물관	1	국립제주박물관	
교육박물관	1	제주대학교박물관	
공립박물관	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돌박물관	감귤박물관
공립미술관	3	제주현대미술관	서귀포시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사립박물관	9	제주민속박물관 평화박물관 나비공원프시케월드	중문민속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 소리섬박물관, 제주민속촌박물관, 신영제주영화박물관, 제주건강과성 박물관
사립미술관	6	금오당미술관 러브랜드미술관 돌하르방공원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 자연사랑미술관 제주조각공원
전시관·자료관	9	세계미니어처전시관 제주공룡원 도깨비공원	이승만자료관, 곰완구전시관 소인국테마파크전시관, 닥종이인형전시관, 석부작테마공원
식 물 원	4	방림원식물원 생각하는정원(분재예술원)	여미지식물원, 일출랜드식물원

(2007. 11월 현재)

55) 제주도박물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maojp.org> 참조.

56) 제주도, 문화예술과 집계자료.

제1절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현황

제주지역의 국공립 문화기반시설로는 박물관 6개소와 미술관 3개소가 있다. 국립으로는 국립제주박물관이 있으며 공립으로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교육박물관, 제주돌박물관, 감귤박물관 등 4개소가 있다. 대학박물관은 제주대학교박물관 1개소가 있고, 미술관은 모두 공립으로 서귀포기당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이 있다.

국공립박물관들 가운데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 예산과 인력, 관람객수에서 가장 활발한 운영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공립미술관에 있어서는 2007년 9월 개관한 제주현대미술관을 제외하면 이중섭미술관이 활발한 편이지만 재정과 인력 모두 매우 열악한 실정에 놓여 있다.

다음은 도내 주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현황을 살펴본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열악한 운영예산과 부족한 전문인력 등이 제주지역 핵심 문화기반시설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1. 공공박물관

가. 국립제주박물관

2001년 6월 15일 개관한 국립제주박물관⁵⁷⁾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21세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섬 제주도 중심부에 위치한 고고·역사박물관으로서, 그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55,579㎡(약 16,813평)에 건물 연면적 9,287㎡(2,809평), 전시실 면적 2,130㎡(644평) 이외에도 29,903㎡(9,046평)의 야외전시조경 위용을 자랑한다. 게다가 552㎡(167평)의 286석 규모 강당과 972㎡(294평)의 수장고를 갖추었으며, 50석 규모의 세미나실과 전문자료 6,000점을 소장한 도서실이 있다.

박물관의 건축적 특징은 정감어린 제주의 초가지붕을 형상화시켜 화강석과 송

57)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jeju.museum.go.kr> 참조.

이벽들로 건물외부를 마감한 것으로서, 이는 섬 전체모양이나 오름과 돌담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제주의 지형적인 특징인 곡선을 둥근 건물지붕과 정원의 굽은 길로 표현하고, 바람 많은 기후적 특징을 담장과 창문에 담아냄으로써 바로 옆에 자리한 사라봉공원과 연계하여 박물관의 공원화를 유도하고 있다.

조직 직제로는 관장 밑에 기획운영과와 학예연구실(1과1실) 체제를 두고 있으며 근무인원은 2006년 5월 기준으로 학예연구관(관장·학예연구실장) 2명, 행정사무관(관리과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9명에 이른다. 시설관리 및 매수표 업무는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 5월 기준으로 15명이 근무하고 있다.⁵⁸⁾

예로부터 제주도는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서 깊은 역사와 독특한 전통문화가 이어져 왔으며, 중국·일본·오키나와·대만을 잇는 동북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한축이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이렇게 형성된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의 전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은 물론 다양한 특별전시회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상설전시는 제주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과 육지부에서 수집해온 역사적 문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추사 김정희와 제주」 「항해와 표류의 역사」 「동양에 온 젊은 선원 하멜의 꿈 350년」 「조선 중기 역사의 진실-이익태 제주목사가 남긴 기록」 「탐라와 유구왕국」 등의 특별전시회를 통해 해양문물교류 역사와 함께 제주에서 꽃피운 정치가와 유배학자들의 예술세계를 담아내고자 힘쓰고 있다.

<표-12> 국립제주박물관 예산현황(세입)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대여료(토지·건물)	6,625	19,717	2,757	2,748	3,715	6,321
기타경상이전수입	161	-	103	1,959	47,347	1,554
입장료수입	13,097	23,361	24,472	22,645	20,967	76,445
기타 수입	-	528	265	521	433	600
관유물매각대	-	-	-	-	99	-
계	19,883	43,606	27,597	27,873	72,561	84,920

(단위 : 천원)

58)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5년사』, 2006, pp.132~133.

<표-13> 국립제주박물관 예산현황(세출)

사 업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문화교육·전시·연구	729	90	211	302	258	339
유물관리·보존처리	30	39	90	188	176	133
시설확충·개보수	873	610	200	-	370	344
기본운영비	323	325	372	416	603	642
인 건 비	500	595	736	841	867	942
계	2,455	1,659	1,609	1,747	2,274	24,00

(단위 : 백만원)

국립제주박물관은 개관 이후 매년 16억원에서 24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운영수입은 연간 1억원을 밑도는 실정이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입장료가 매년 2~7천만원으로 가장 크고 대여료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타 경상이전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관람인원에 있어서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유료관람객 보다는 무료관람객의 수가 대폭 늘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관람객수는 매년 1~2천명으로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표-14> 국립제주박물관 관람객수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유료관람	36,803	65,773	69,438	64,109	57,489
무료관람	81,777	93,890	203,194	214,334	244,624
총 인 원	118,580	159,663	272,632	278,443	302,113

(단위 : 명)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박물관 관람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한국과 제주도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연령별, 수요자별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종류로는 박물관 문화강좌, 교사강좌, 특별전 특별강연, 자원봉사자 강좌, 찾아가는 박물관교실, 박물관 일일체험, 엄마·아빠와 박물관나들이, 청소년 역사캠프, 겨울박물관학교, 또래친구 자원봉사자 교육활동이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새지평을 열어나가기 위해

개관기념일이나 특별전과 연계한 수준 높은 뮤지션·공연단·예술단체 초청 프로그램을 실내외 정원에서 마련하고 있으며, 각종 명절 때는 관람객이 한데 어우르는 전통문화 체험이벤트를 열고 있다. 아이들에게 전시유물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기획한 ‘어린이문화재 그리기대회’는 물론,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토요 야간개관과 연계한 ‘토요 박물관산책’을 매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유익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상설체험코너로서 ‘보고 만드는 체험세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유물은 물론 고구려·백제·신라 관련 문화재를 탁본이나 목판인쇄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1700년대 제주고유의 문화유산인 ‘탐라순력도’를 소재로 한 체험관인 ‘어린이올레’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개관 5년을 맞은 2006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 유물은 총 6,540점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34회에 걸친 기증유물 3,953점을 포함하고 있다. 전시유물로 삼기 위해 제주도내외 소장가들로부터 기탁받아 관리하는 제주관련 유물은 3건으로 602점에 달한다. 지정문화재로는 국가지정 보물(탐라순력도) 1개와 제주도지정 민속자료(제주속오군적부) 1개가 있다.

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84년 5월 24일 문을 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⁵⁹⁾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거친 바다와 싸우면서 살아온 이 고장 선인들의 강인한 개척정신과 특유한 미풍양속인 삼무정신, 조낭정신 등의 제주고유 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시 보존하는 지킴이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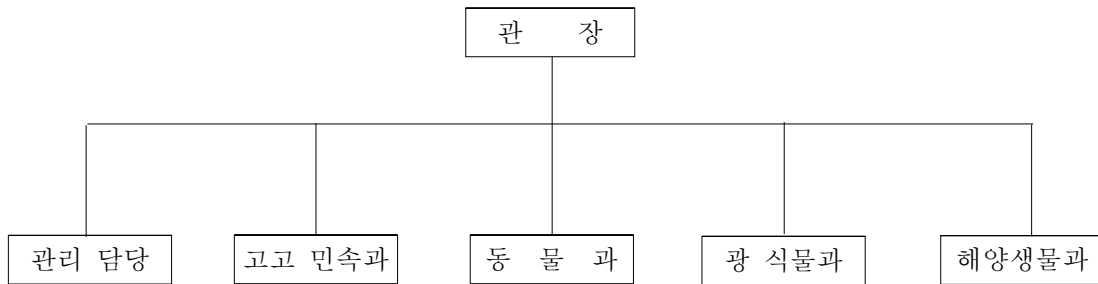
제주시내 한복판 신산공원 31,515㎡(9,533평) 부지에 들어선 박물관 시설규모는 건물 연면적 5,964㎡(1,804평) 가운데 자연사전시실 721㎡(218평), 민속전시실 1,467㎡(444평), 시청각실 225㎡(68평), 수장고 763㎡(231평) 등을 갖추고 있다.

조직 체계는 관장 아래 관리담당 이외에 4개과를 두고 있으며, 2006년도 말 현재 정원은 연구관 4명과 연구사 4명 등의 전문인력 포함해서 총 21명에 이른다.⁶⁰⁾

5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jeju.go.kr> 참조.

6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7년도 현황」, 2007, p.16.

<그림-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기구현황



제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고유한 민속유물과 자연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들을 조사·연구·수집·전시하는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전시구성은 제주인 일생의 통과의례를 비롯해서 의식주와 생산 산업자료들을 입체적으로 전시하는 한편, 섬 형성과정·지질암석·해양식물·동식물 자료들을 생태학적으로 전시함으로써 제주의 자연과 인문 문화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1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예산현황(세입)

과 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입장료수입	507,512	717,700	546,650	601,650
주차료수입	42,254	55,400	55,400	55,400
기타잡수입	64,666	74,000	92,000	178,000
계	615,300	847,100	694,050	835,050

(단위 : 천원)

<표-1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예산현황(세출)

과 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 건 비	856,516	1,349,408	307,461	83,171
경상적 경비	711,617	588,606	506,726	655,449
사업·예비비 등	682,312	246,245	460,863	805,980
계	2,250,455	2,184,259	1,275,050	1,544,600

(단위 : 천원)

근래 들어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예산은 약 23억원에서 15억원 대로 낮아지고 있으며, 운영수입은 연간 6~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입장료가 대부분이나 서화복제품과 문화상품 판매 등 기타잡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관람인원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기에 근 150만명을 돌파한 이래 2000년 이후로는 90만명 내외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제주도내 각종 테마박물관이나 테마파크의 급격한 증가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표-1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객수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유료관람	651,000	604,000	600,000	577,000	660,000
무료관람	187,000	224,000	269,000	260,000	268,000
총 인 원	838,000	828,000	869,000	837,000	928,000

(단위 : 명)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의 자료수집관리에 있어서는 고고 민속, 동물, 광·식물, 해양생물 등 분야별로 총 35,266점이 있으며 이중에서 3,996점을 전시하고 있다. 조사연구 활동으로는 문화재지표조사, 학술조사 등을 하고 있으며 사회교육 활동으로는 박물관 어린이교실 운영, 제주도 자연생태탐사, 문화관광, 향토음식 만들기·제기차기·연날리기·햇밤 구워먹기 등의 설 추석 민속행사, 갈옷 물들이기, 햇차 시음회, 해양생물 체험 터치 풀, 소장자료 국내외 이동전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공공미술관

가. 서귀포시기당미술관

국내 시립미술관의 효시인 서귀포시기당미술관⁶¹⁾은 1987년 7월 1일 개관하였다. 삼매봉 기슭의 13,863㎡(4,194평) 부지에 연면적 960.3㎡(290.5평)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601.3㎡(181.9평) 규모의 2개 전시실과 58㎡(17.5평) 규모 수장고가 있다.

61) 서귀포시기당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gidang.or.kr> 참조.

2006년도 미술관 운영예산은 1억3657만4천원으로서 인건비 4천만원, 작품구입비 4천만원, 작품관리 1410만원, 전시개최 5백만원 이외에 나머지는 시설유지·홍보·공공요금·기타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수입예산으로는 총 215만5천원이며 관람료 136만4천원, 운영수입 79만1천원 등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⁶²⁾

직제는 활동비만 지급하는 명예관장 밑에 전문직 1명을 포함하여 모두 2명이며, 전문직의 경우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소속하고 있다.

전시현황에 있어서는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를 매년 5~10회 개최하고 있는데, 관람인원은 2006년도 기준 8,100명(유료 3,960명 무료 4,140명)으로 매년 1만명 내외가 미술관을 찾아오고 있다.

서귀포출신 재일교포 강구범씨의 기증으로 세워진 기당미술관은 1997년 6월에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하였으며, 2006년말 현재 총 627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장르별로는 한국화 139점, 서양화 270점, 판화 27점, 조각 25점, 공예 2점, 서예 164점 등이다.

나. 이중섭미술관

1997년 7월 ‘대향전시실’을 건립하면서 출발한 이중섭미술관⁶³⁾은 2002년 11월 28일 ‘이중섭전시관’을 개관한 이듬해인 2003년 7월 미술관 등록을 했다가 2004년 9월 15일 제1종 전문미술관으로 재등록하였다. 서귀포 중심가 2,560m²(774.4평) 부지에 연면적 589m²(178.2평) 미술관 건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247.5m²(74.9평) 규모의 2개 전시실과 58m²(17.5평) 수장고를 갖추고 있다.

2006년도 미술관 운영예산은 2억1243만1천원으로서 인건비 9710만4천원, 작품구입비 1천만원, 작품관리 1860만원, 전시개최 2천만원 이외에 나머지는 시설유지·공공요금·기타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수입예산은 총 6950만1천원이며 관람료 3129만원, 운영수입 3821만1천원 가운데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상품 판매비율이 높은 편이다.⁶⁴⁾

62) 국립현대미술관, 『2006 미술관백서』, 2007, PP.253~258.

63) 이중섭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jslee> 참조.

64)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2007, PP.253~258.

참고로, 문화상품 판매비율이 높은 것은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과 ‘이중섭 문화의 거리’ 지정에 기념하여

직제는 활동비만 지급하는 명예관장 아래 자격증 소지 학예연구사 1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며, 학예사의 경우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소속하고 있다.

전시현황으로는 상설전시 이외에도 매년 2~3회 안팎의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고, 관람인원은 2006년도 기준 50,576명(유료 43,651명 무료 6,925명)으로서 매년 5만명 정도가 미술관을 방문하고 있다.

불운한 시대의 천재화가로 일컬어지는 대향 이중섭화백은 1951년 6.25동란시절 서귀포에 거주하며 아름다운 풍광과 넉넉한 인심을 소재로 하여 「서귀포의 환상」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비록 1년이란 짧은 기간동안의 서귀포 체류였지만 그의 예술세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므로, 척박한 생활역경에 굴하지 않은 뜨거운 창작열의와 불멸의 예술성을 후대에 널리 기릴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 모두가 이중섭의 숭고한 예술적 발자취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미술관의 설립취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1997년 자체적으로 이중섭거리 명명과 거주지 복원을 실시한 이래 1999년 문화관광부의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및 ‘이중섭 문화의 거리’ 공식지정을 기념해 그해 9월 처음 마련한 ‘이중섭 세미나’를 해마다 개최해오면서 불우했던 천재예술가의 넋과 예술 혼을 기리고 있다. 또한 ‘이중섭 예술제’는 전국 최초로 화가이름을 거리명칭으로 쓰인 것을 알리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코자 1998년부터 매년 10월말 일주일간 개최하고 있는데, 학생미술 실기대회, 설치미술전, 풍물놀이, 거리무용, 관악연주, 테마행사와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예술행사들이 펼쳐진다.

2006년말 현재 총 138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장르별로 보면 한국화 19점, 서양화 86점, 판화 19점, 공예 1점, 미디어아트 1점, 기타 12점 등이다.

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서부 한경면 저지리에 문화예술인마을을 조성하고 공공미술관까지 문을 열면서 제주지역 문화 인프라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7년 9월 1일 개관

개최하기 시작한 ‘이중섭 예술제’ 등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그간 문화관광부는 1990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고 국민의 귀감이 되는 인물들을 매달 선정해왔다.)

한 제주현대미술관(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은 특별전시실,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세미나실, 자료실, 아트샵 이외에 야외조각공원과 1,200여명이 관람 가능한 야외공연장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가 2005년 12월부터 34억원을 들여 건립한 것으로서 건물 연면적 1,774㎡(536.6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 본관과 지상1층 연면적 167㎡(50.5평) 규모의 분관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250여점의 한국화와 서양화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미술관 본관시설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전시관련 시설면적에 대해 살펴보면, 본관 1층에는 147.58㎡(44.6평) 규모의 기획전시실, 87.48㎡(26.5평) 규모의 세미나실, 43.74㎡(13.2평) 규모 미술도서실, 15.39㎡(4.7평) 크기 자료실, 80.19㎡(24.3평) 규모 수장고 이외에 18.36㎡(5.6평) 크기 작품 해체실이 들어서 있다. 본관 2층에는 309.42㎡(93.6평) 규모의 상설전시실과 60.1㎡(18.2평) 규모의 기획전시실이 있다. 또한 별관 1층에는 187.11㎡(56.6평) 규모의 특별전시실과 15.12㎡(4.6평) 크기의 전시준비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별관 2층에는 103.05㎡(31.2평) 규모의 특별전시실이 갖추어져 있다. 카페 및 아트샵 면적은 85.5㎡(25.9평)이다.⁶⁵⁾

제주 현무암 자연석을 겹겹이 쌓아올려 단순한 듯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의 수려한 건물외관과 함께 제주현대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은 상설전시실 이외의 전시실인 경우는 1~2층을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관람 흐름을 매우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시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점이다.

미술관 직제는 제주도 산하기관인 관광지관리사업소에 속한 제주현대미술관 관리사무소 형태를 띠고 있어서, 미술관 본래기능으로서의 관장 체제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인력의 경우 관리소장 아래 일용직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학예직 등의 전문인력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개관기념전으로는 제주도내외 작가 17명이 참여한 「신화를 삼킨 섬」란 주제의 제주 풍광전과 더불어 문화예술인마을의 입주 작가들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김홍수·박광진 화백의 기증작품 특별전시회는 본관과 분관에 따로 나뉘어져 열리고 있다. 특히 정식 개관에 앞서 2006년도에는 제주국제조각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5명의 외국작가 조각 작품과 4명의 국내조각가 작품들을 야외조각공원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65) 제주현대미술관,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관 신축공사' 도면, 바닥면적표 참조.

제주현대미술관이 위치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의 전체규모는 48필지 99,383㎡ (30,063평)으로서 분양이 모두 끝났다. 전국에서 다양한 전문 분야의 문화예술인들이 속속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제주작가는 8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제2절 사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현황

제주지역 사립 문화기반시설로는 박물관 9개소와 미술관 6개소, 전시관·자료관 6개소, 식물원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한림공원을 포함해 5개소가 있다. 등록연도별에 따른 사립박물관의 경우 제주민속박물관(1992), 중문민속박물관(1992), 신영제주영화박물관(1998), 제주민속촌박물관(2001), 평화박물관(2004), 아프리카박물관(2005), 소리섬박물관(2005), 제주건강과성박물관(2006), 나비공원 프시케월드(2007) 등이 있다.

사립미술관은 금오당미술관(2005),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2006), 자연사랑미술관(2007), 러브랜드미술관(2007), 돌하르방공원(2007), 제주조각공원(2007) 등 6개소이다.

전시관·자료관으로는 이승만자료관(2000), 곰완구전시관(2001), 설록차전시관(2001), 세계미니어처전시관(2006), 소인국테마파크전시관(2007), 제주공룡원전시장(2007), 닥종이인형전시관(2007), 도깨비공원(2007), 석부작테마공원(2007)이 있으며, 식물원은 방림원식물원(2005), 생각하는정원(2006), 여미지식물원(2006), 일출랜드식물원(2007) 등이 있다.

다음은 도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가운데 학술적 의미와 성격이 분명한 제주민속박물관과 아프리카박물관 2개소와 함께, 새로운 지역 미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앞장서온 제주조각공원,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 돌하르방공원, 도깨비공원 등 4곳으로 한정시켜서 운영현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다른 박물관이나 전시관 가운데 규모나 소장자료 면에서 매우 크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미술관련 분야가 아니어서 가급적 현황조사를 삼가 하였기에, 총체적인 제주지역 문화 인프라 현황조사를 밑바탕으로 한 운영실태 분석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략적 분석결과만을 살펴보더라도 사립 문화기반시설들이

다양한 핵심적 문화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는 있으나, 제주도내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보다도 더 한층 열악한 재정운영과 부족한 전문인력 등이 아주 큰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더불어서 근래 들어 속속 문을 열고 있는 사설 갤러리 현황에 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고찰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1. 사립박물관

가. 제주민속박물관

제주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제주민속박물관은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해 있다. 원로 향토 민속학자가 젊은 시절 사재를 털어 1964년 6월 22일 맨 처음 개관한 곳은 지금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자리였다. 현 박물관은 약 3,306㎡(1,000평) 부지에 396㎡(120평) 규모의 2개 전시실을 중심으로 총 3,084점 소장품 가운데 500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등록 자료는 모두 202점이다.

직제는 관장 밑에 일반직원 1명이 있다. 2006년도 기준 관람인원은 15,00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일제 강점 아래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신문화 외래풍조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소멸 직전에 이른 보배로운 제주지역의 문화재들을 발굴 수집해 영구 보존하려는 설립자(진성기)의 학문적 목적에서 출발한 제주민속박물관은 창설 때부터 제주민속연구소를 병설하여 지금까지 제주도내 유·무형 향토 문화재 2만여 편을 수집 정리한 제주민속총서를 꾸준히 발간해 오는 중이다.

1992년에는 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제주무신궁’을 조성하여 제주도 자연마을의 대표적인 당(堂) 신상 143기를 한자리에 재현시켜 놓고 있다.

나. 아프리카박물관

1998년 11월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처음 개관한 아프리카박물관⁶⁶⁾은 2005년

4월 7일 아름다운 제주를 찾아오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류의 시원인 독특한 아프리카문화를 널리 알려주기 위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제주의 문화적 도약을 함께 도모하고자 새롭게 선보인 박물관 외관은 서아프리카 말리공화국의 젬네에 있는 이슬람사원인 ‘젬네 대사원’을 모델 삼아 설계한 것으로서,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가급적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상징적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부지면적 9,000여㎡(약 3,000평) 위에 연면적 3,741㎡(1,132평) 규모의 위용을 자랑하는 이곳은 전시실 529㎡(160평), 수장고 182㎡(55평), 연구실 75㎡(22.7평), 세미나실 79㎡(23.9평), 자료실 49㎡(14.8평) 등 전시 관련시설이 총 914㎡(276.5평)이나 된다. 등록 소장품은 조각, 사진, 서화류에 걸쳐 총 863점이며 대부분 전시 중에 있다.⁶⁷⁾ 미술관 1층 전시실에는 현대작가 작품 상설전시와 기획전시를 하고 있으며, 2층 전시실에는 아프리카 조각과 가면 등을 위주로 한 민속품들을 전시하는 동시에 아프리카 전통가옥과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동영상실을 갖추고 있다.

조직현황은 관장 아래 자격증 소지 학예연구원 1명과 일반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며, 2006년 기준 157,497명에 달하는 관람인원이 이곳을 다녀갔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아프리카 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이곳은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국내외 작가들의 현대작품들을 소개함은 물론, 아프리카 민속공연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친밀한 교류의 마당을 제공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미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기초한 아프리카 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세계문화를 받아들이는 소중한 미적 경험의 장을 적극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 사립미술관

가. 제주조각공원

제주조각공원⁶⁸⁾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북쪽의 완만한 분지에 조성한

66) 아프리카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africamuseum.or.kr> 참조.

67) 문화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07, pp.237~241.

문화예술 공원으로 1987년 10월 2일 개원하였다. 부지는 415,675m²(125,741평)이고 자연과 예술과 인간의 만남을 주제로 하여 국내외 유명작가 109명의 조각품과 미술작품 300점을 야외전시하고 있으며, 특별전시실에는 서울현대조각공모전 입상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동양 최대규모의 제주조각공원은 신비의 섬 제주가 뿜어내는 태고의 자연과 현대 예술과 인간을 하나로 이어줄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에 걸맞게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술문화 진흥과 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수준 높은 문화 교육적 기능을 증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특별전시실이 있는 원형광장을 지나서 돌 성문이 높이 둘러싸인 한 발광장을 통과하면 본격적인 야외조각장이 펼쳐지며, 자그만 연못에 돌팔매질하는 소년 조각상과 여인상 등이 반갑게 맞이한다. 이외에도 사랑의 숲, 꽃자왓길 등 산책로가 여러 갈래 나있고 언덕 위에는 산방산과 형제섬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가 있다. 특히 정문 입구에 자리한 수령 70년의 하귤나무와 어우러진 조각공원의 상징인 삼각수정탑은 바라보는 위치나 날씨에 따라 유리에 비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으로서 현대와 원시를 잘 조형화하고 있다.

추후 예정시설로는 2개의 연구관과 종합공방, 미술관, 야영장, 야외공연장, 작가의 집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나.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

2006년 제주 최초의 사진전문미술관으로 등록한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⁶⁹⁾은 2002년 8월 15일 문을 열었다. 1988년 폐교한 삼달초등학교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학교 운동장은 제주 돌담길이 어우러진 아늑한 정원으로 탈바꿈하였다.

8,651m²(2,617평) 부지 위에 한라산의 옛 이름인 ‘두모악’과 ‘하날오름’ 등 8개 교실을 뜯고 이어붙인 2개 전시실이 610m²(184.5평) 규모로 자리하고 있으며, 총 84m²(25.4평) 수장고 3개와 66m²(20평) 연구실, 22m²(6.7평) 유품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시실 안의 영상실에서는 1999년 발병하여 2001년 진단받은 온몸

68) 제주조각공원 홈페이지 <http://www.jejuarts.com> 참조.

69)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dumoak.co.kr> 참조.

근육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에도 불구하고 사진작가 김영갑씨가 강인한 투혼을 발휘해 척박한 폐허에 아름다운 예술공간을 일궈내는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다. 충남 부여가 고향인 그는 1985년 작품구상차 우연히 왔다가 때 묻지 않은 대자연에 매료하여 제주에 정착,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16회 개인전과 더불어 세권의 사진집과 두권의 영상에세이집을 펴냈다. 불치병인 근위축증으로 7년 가까이 고생하다 2005년 5월 타계하자 뜻있는 지인들이 미술관 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중이다.

미술관 조직체계는 관장 아래 전문 학예사 1명을 포함해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6년도 관람인원은 무료 5천명을 합하여 모두 35,000명이 다녀갔다. 소장품은 조각 25점, 공예 20점, 사진 240점 등 285점에 이르고 있다.⁷⁰⁾

다. 돌하르방공원

돌하르방공원⁷¹⁾은 30대의 젊은 토박이 예술가 5명이 한데 모여 선인들의 삶을 되새기며 새롭게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곳으로 2005년 10월 22일 개원하였다.

제주 동북부 조천읍 북촌리 선사동굴유적 인근 14,876m²(4,500평)에 1999년부터 자료조사와 실측을 통해 제주의 대표적 표상인 돌하르방을 주테마로 조각공원을 조성해 오고 있는데, 공원구성은 현존 돌하르방 48기를 재현해 놓은 전시공간과 돌하르방 기능창작 전시공간, 돌하르방 재해석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하여 체험학습 공간 및 점방이 함께 이뤄져 있다.

돌하르방 재현공간은 도내 외에 흩어져 있는 지방민속자료 2호인 각양각색의 돌하르방 원기 48기를 실물크기로 재현해 놓은 곳인데, 지속적인 연구작업을 통하여 돌하르방의 학술적, 미학적 가치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돌하르방 기능창작공간은 주술·종교적 기능, 방사와 수호신적 기능, 위치 표식 및 금표적 기능에 대하여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 5기를 전시하고 있다. 돌하르방 재해석공간은 만남과 포옹, 평화전도사, 사랑의 표현과 기원, 돌하르방 음악대, 정주석과 돌하르방, 남하르방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107기의 창작 작품이 들어서 있다.

70)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p.339.

71) 돌하르방공원 홈페이지 <http://www.dolharbangpark.com> 참조.

또한 수장고와 체험학습장은 각각 83m²(25평) 규모로 갖추어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미술 체험학습으로는 돌하르방을 보고 듣고 만지며 관찰하여 목판·석판·고무판을 이용한 판화 찍기, 흙으로 돌하르방 토우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목과 야생초가 자라는 숲길, 제주형 탑·청풍대·용천수·원두막이 있는 제주형 정원이 관람객들에게 아늑한 휴식처를 제공해준다.

라. 도깨비공원

전통적인 도깨비 관념에서 벗어나 디자인적이고 동화적 개념의 도깨비를 모티브로 만든 종합디자인 테마파크인 도깨비공원⁷²⁾은 도내 대학교수와 학생 9명이 1998년부터 7년간 공들인 끝에 2005년 5월 14일 개관한 곳이다.

제주시 동남부 중산간 동부관광도로변 27,037m²(8,179평)의 터에 우리나라 전래 동요와 민담에 나오는 도깨비를 활용하여 전문디자이너들이 직접 만든 2,300여개 도깨비를 체험하고 나면, 기발한 상상력으로 나만의 도깨비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뒤이어 기다리고 있다. 공원구성은 크게 17,392.5m²(5,261평)에 이르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야외전시장과 596.5m²(180평) 규모의 8개 실내 전시관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같은 도깨비공원을 조성한 동기는 제주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캐릭터 디자인과 무대세트 제작 경험을 살려 제주민속설화에 나오는 도깨비 등을 소재로 관광공원을 겸한 동화적 개념의 이색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설계함으로써 새로운 문화향유는 물론 야간관광 활성화를 도모해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각종 스티로폼과 철사로 엮어진 판넬에 시멘트를 뿌린 뒤 색을 입히는 방식이나 돌과 나무, 폐품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기묘한 도깨비 조형물들은 전래동화에 나오듯 언제나 민중의 편에서 억살과 해학으로 못된 부자를 응징하는 구실을 맡는 모습으로 생동감 있게 되살아나고 있다.

주요 건축물로는 도깨비 숲 전시관 148.1m²(45평), 깨꼬 영상관 70m²(21평), 가면 만들기 체험관 86.4m²(26평), 작업실 및 준비실 210.3m²(63평), 도깨비 공부방 외 8개동 81.6m²(25평) 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도깨비 소재의 애니메이션

72) 도깨비공원 <http://www.dokkebipark.com> 참조.

영상물 30여편도 직접 제작했다. 야간에는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표현과 함께 조명기기의 조도와 조형, 소리가 어우러지는 퍼포먼스도 선보이고 있다.

이렇듯 도깨비공원의 조형물들은 관람객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이 가능한 타는 것, 들어가는 것, 만져보는 것, 돌려보는 것 등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닌 도깨비라는 주제가 있는 한국의 문화적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적, 학습적 흥미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디자인 측면까지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나갈 수 있는 흥미로운 야외 미술관이라 할 수 있다. 공원 전시물의 경우 야외 조형물이 1,800여점이며 실내 조형물은 500여점이나 이른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깨비를 소재로 한 제주를 대표하는 ‘영감놀이’ 등 민속공연을 유치하고 어린이와 중고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주최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크게 넓혀 나갈 계획이다.

3. 사설 갤러리

산업경제기반이 매우 열악했던 제주지역에서 전문성을 띤 갤러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이뤄진 80년대 이후의 일이다. 70년대까지 관덕정과 다방을 중심으로 열리던 지역작가들의 전시회는 학생회관 전시 시절을 거쳐 1980년 제주전시공간과 남양미술회관이 개관하면서 본격적인 전시장 시대를 맞았다.

그 이후 한솔화랑, 상미전시공간, 동인미술관, 세종미술관이 차례로 문을 열었는데, 본격적인 미술관 시대가 꽃피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조각공원 신천지미술관과 제주조각공원이 개관하면서부터이다.⁷³⁾ 게다가 이듬해인 1988년 8월 공공문화기반시설인 제주도문예회관⁷⁴⁾이 마침내 개관을 함으로써 대규모 전시회가 가능해졌다. 892석 대극장 및 200석 소극장과 함께 문을 연 문예회관 전시실은 높이 3미터, 벽면길이 173m(칸막이 43.9m 양면포함), 면적 519㎡(157평) 규모 하나였으나, 늘어나는 전시회를 수용하기 위해 높이 3.7m, 벽면길이 74.4m(칸막이 5.4m × 2면) 면적 230.4㎡(70평) 규모의 제2전시실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대형 미술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미술, 서예, 사진 등

73)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제주미협 40년사』, 1999, pp.283~284.

74) 제주도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jejuculture.or.kr/jslee> 참조.

모든 장르의 전시회를 수용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고즈갤러리, 갤러리 제주아트, 한솔갤러리 등이 본격적인 전 문화랑으로서 미술인들과 일반애호가 사이의 가교역할을 선도해 왔으나 모두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서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많은 제약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11월 현재 제주지역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는 갤러리 모양, 갤러리 찰나, 아트스페이스 씨, 호 갤러리, 현인갤러리 등의 전문갤러리와 함께 전시대여 공간으로서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제주신산갤러리, 제주 문화예술재단 문화공간, 제주문화포럼의 문화공간 제주아트, 김정문화회관 전시실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갤러리찰나와 김정문화회관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와 신시가지에 각각 위치해 산남지역의 미술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 있다.

<표-18> 제주지역 전문 갤러리 및 대여 전시실 현황

갤러리명	면 적	전시공간명	면 적
갤러리 모양	264.5㎡(80평)	제주신산갤러리	272㎡(82.3평)
갤러리 찰나	231.4㎡(70평)	제주문화예술재단	260.4㎡(78평)
아트스페이스 씨	165.3㎡(50평)	제주문화포럼	165.3㎡(50평)
현인 갤러리	132.2㎡(40평)	김정문화회관	132.2㎡(40평)
호 갤러리	82.6㎡(25평)		

제5장 제주의립미술관 건립안 분석

제주미술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제주의립미술관⁷⁵⁾ 건립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시기는 2000년 4월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면서부터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와 탐라미술인협회, 서울의 한라미술인협회가 주축을 이루어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지 2년이 지난 2002년에 접어들어 제주도가 미술관 건립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미술관 건립규모와 부지선정에 있어 도당국과 지역미술인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난항을 겪어오던 가운데, 제주도가 2004년 2월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의뢰한 「제주의립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학술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또 다시 미술관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⁷⁶⁾ 이듬해인 2005년 4월 대구시립미술관에 이어 정부에 의해 BTL건립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5년 6월에는 장리석화백과 미술작품 기증협약이 있었고, 9월에는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해 민간 건립추진위에서 수용 결정하였다. 같은 해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과 함께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도의회 동의와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 2006년 5월 사업시행자를 공모 선정하였다.

제주도는 2006년 4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기술 및 가격평가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주)갤러리아제주 컨소시엄과 미술관 건립에 따른 세무협의를 통해 2006년 7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06년 11월 안에는 미술관 신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을 세웠다.⁷⁷⁾ 한화건설이 대표회사인 (주)갤러리아제주는 중소기업은행, 대한생명보험, 농협중앙회, 동양생명보험, 신천개발 등 6개 도외업체와 유성건설, 태웅종합건설 등 2개 도내업체가 공동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실시협약 체결이 2007년 3월에야 뒤늦게 이뤄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미술관 신축공사 기공식은 1년이나 더 늦춰지고 말았다.

75) 2006.7.1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하면서 행정구역상 ‘제주도(濟州道)’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로 변경했기에, ‘제주의립미술관’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으로 고쳐 써야 타당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일반관례에 따라 그대로 쓰고자 한다.

76)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의립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2004.

77) 연합뉴스, 2006.5.25자.

제1절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운영계획

1. 건립방법(BTL사업)과 건축규모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미술관 신축예산의 확보문제였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국제 위상에 걸맞는 대표적 공공문화 인프라인 대규모 미술관 건립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열악한 재정자립도는 선뜻 앞장서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제4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지방정부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은 경기도의 경우 자체예산만으로 총 550억 규모의 경기도미술관과 백남준미술관을 동시에 건립하고 있는 점을 이를 잘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행정당국의 현실인식은 건립방법이나 건축규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민자유치사업(BTL) 방식의 수용이며 다른 하나는 미술관 신축규모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이다.

BTL 민자사업방식은 2005년도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민자사업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그동안 추진해온 민자유치사업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하고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한 후 민간사업자는 그 시설을 운영(Operate)하면서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인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 주로 수익성 있는 경제적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반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민간사업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설정받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는, 즉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약정기간동안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⁷⁸⁾

양자의 차이로는 대부분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에서 제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하여 추진하지만,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거꾸로 정부나 지방

78) 기획예산처·한국개발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6, pp.2~3.

자치단체가 제안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설계(Design)와 자금조달(Finance) 뿐만 아니라 시설의 건설과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기 위해 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는 시설 투자비에 대하여 10~30년 계약기간 동안 5년 만기 국채금리에 장기투자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정해지며, 시설 운영비는 서비스 실적과 연계하여 운영수익이 약정수준에 못 미치게 되면 정부지급금이 차감되는 벌칙조항(Penalty system)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부대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만큼 시설 임대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총 사업비 181억5800만원을 투자하는 제주도립미술관의 경우는 20년 계약기간 동안 매년 23억4155만원씩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지급액의 30%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충당한다.

이러한 전혀 새로운 방식의 건립 추진과정을 거치면서 미술관 건축규모가 제주도의 최종 계획안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보고서 사이에 매우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은 <표-19> 및 <표-20>에서와 같이 확연히 알 수 있다.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립미술관의 전시공간은 미술관 전시기획 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여 300평 규모의 전시실 2개, 150평 규모의 전시실 2개, 100평 규모의 전시실 1개, 중앙 리셉션 홀 150평을 포함해 총 면적이 1,150평(연면적 대비 38.3%)에 이른다. 또한 수장공간 350평(연면적 대비 11.7%) 이외 세미나실 · 다목적 강당 · 연구실 등의 교육시설을 포함한 사무공간은 총 782평(연면적 대비 26.1%)이며, 기계실 등의 공용시설 580평과 뮤지엄샵 등 편의영역 138평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공간은 총 718평(연면적 대비 23.9%)으로서 전체 건물 연면적 3,000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⁷⁹⁾ 이는 우리나라 공공미술관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연면적 대비 전시공간을 기준으로 삼아 나온 결과였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도립미술관의 시설별 면적개요를 살펴보면, 건물 연면적이 3,000평에서 2,000평으로 3분의 1이나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고유 기능인 전시 관람과 수장 작업, 교육 자료부문에는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서의 면적

79) 제주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 p.202.

비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만, 연구 조사부문에 있어서는 그 비율을 대폭 삭감시켜버림으로써 벌써부터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미술관 영역에서 연구 조사는 마치 사람의 두뇌와 같은 구실을 하는 중추적인 시설일 뿐 아니라 미술관의 운영 성격과 미래 비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뉴미디어 아트나 설치미술 같은 초대형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1,334㎡(403.54평)의 기획전시실을 1층에 배치하고, 그 절반 면적은 2층까지 천정고를 높임으로써 다른 전시실의 3.6m 높이 보다 두배 이상인 8m를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개관한 경기도미술관의 천정고가 7m임을 감안할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 본격적으로 건립공사에 들어간 제주도립미술관의 구체적인 시설별 면적개요는 <표-21>과 같다.

이밖에 미술관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부지확보 비용절감과 용도전환 용이성 등의 이유로 인해 다른 후보지를 선택해버림으로써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했는데, 이는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의 평가결과에 없는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당시의 후보지는 처음 7개소를 추천받아 압축한 제주시 오라동 일원(시민복지타운 인근)과 봉개동 일원(어린이교통공원 내), 교례리 일원(돌박물관부지 내) 등 3개소 가운데 부지면적이나 접근성, 주변환경, 파급효과, 장소 호응도 등에서 최고 높은 평가를 받은 오라동 일원의 부지⁸⁰⁾를 백지화시키고 다른 장소를 선정하든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도립미술관 건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왔던 뜻있는 도내미술인들에게 큰 반발심을 불러 일으켜 그 참여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만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도지사가 위촉하여 건물 설계안 확정에 참여해온 건립자문위원회의 미술인들조차도 푸념 섞인 체념상태에 있음을 비추어볼 때,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과 충실한 반영노력이 그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이제부터라도 지방정부 당국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술인들 또한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만큼 비록 실질적인 권한이 없을지라도 자문위원회는 물론 앞으로 있을 개관추진위원회나 작품수집심의위원회 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언함으로써, 조만간 완공되는 제주도립미술관이 명실공히 국내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와 제안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80) 제주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 p.177.

<표-19> 제주도립미술관 도입시설 규모산정⁸¹⁾

영역 구분	공간비율	공 간 구 분	소요면적	소 계
전시 · 관람	38.3%	상설전시	300평	1,150평
		기획전시	600평	
		시민갤러리	100평	
		중앙 및 리셉션 홀	150평	
수장 · 작업	11.7%	일반수장고	150평	350평
		특별수장고	100평	
		수장전시실	50평	
		각종 부속시설 및 창고	50평	
교육 · 자료	7.7%	다목적 강당	100평	230평
		실기 및 교육실	40평	
		자료열람실	43평	
		영상자료실	36평	
		각종 부속 및 지원시설	11평	
연구 · 조사	6%	학예실장실	10평	180평
		학예연구실	60평	
		전산센터	20평	
		보존과학실	30평	
		각종 연구 및 지원시설	60평	
사무 · 관리	12.4%	관장실 및 실장실	35평	372평
		사무실	57평	
		사무관련시설	26평	
		보안 및 유지시설	15평	
		설비시설(기계정비)	250평	
편의 영역	4.6%	편의공간	20평	138평
		식당매점	50평	
		뮤지엄샵	40평	
		각종 지원시설	28평	
공용 · 공공	19.3%	각층 홀,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580평	580평
연 면 적				3,000평

81) 제주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 p.202.

<표-20> 제주도의 BTL방식 타당성·적격성 조사연구 의뢰시 면적배분⁸²⁾

영역 구분	공간비율	공 간 구 분	소요면적	소 계
전시 · 관람	38.3%	상설전시	200평	767평
		기획전시	400평	
		시민갤러리	67평	
		중앙 및 리셉션 홀	100평	
수장 · 작업	11.7%	일반수장고	100평	233평
		특별수장고	67평	
		수장전시실	33평	
		각종 부속시설 및 창고	33평	
교육 · 자료	7.7%	다목적 강당	66평	153평
		실기 및 교육실	27평	
		자료열람실	29평	
		영상자료실	24평	
		각종 부속 및 지원시설	7평	
연구 · 조사	6%	학예실장실	7평	120평
		학예연구실	40평	
		전산센터	13평	
		보존과학실	20평	
		각종 연구 및 지원시설	40평	
사무 · 관리	12.4%	관장실 및 실장실	20평	248평
		사무실	34평	
		사무관련시설	17평	
		보안 및 유지시설	10평	
		설비시설(기계정비)	167평	
편의 영역	4.6%	편의공간	13평	92평
		식당매점	33평	
		뮤지엄샵	27평	
		각종 지원시설	19평	
공용 · 공공	19.3%	각층 홀,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387평	387평
연 면 적				2,000평

82) 제주도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제주도립미술관 BTL방식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적격성조사 연구』, 2005, p.6.

<표-21> 제주도립미술관 시설별 면적개요⁸³⁾

영역구분	공간비율	공 간 구 분	소요 면적	소 계
전시·관람	38.7%	상설전시	629㎡(190.3평)	2,743㎡ (829.8평)
		기획전시	1,334㎡(403.5평)	
		시민갤러리	115㎡(34.8평)	
		장리석기념관	215㎡(65평)	
		중앙 및 리셉션 홀	450㎡(136.2평)	
수장·작업	12%	일반수장고	340㎡(102.9평)	846㎡ (255.9평)
		특별수장고	217㎡(65.6평)	
		수장전시실		
		부속시설 및 창고	289㎡(87.4평)	
교육·자료	7.6%	다목적 강당 (182석)	327㎡(98.9평)	539㎡ (163평)
		실기 및 교육실	94㎡(28.5평)	
		자료열람실	55㎡(16.6평)	
		영상자료실	63㎡(19평)	
		각종 부속 및 지원시설		
연구·조사	2.6%	학예실장실		184㎡ (55.7평)
		학예연구실	86㎡(26평)	
		전산센터		
		보존과학실	98㎡(29.7평)	
		각종 연구 및 지원시설		
사무·관리	12.9%	관장실	36㎡(10.9평)	912㎡ (275.9평)
		사무실	85㎡(25.7평)	
		사무관련시설	79㎡(23.9평)	
		보안 및 유지시설	83㎡(25.1평)	
		설비시설(기계정비)	629㎡(190.3평)	
편의영역	4.8%	편의공간	68㎡(20.5평)	338㎡ (102.2평)
		식당매점	113㎡(34.2평)	
		뮤지엄샵	87㎡(26.3평)	
		각종 지원시설	70㎡(21.2평)	
공용·공공	21.4%	각층 홀,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1,525.09㎡ (461.3평)	1,525.09㎡ (461.3평)
연 면 적 합 계				7,087.09㎡ (2,143.8평)

83) 제주도 문화예술과, 2007년 11월 17일자 착공식 현황자료.

특히 무엇보다도 제주의립미술관 건립에 있어 가장 우려할만한 점은 너무 짧은 신축공사기간이다. 지난 2006년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안내 때의 내용만 보더라도 1년 8개월의 건축공정기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착공하면서는 1년여로 그 공기를 대폭 단축시키고만 것이다. 미술관은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니라 영구보존할 예술작품들을 전시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시설이므로,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건물을 짓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멘트 독성제거 및 구조상 제반 문제점을 보완시킨 다음에 비로소 개관하는 것은 한결같이 이러한 까닭에서 비롯한다.

<표-22> 제주의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추진일정⁸⁴⁾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w 제주의립미술관 건립기본계획 학술용역	→ 2004년 2월
w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 2005년 11월
w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2005년 12월
w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결과 통보	→ 2006년 3월
w 2단계 사업계획서(기술 및 가격평가자료) 제출	→ 2006년 4월
w 2단계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2006년 5월
w 실시협약 체결	→ 2006년 8월
w 실시설계 및 계획승인	→ 2006년 10월
w 착 공	→ 2006년 11월
w 준 공	→ 2008년 6월
w 운영 및 협약종료	→ 2028년 12월

게다가 제주도에서 미술관 건립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여성문화의 전당(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⁸⁵⁾ BTL사업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12일 착공해 2009년 10월에 개관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 미술관 건립 BTL 실시협약 체결이 늦어지는 바람에 착공일이 2007년 11월 17일로 1년이나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완공시기를 예정대로 강행하는

84) 제주도, 「제주의립미술관건립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입찰안내서」, 2006, p.1.

85) 제주도,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민간투자시설사업(BTL시설사업) 사업개요, 여성정책과 홈페이지 자료 참조.

것은 건축 공학적으로도 큰 무리이며 전문인력 확보, 소장작품 구입, 전시기획 등의 개관준비 또한 그 만큼 짧아지므로 졸속진행을 막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미술관이 2006년 10월 개관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사이 벽과 바닥에 금이 가고 천정에서 비가 썰 뿐 아니라, 소장미술품 구입비리 적발 등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사실을 지방정부 당국자는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⁸⁶⁾

따라서 제대로된 개관준비를 꾸려 나가려면 미술관 준공 및 개관시기를 얼마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한 예방대책을 미리 세워두는 일을 결코 소홀히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2. 전문인력 및 운영재정

신생 제주도립미술관이 설립취지와 기대효과를 충분히 살려내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전문인력 수급과 더불어 안정적인 운영재정 확보는 매우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공공미술관 가운데 아직도 일부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학예직)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미술관 운영을 활성화시켜나가려면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2006년말 기준으로 미술관별 근무인원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립미술관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시립미술관 45명, 광주시립미술관 34명, 대전시립미술관 31명, 경기도미술관 26명, 전북도립미술관 18명, 경남도립미술관 1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⁸⁷⁾

그리고 경남도립미술관이나 대전시립미술관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학예직이 단 한명도 없는데 비하여, 전북도립미술관은 가장 열악한 인력을 지닌 미술관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소지 학예직 인원이 2명인 것은 지방정부의 지원의지 여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특히 경남도립미술관은 자격증 미소지 학예직이 5명에 이르고 전문직의 경우 한명 없는 것은 미술관 설립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든다고 할 것이다.

86) 경기방송, 뉴스 보도자료, 2007.9.29자. 뉴시스, 2007.7.18자, 2007.7.26자, 2007.9.17자 기사 참조.

87)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pp.252~253.

<표-23> 주요 공공미술관 인력현황

미 술 관 명	학 예 사 (자격증 소지)	학 예 사 (자격증 미소지)	학예사 외 전문직	기타직원	합 계
경기도미술관	4		2	20	26
경남도립미술관		5		12	17
광주시립미술관	7		2	25	34
대전시립미술관		11		20	31
부산시립미술관	5	2	1	37	45
서울시립미술관	7	4	11	45	67
전북도립미술관	2	2	10	4	18

(단위 : 명)

2004년도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제주도립미술관이 구태의연한 관리행정 조직을 탈피하고 전문성과 창의력을 우선시하는 미술관 고유기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림-3>과 같이 관장 아래 1실(학예연구실), 2부(기획개발부·관리운영부), 9팀제 조직을 구성하고 정원 40명으로 하되, 전시기획자와 학예연구직 비율은 현 국립현대미술관처럼 전체 정원의 25%를 적용시켜 12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⁸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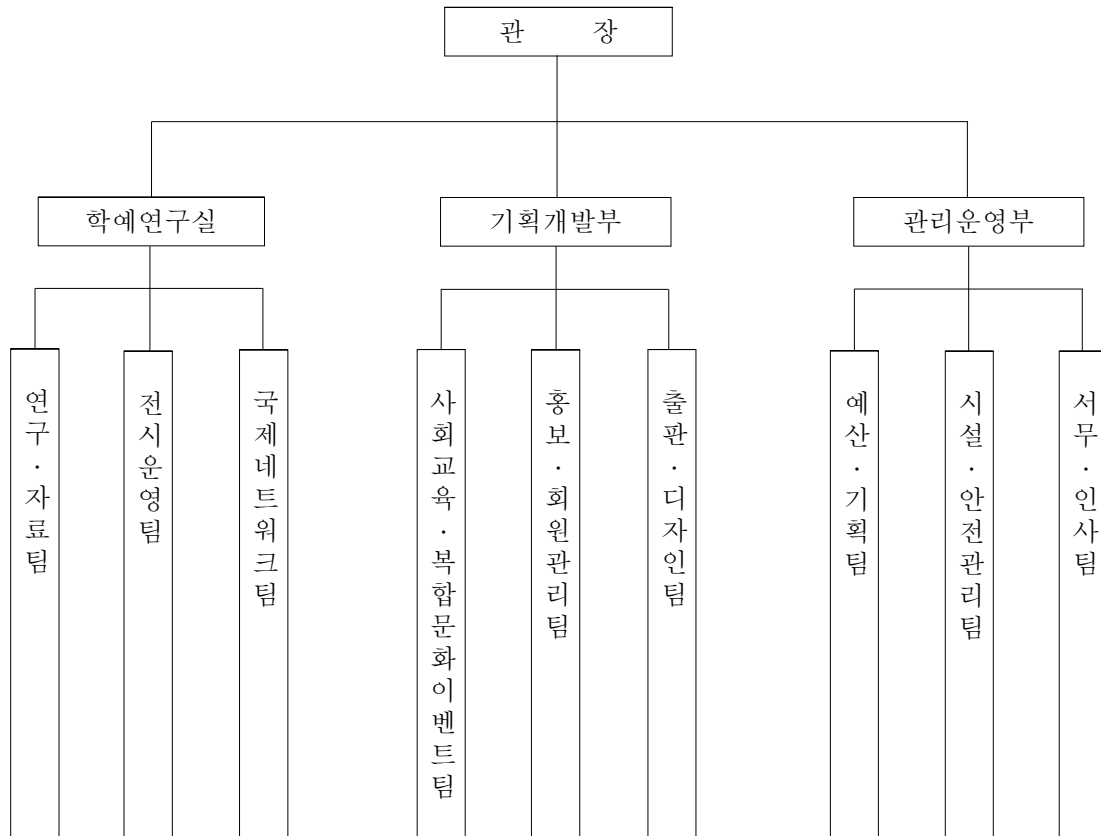
하지만 이는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으로서 <표-23>에서처럼 주요 공공미술관들이 처한 현실과 미술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적어도 30명 내외의 정원에 학예직을 포함한 전문인력은 최소한 7~8명 정도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또한 연구보고서에는 제주도립미술관 직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관장의 경우는 미술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에 3년 이상 미술관 혹은 관련기관 ‘경영’ 경험자여야 한다. 전시기획과 교육프로그램 기획, 학예연구직 부문도 미술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력에 3년 이상 미술관 혹은 관련기관 경력 경험자로서 중국어, 일어, 영어 중 1개 언어가 가능해야 한다. 복합문화이벤트 기획부문은 문화연구, 예술학 석사 이상의 학력 혹은 미술관련 석사 이상 학력에 3년 이상 미술관 혹은 관련기관 경력 경험자로 3개 외국어 가운데 1개 언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와 작품 관리를 하는 레지스트라(registrar)는

88)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 p.110.

미술관련 학사이상의 학력에 2년 이상 미술관 혹은 관련기관 경력 경험자여야 하며, 디자이너와 사무직은 관련분야 학사이상의 학력에 2년 이상 유경험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⁸⁹⁾

<그림-3> 제주도립미술관 조직(안)



다음으로, 안정적인 운영재정 확보는 전문인력 못지 않게 미술관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다. 10여년 우여곡절 끝에 2006년 6월 개관한 서울대미술관(SNU MOA, Museum of Art)은 미술관 자체가 하나의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서 “미술관은 전시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전시와 교육 그리고 건축미가 똑같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의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어 건축학도들의 필수적인 방문코스일 정도로

89)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 p.109.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점 휴업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미술관장의 가슴 아픈 인터뷰 기사⁹⁰⁾는 가장 핵심적 문화 인프라 시설인 미술관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 국립대학 당국의 낮은 인식도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국내 공공미술관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앞서 제3장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지역별 주요 공공미술관의 운영예산은 100억원을 훨씬 넘는 서울시립미술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30억원 수준으로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대부분 관람료와 대관료에 의존하는 운영수입은 전체 예산의 5% 달성하기도 힘들 뿐더러 장기적인 기금조성이나 기부금, 후원금은 아예 전무한 실정이다.

2004년도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서와 같이 제주도립미술관은 자립운영을 목표로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등의 사업비 10억원 포함하여 인건비 10억원, 작품구입 및 유지보수 3억원, 경상경비 10억원 등 연간 33억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¹⁾ 1년 운영예산은 최소 25억원 내외가 소요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미술관건립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투자비로 매년 지급해야 하는 23억4155만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16억3908만원 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로서, 행정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여부에 따라 제주도립미술관의 운영방향이 크게 좌우 받는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비슷한 재정규모의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오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예산지원에 있어서 그저 물먹는 하마와 같은 애물단지로 여기기보다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무한한 창작 가능성에 대한 장기투자로서의 인식 전환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제주도립미술관의 경우에도 최대한 효율적인 기업적 경영마인드에 입각하여 도민은 물론 연간 5백만명 넘게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다양한 전시·홍보·교육·이벤트·서비스·체험 프로그램 및 아트상품 개발을 통해 미술관 마케팅 전략에 최선을 다해나가는 모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90) 서울신문, 2006.8.3자. 연면적 4,486.47㎡(1,357.2평) 규모의 서울대미술관은 삼성문화재단이 200억원을 들여 지어준 것으로서, 대학측이 지원하는 운영예산은 연간 4억여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전시회를 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연간 추정예산 10~20억원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란 형편이다.

(미술관 건물관련 사항은 서울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snumoa.org>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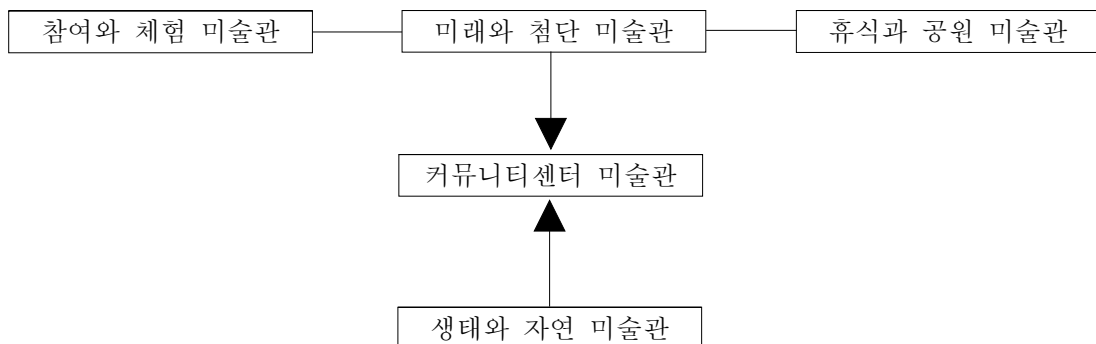
91)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 p.125.

3. 전시 · 수집 · 연구 ·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제주지역의 핵심 문화인프라로서 신생 제주도립미술관이 최대한 빨리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 미술인이나 아마추어 동호인, 학생과 어린이는 물론 관광지 특성상 이용희망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해나갈 각종 미술관 프로그램의 콘텐츠(contents)를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매뉴얼 작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본계획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립미술관의 건립 개념을 참여와 체험, 미래와 첨단, 휴식과 공원, 커뮤니티센터로서의 미술관으로 정립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 아닐 수 없다.⁹²⁾ 다만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국내 최초로 등재한 만큼⁹³⁾ 생태와 자연 개념의 표방이 추가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림-4> 제주도립미술관의 건립계획 개념



미술관이 박물관의 꽃이라면 전시는 미술관의 꽃봉오리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전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술관의 정체성과 바로 직결하는 핵심요소일 뿐 아니라, 도내외 차원을 뛰어넘어 국내외 관람객들을 강력히

92) 제주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앞의 책, p.190.

93) 중앙일보, 2007.7.10자. 2007년 6월 27일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기구)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시켰다. 유네스코는 1972년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문화적·자연적 유산을 세계유산(World heritage)으로 인정하는 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자연유산 166곳을 등재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창덕궁, 수원화성,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 경주 역사유적지구 등 7건의 문화유산만이 올라 있다.

끌어들이는 기폭제 역할을 해줌으로써, 미술관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일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상설전시 보다는 참신한 기획전시 위주의 전시방안을 다양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심도있는 연구와 섭외, 후원, 홍보 마케팅 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단순한 인구비율로 볼 때 제주도는 그 동안 많은 혜택을 입어왔다. 물론 면적상으로는 제주도(1,825km²)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605km²)보다 훨씬 크고 인구 470만의 싱가포르(704km²)에 비하여도 약 3배에 이른다. 그러나 거주 인구수는 2007년 10월말 기준으로 56만명에 불과해 16개 광역시도에서 두 번째 적은 110만의 울산은 물론 기초지방자치 행정단위인 63만명의 전주시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⁹⁴⁾

이는 지역별로 활동하는 미술인 숫자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90년대 이후에 소재대학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미술 관련 학과 및 학생수 또한 크게 불어나 작가배출 토양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현재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회원수가 한국화(30)·서양화(80)·조각(25)·판화(6)·디자인(11)·공예(22)·서예(39)·문인화(12)·평론(2) 등 9개 분과에 총 227명이고 보면⁹⁵⁾ 제주지역 미술문화를 활발하게 꽃피울 수 있는 인적 환경은 아직도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한국미술협회 서귀포지부와 탐라미술인협회,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출신 작가들 모임인 한라미술인협회까지 다 합쳐도 4~5백명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미협 도지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또한 회화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예와 사진 관련 타 단체를 모두 합해도 1천명 정도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런 까닭에 제주도립미술관 전시의 경우, 지역 미술인을 포함하여 주제 중심적인 기획전시야말로 제주도립미술관의 성격과 위상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란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는 물론 작품수집에 있어서도 도내작가 중심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참신하고 역량있는 작가들의 작업과 전시를 통한, 즉 기획전시하는 작품들을 위주로

94) 2007 인구현황 통계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주요 지역별 인구는 부산 360만, 인천 270만, 대구 250만, 대전 150만, 광주 140만, 강원과 충북 각 150만, 충남 200만, 전북과 전남 각 190만, 경북 270만, 경남 32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참조)

95)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홈페이지 <http://www.kfaa-jeju.org> 참조.

한 소장품 정책은 필수적이며, 학문적 연구와 미술관 교육 또한 이러한 방향에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야만 한다.

물론 제주도립미술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1종 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점 이상 소장자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소장품 수집정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주도 산하기관인 제주도문화진흥원이 현재 317점을 소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주도립미술관으로 이관시킨다면, 이미 확보한 장리석화백⁹⁶⁾의 기증작품 112점과 더불어 충분한 상태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오히려 다양한 작품수집 보다는 온 역량을 획기적인 개관기념 기획전시를 마련하는데 집중시키고, 여기에 출품한 새로운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장품 수집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표-24> 제주도문화진흥원 소장작품 현황⁹⁷⁾

구 분		회화	사진	조각	서예	공예	디자인	판화	서각	건축	시화
합 계	구입	11	10	3	4				1		
	기증	88	54	23	53	15	14	22	2	10	7
317 (구입 29)		99	64	26	57	15	14	22	3	10	7

(단위 : 점)

21세기 박물관·미술관의 새 패러다임은 단순한 전시위주에서 벗어나 전시 관련 심포지엄과 세미나 개최 등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직접적인 미적 체험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평생학습센터이자 이성적 교육(education)과 감성적 쾌락(entertainment)의 조화에 기초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의 터전으로서 매우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96) 1916년 평양출생인 그는 일본에서 미술학교를 졸업한 이후 국전 추천작가초대작가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원로작가로서, 6.25전쟁 당시 제주에 피난 와서 4년동안 생활한 연유로 제주소재 작품들을 그려왔다.

97) 제주도문화진흥원, 2007년 10월말 현재 자료. 개관기념 전시작품 및 개관기념사진 등 구입작품은 모두 29점이며, 1989년~2006년도 제주도미술대전 대상작품 127점(한국화12·서양화15·조각15·사진18·서예18·판화14·건축10·공예12·디자인13)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에 제주의립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또한 기존의 계몽주의적인 교육흐름을 단순하게 따라하지 말고, 보다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부단히 연구하여 이를 기초로 적극 실천해나가야 한다.

제4장에서 이미 분석해본 바와 같이 이미 제주는 박물관 천국일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체험형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과는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과 중복하지 않는 선에서 심도있는 과제별 학술교육이나 기획전시 관련 심포지엄 및 세미나, 우수학생 실기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그들의 잠재된 미의식을 최대한 고취시켜냄으로써, 보배로운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제주만이 아니라 무한한 미래의 미적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아시아미술의 새로운 메카로서 한껏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제주의가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명소인 만큼 국내외 관람자들을 위한 고유한 제주문화 및 향토예술, 천혜의 자연환경 특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각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관광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미술관 교육과 직접 연계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전래동화·전설·민요 찾아 창작하기 프로그램, 자연생태탐사 프로그램, 병든 지구환경 살리기 프로그램, 신 개념의 미래 지구인으로 살아가기 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미술관은 최고의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예술을 매개로 한 문학과 음악, 연극, 무용,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등은 물론 레포츠 산업과의 새로운 연계를 통하여 문화관광메카로서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

4. 중장기 미술관 발전전략

세계자연유산인 아름다운 한라산이 한 폭의 배경음악처럼 은은하게 펼쳐져 있는 제주의립미술관의 미래는 분명 희망적이다. 지금은 비록 울창한 숲과 가냘픈 역사의 손짓만이 전원합창곡을 연주하며 하얀 물결같이 스쳐가는 허허벌판이지만, 조만간 그곳에는 제주인의 미의식을 정립하고 미래예술을 창조해내는 미술문화의 핵심 공

장(factory)으로서 연기 없는 굴뚝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작품들이 쏟아져 나와 세계 구석구석을 누벼야 하고, 꼭 한번 찾아오고 싶은 그런 미술관으로서 한라산과 백두산만큼 높이 솟아올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태의연한 사고와 인습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없는 백지상태 ‘비어있음’(無)에서 가득 ‘채워있음’(有)으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미술문화 가치창조에 전력 질주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총 사업비 181억5800만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제주도립미술관은 제주시 서남쪽 외곽 한라산 1100도로변 38,744㎡(11,720평) 부지 위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087.09㎡(2,143.84평) 규모로 짓고 있다. 일부의 지역미술인과 도민들은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물론 외형 위주로만 치달아온 우리 국민들의 지난날 사고에 비춰보면, 기왕 짓는 바에야 큰 게 낫다는 점은 일견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발상만으로는 실패한 미술관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그림-5> 제주도립미술관 조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드웨어적인 건물 규모나 외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즉 무엇을 채워 나가야 하며 어떻게 그것을 보다 편하게 보여주고 알기 쉽게

교육하며 홍보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치열한 연구와 적극적인 실천의지라고 하는 내적 문제라는 사실이다. 세계적인 명화는 단순히 그 크기 하나만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예술작품 즉, 미술문화는 현상학적 작품(물질)을 통하여 형이상학(정신)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인류 마음의 창과도 같은 존재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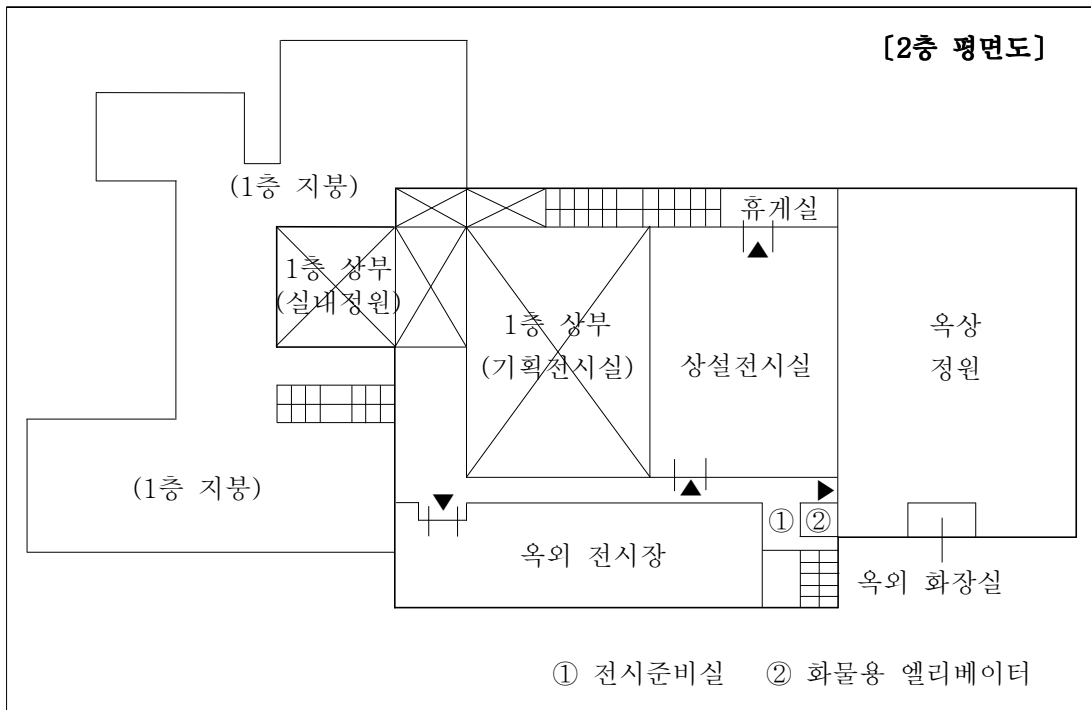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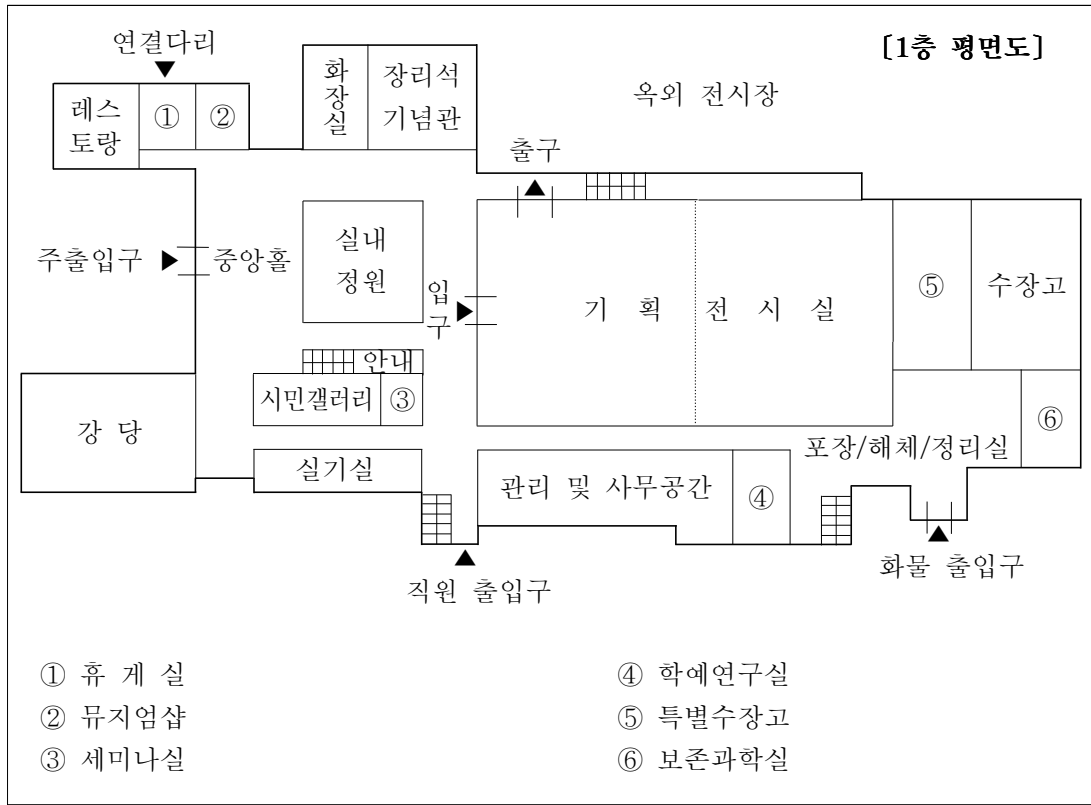
이런 의미에서 제주도립미술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 5가지 정도로 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개관시기에만 목표를 두고 무리하게 건축공정을 단축시킴으로써 경기도미술관처럼 총체적인 부실공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반드시 사전에 예방하여야만 한다.

2006년 12월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연구자가 경기도미술관을 방문했을 때의 첫 느낌은 낯아빠진 우리나라 건축문화 시스템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이미 20년 전인 1988년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당시 미술기자로서 지켜본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는데, 하드웨어인 건물 신축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소프트웨어인 미술관 운영에는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 그대로였다.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개관전시 또한 미흡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서, 지역의 핵심적인 문화 인프라로서 미술관 본래기능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거의 8억원을 투입해 요즘 한참 유행하는 유명 외국작가 대형전시회 유치에만 열을 올려 마치 갓 태어난 병아리가 황새 좇아 날아가려는 불쌍사나운 형국이 아닐 수 없었다. 경기도미술관이 들어선 곳은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 단원 김홍도가 태어나 유서가 아주 깊기에 행정명칭을 단원구로 정할 때와는 너무 이질적인 모습이었던 것이다. 1997년 건립부지 선정시절부터 따진다면 경기도미술관을 개관하기까지 무려 10년이란 세월이 걸린 것치고는 첫 개관전이 유명 해외작가 초대전이라면 과연 어느 누가 흔쾌히 박수칠 수 있겠는가.

제주도립미술관의 경우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으므로 지방정부 당국자는 스스로 예정한 건물 완공시기 늦춰질까 노심초사하지 말고, 진정 그 무엇으로 이 소중한 도립미술관의 첫 역사를 기록해나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림-6〉 제주도립미술관 전시실 층별 평면도⁹⁸⁾



98) 제주도립미술관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설계의 1, 2층 평면도를 참고하여 보기쉽게 재구성한 것임.

둘째는, 중장기적으로 미술관 증축 가능성과 대형전시회를 감안하여 그 위치들을 최소한 미리 고려해 놓은 다음, 야외 조경공사 등의 마무리 공정에 임해야 한다.

제주도립미술관은 상설 및 기획전시실은 물론 시민갤러리, 장리석기념관, 중앙 리셉션 홀을 다 합쳐도 2,743㎡(829.8평) 즉 1천평이 채 안되는 전시공간이기에 대형 기획전을 열기에는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게다가 건물구조상 서로 연결지어진 것도 아니고 벽과 층으로 각기 단절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열악한 조건인 셈이므로, 대형전시회 등을 위한 야외공간 임시 가건물 부지선정은 가히 필수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립미술관은 가장 큰 규모인 1층 기획전시실을 중심으로 앞부분과 위층으로 조각조각 나뉘진 형국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층 상설전시실 주변에는 옥외전시장과 옥상정원이 서로 연결해 있어 큰 전시회에 대비하여 전시공간으로 일시 가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건물 안에서 일시적으로 확장 가변화시킬 수 있는 전시공간 구성과 더불어 야외공간 일정부분에 대형전시회나 예술관련 행사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시 가건물 부지선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셋째는, 미술관 건물 이외에 야외공간 구성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미리 세워져야 한다. 대형전시회를 위한 임시 가건물 등의 위치선정을 한 다음으로는 드넓은 야외공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 나갈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원래 연면적 3,000평 규모안을 제시했던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연구 보고서와는 달리 실제 2,000여평으로 그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제일 크게 줄어든 공간은 연구 조사 부분으로서 미술관 건립 적격성 조사연구 의뢰 때보다도 무려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새로운 21세기형 미술관 운영방향은 전시, 연구, 교육기능이 대등할 정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데 비하여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연구 및 교육부문의 추가적인 공간 확보방안을 세워 두어야 하며, 이와 연계하여 대형전시회에 대비한 야외 임시 가건물 설치공간이나 추후 들어설 확장 건축

시설물 예정 부지를 선정해 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밖에도 새로이 문을 여는 제주지역 최고의 문화인프라 시설인 만큼 단순한 조정 시설 위주로 전개하기 보다는 비록 저예산이지만 꾸준한 국내외 조각심포지엄⁹⁹⁾ 개최, 장차 창작스튜디오 운영 때 입주하는 작가의 작품설치 등에 대한 속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야외조각공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아시아 미술문화의 터전으로서 뿐만 아니라, 눈부시게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미적 체험의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넷째는, 보다 열린 새로운 미술문화의 구심적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지방 정부와 지역미술인, 일반주민들 모두가 삼위일체를 이루어 핵심 문화 인프라에 대한 부단한 개선노력을 서로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주도립미술관의 주체는 바로 제주도민들이란 강력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공무원, 미술인, 일반도민 모두가 포함되므로 어느 일방의 주장이나 밀어붙이기만으로는 결코 성공적인 미술관을 만들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미술인들은 물론 일반도민들과의 잦은 만남자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제주도립미술관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해 개관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상을 향하여 한 계단씩 오르듯이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할 소중한 지역문화의 보배로운 공간과도 같기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열린 마음자세가 더 없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미술관 신축설계 시에 이미 반영한 건물내외의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법정 주차대수 보다 훨씬 많은 주차공간 확보 등은 바로 모든 관람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장리석화백의 기증작품 상설전시를 위하여 별도 전시공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한 지역미술인들의 불만을 지방정부 당국자는 유심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천경자화백의 상설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고, 광주시립미술관은

99) 우리나라에서 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열린 것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87년부터 서울올림픽 조각공원에서 두차례 추진하며 처음 도입한 이후 통영과 부산, 부여, 이천, 안성, 고양 등지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작가가 작품을 완성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 면에서나 작품특색 등을 잘 살려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재료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어려움이 있다.

허백련화백과 오지호화백의 기증작품은 물론 1,865점의 하정웅 컬렉션을 위해 상설 전시나 매년 특별전시회를 열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새로운 작품전시를 위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전시공간이 특정 예술인이나 기증자를 위한 사적 공간화 형태를 계속 유지해야 함으로써, 대형 기획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전시공간 구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 보면 장기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다음 장에서 다뤄 보고자 한다.

마지막 다섯째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 ‘세계자연유산 엑스포’ 개최 등과 병행한 특색 있는 ‘국제미술전람회’를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겉은 화려하고 속은 빈 ‘외화내빈’ 형태가 아닌 겉은 남루해보여도 속이 짝 찬 ‘외유내강’ 자세를 추구하는 대전제 하에서이다.

지역 미술관을 널리 알려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홍보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또한 설사 홍보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눈길을 끌 수 있는 미술관 고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금방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국내 최초로 등재한 만큼 미래의 ‘생태와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저예산적인 엑스포(Expo)와 국제미술전람회를 병행 개최한다면, 자연유산 홍보와 더불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이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참신한 역발상의 지혜축적이 이뤄져야 하며, 결국 실패로 끝난 ‘섬문화축제’¹⁰⁰⁾와 같은 블록버스터(Blockbuster)적인 허황한 발상은 금물이라 하겠다. 열악한 지역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번 국제행사를 치르는데 1백억 예산을 쏟아 붓고도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은 처절한 실패의 상처와 맞소송이라는 쓰라림뿐이지 않았던가 말이다.

아무리 제주도가 아름답고 보배로운 천혜의 고장일지라도 ‘섬’이라는 한계는 그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렵사리 초대형 국제전이 열린다고 해도 단기간에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100) 공식명칭은 ‘제주세계섬문화축제’로서 1998년 세계 섬들과의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겠다는 큰 목표 속에 출발했으나, 2001년 제2회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와 관람객유치 실패 등을 이유로 중단해 있는 상태다.

최고 성수기 때 제주에 올 수 있는 인원은 항공편과 선박편을 모두 합쳐도 5만 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 그들이 전부 관람하러 온다는 막대한 전제 아래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제행사를 계속해서 치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5가지 제주의립미술관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삼아, 다음 제6장에서는 제주의립미술관의 제대로 된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어떻게 지역 미술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보다 구체적인 지역미술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파악해 나가기 위해서 2007년 10~11월에 걸쳐 제주지역 미술인들과 관심 있는 일반도민 603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심층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2절 문화예술분야 BTL 사업방식의 개선점

정부에서 문화분야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도입한 시기는 2005년도부터였다. 대구시립미술관 건립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출발 첫해에만 부평문예회관, 제주의립미술관, 인천시립도서관, 경주문화예술회관, 안동문화예술회관, 제주종합문화센터 등 11개 사업이 선정돼 진행과정에 있다.¹⁰¹⁾

2006년도에는 울산시립박물관과 해운대신시가지도서관, 계룡복합문예회관 등 15개 사업이 신청한 상태이나, 철원복합문예회관 등 4개소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를 하였다. 그리고 2007년 접어들어서는 아산문화예술회관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고창풍물굿세계화센터 등 13개 사업이 검토대상에 올라 있다.

1. 무분별한 BTL사업 장려보다 철저한 시장분석 필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도입한지 불과 3년인 BTL사업에 대해 정부는 무분별하게 장려해나가기 보다는 정확한 시장분석에 대한 냉철한 검증부터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물론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

101)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단위 및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방향 수립 연구』, 2006, pp.24~27.

수준은 OECD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핵심적인 지역문화기반시설들에 대하여 충분한 선도사업 사례나 검증절차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BTL사업의 장점도 많겠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20년 이상을 꾸준히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와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학교나 기숙사 · 도서관 등과는 달리 비영리 문화기반시설인 미술관 · 박물관 · 문화예술회관 · 문화센터 등은 근본적으로 BTL 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시범사업을 충분히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정부주도사업인 만큼 미술계와 학계, 건축계 일각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를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시설투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셋째, 건설과 운영상 투자효율 제고가 가능하다. 넷째, BTL 투자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다섯째, 시중 여유자금을 공공투자 자금으로 전환하여 자금흐름 개선과 국민경제 선순환 촉진에 도움을 준다.¹⁰²⁾

이는 리스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딘 공공시설들을 신속히 완공시켜 이용할 수 있고, 반드시 건립해야 할 시설들이라면 투자비를 장기간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부담이 완화하는 동시에 빠를수록 실질적인 사업비를 줄일 수 있으며, 민간자본과 서비스를 통한 창의적 설계 및 운영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나 방법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예측결과 분석 등을 거치지 않고 단순한 형식논리에 치우친다면, 협상진행 과정상의 지연은 물론 예기치 못한 운영상 파열음에 시달려야 할 수밖에 없는 난관에 부딪치고 말 것이다. 문화분야 가운데 2005년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대구시립미술관 BTL사업의 경우 2007년 8월 착공하여 2010년 가셔야 완공을 보게 되므로,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야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맡는다고 하여 건립사업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민간사업자 수익사업을 위해 대구시립미술관의 전체 연면적 20,326.03㎡(6,148.62평)에서 11.7%인 2,392.6㎡(723.8평)

102) 도종광 외, 『What's How to BTL』, 건설신문사, 2006, pp.79~80.

이나 되는 귀중한 문화공간을 할애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에서는 2005년 문화예술분야 BTL사업으로 채택한 제주의립미술관과 제주종합문화센터 등 두개의 BTL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제주도 여성정책과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센터는 7,392㎡(2,236평) 부지 위에 연면적 6,520㎡(1,972평) 규모로서 전시시설 630㎡(190.5평) 및 보존시설(수장고) 310㎡(93.8평), 400석 규모의 공연장 830㎡(251평) 외에도 문화교류·정보·지역문화시설 등의 문화관련 복지시설이 들어선다.¹⁰³⁾

<그림-7> 가칭 제주도종합문화센터 조감도



총사업비는 153억원이며 2007년 12월 12일 착공하여 2009년 10월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름만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이고 실제적으로는 ‘여성문화의 전당’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여성 역사문화 전시관인 190여평의 전시시설은 또다시 신화·역사·평화를 주제로 세 개 전시실로 나뉘지며, 이 가운데는 210㎡(63.5평) 규모의 기획전시실도 함께 자리한다.

103) 제주도 여성정책과, BTL 사업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참조.

매년 상환해야 하는 임대료는 19억5000만원으로서 이중 41%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주시 관내에서 신축중인 대형 문화기반시설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근에 또 제주시 당국에 의해 60억 사업비를 투입한 900석 규모 열람실을 갖춘 한라도서관과 더불어 150억 사업비가 소요하는 972석 규모의 한라문화예술회관이 한창 공사 중에 있다. 한라도서관은 대지 24,416㎡(7,385.84평) 연면적 4,502㎡(1,361.86평)에 이르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곧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한라문화예술회관은 대지 24,342㎡(7,363.46평) 연면적 8,456㎡(2,557.94평) 규모의 지하2층 지상3층 건물로서 완공까지는 3~4년이 더 걸린다고 한다.¹⁰⁴⁾

<그림-8> 한라문화예술회관 조감도



이와 같이 제주시내 서남부지역 반경 5km 전후하여 제주도립미술관과 제주종합문화센터, 한라도서관과 한라문화예술회관 등의 핵심 문화기반시설이 선두를 경쟁하듯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04) 미디어제주, 2006.2.1자.

그리고 이에 뒤질세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또한 BTL 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려다가 결국은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천지연폭포 서쪽 서홍동의 삼매봉 자락 서귀포시기당미술관 바로 옆 부지 38,431㎡(11,625.38평)에 세워질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연면적 7,273㎡(2,200평) 규모를 자랑한다. 공연시설로는 2,479㎡(749.9평) 817석 규모의 대극장과 661㎡(199.95평)크기의 소극장이 들어선다. 또한 전시공간은 대전시설 331㎡(100평), 소전시실 166㎡(50평), 전시준비실 66㎡(20평) 등이 마련된다.¹⁰⁵⁾ 2009년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총 269억원이 투자되며 국비 20억원, 지방비 125억원, 지방채 124억원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분명히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에 새로운 문화공간들이 들어선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철저한 타당성 분석과 채워져야 할 콘텐츠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이는 건립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오히려 더 없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손쉬운 외국의 문화관련 정책집행 선진사례들을 무분별하게 좇아 대형 문화기반시설 건립을 남발하기에 앞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시장분석 등을 거쳐서 신중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2. 주요 선진국의 추진방식 사례가 주는 교훈

우리나라의 임대형 민자사업인 BTL과 거의 같은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처음으로 전개한 나라는 영국이다. 이미 영국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라 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왔는데, 1992년 정부의 일반 재정사업을 보완해 나가고자 시작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가 우리의 BTL사업과 매우 유사하다.

여기서는 극히 제한적인 자료수집 관계로 구체적인 사례들 보다는 동서양을 대표할 수 있는 선진국인 영국과 일본의 포괄적인 사업추진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파악해

105) 제주도 문화예술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시설개요」 현황 자료.
(건립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한라일보, 2007.3.14자 및 2007.4.6자 기사 참조)

보고자 한다.

먼저, 영국의 경우 PFI 사업방식이 DBFO(Design-Build-Finance-Operate) 형태로서 우리 BTL사업과 일맥상통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PFI 상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무관청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갖는다는 것이다. 1992년 PFI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5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사업규모는 약 400억 파운드(70조 원)에 달하며, 주로 학교시설을 짓는 교육부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확충한 보건부에서 많이 추진하였다.

영국의 대표적인 학교시설 PFI의 일반적 추진절차를 보면 맨먼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검증되면 공공비교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을 산출하고 경제성을 고려해 민간투자 또는 재정사업인지를 판단한다. 이 공공비교대안은 정부가 재정사업을 추진했을 때 소요하는 비용을 미리 산출해 민간투자방식과 비교하는 비용의 기준이 된다. 이때 영국 교육부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 승인을 결정하며 확정되면 장기적인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른다.

이후의 진행방식은 BTL과 비슷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영국은 공공비교대안(PSC)을 반드시 검토해 총 사업비를 책정하고 우리보다 훨씬 세밀한 타당성 검토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영국정부는 PFI가 안정화 단계를 지나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발전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PFI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 대상시설을 에너지 관련 부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우리의 BTL 보다 훨씬 폭이 넓다. 제도 도입이후 2005년까지 총 175건의 PFI사업이 지방공공단체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일본정부는 PFI사업의 역할로서 민간자본 순환을 촉진시키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한 열악한 재정상황 아래서의 공공사업 실현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PFI 사업규모는 연간 1,500억~2,000억엔(1조3000억~1조7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일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연간 공공사업 예산 가운데 17~8% 비중을 차지할 만큼 높다.¹⁰⁶⁾

일본의 건설산업 PFI시스템은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나 최근 새로 도입하는 PFI 사업은 여러 단계의 발주과정을 하나로 통합시켜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PFI사업 조건·리스크·추진여부 등을 정밀 분석한 후 실시방침이 정해지면 일본정부는 PFI

106) 도종광 외, 앞의 책, pp.279~299, 참조.

방식 적용여부에 대한 효율성(VFM, Value For Money) 검토를 통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일본 PFI 사업은 임대방식의 BTL 보다는 BTO 형태가 훨씬 많은 추세이며, 일본 정부는 PFI제도를 도입한 이후 그동안 국가경제 기여도가 비교적 낮았던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도입초기부터 현재까지도 일본정부에서는 병원과 상하수도 시설, 학교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프라면서 효율성과 서비스 향상에 수요가 많은 사업에 한하여 PFI를 일관되게 적용시켜 오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략 8가지 정도의 세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 및 민간 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는 물론 PFI 사업 진행과정에서 필요하면 국·공유재산을 대여해 주는 특별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국과 일본의 철저한 준비 과정과 비교 검토과정, 진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지원정책은 우리로 하여금 문화기반 시설과 같은 중장기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반드시 준비 소홀이나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차단해내야 한다는 값진 교훈으로서 받아들여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6장 제주도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 통한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방안(설문조사 분석)

제주도립미술관이 개관하면 제주도는 국내외적으로 손색이 없는 미술관을 갖는 만큼 이미 세 군데나 있는 기존의 크고 작은 공립미술관들과 더불어 서로간의 윈윈 전략을 미리 치밀하게 세워놓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없애고 전문 인력풀제 운영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제주도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이루어나감으로써, 지역의 공공 문화인프라는 물론 미술문화를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서 제주지역 미술인들과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¹⁰⁷⁾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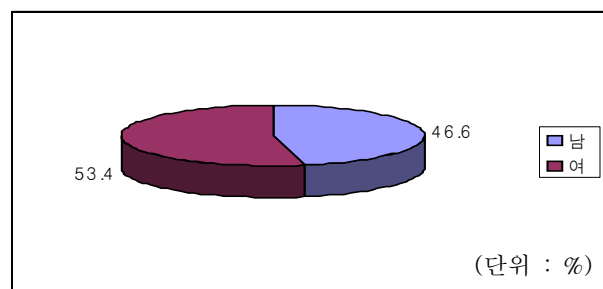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설문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립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공문화 인프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나가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지역문화 활성화방안>에 관한 전체적인 설문 분석은 아래와 같다. 총 설문자수는 603명이며, 이 가운데 전문미술인 146명, 일반미술인 233명, 일반인 224명이 응답해 주었다. 여기서 전문미술인이라 함은 전업이든 겸업이든 상관없이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인을 말하며, 일반 미술인은 미술관련 학과를 졸업했지만 작품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현재 대학 관련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설문자를 말한다. 또한 일반인은 대학생도 포함한다.

■ 기초항목

1. 성 별

① 남 : 281명

② 여 : 32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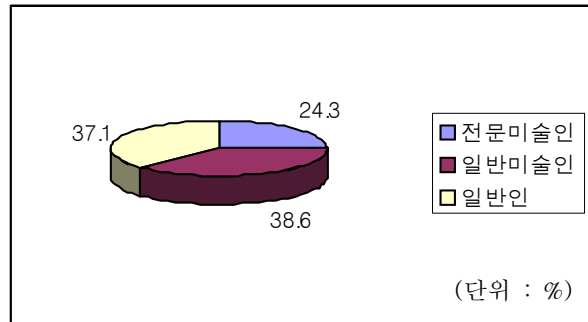


<그림-9>

107) 본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0여일 동안 제주도문화예술평 전시설을 중심으로 직접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부의 경우는 도내 대학을 방문해 미술전공 대학생들에게 설문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2. 활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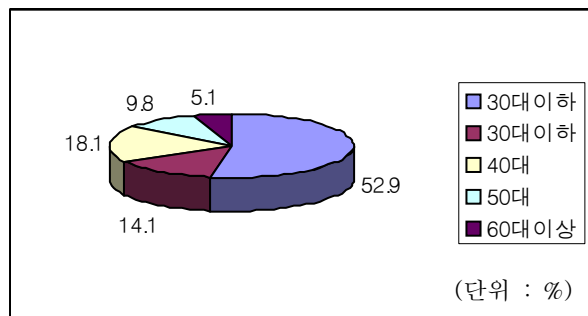
- ① 전문미술인 : 146명
- ② 일반미술인 : 233명
- ③ 일 반 인 : 224명



<그림-10>

3. 연 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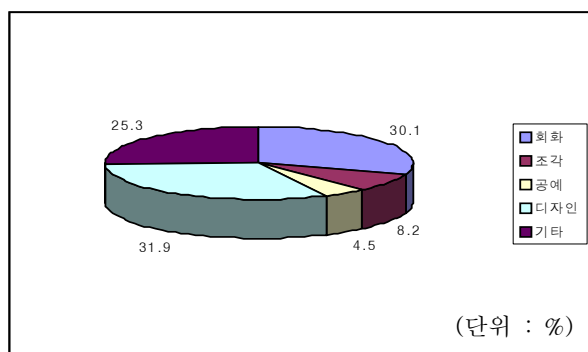
- ① 30대 이하 : 319명
- ② 30대 : 85명
- ③ 40대 : 109명
- ④ 50대 : 59명
- ⑤ 60대 이상 : 31명



<그림-11>

4. 전 공

- ① 회 화 : 114명
- ② 조 각 : 31명
- ③ 공 예 : 17명
- ④ 디자인 : 121명
- ⑤ 기 타 : 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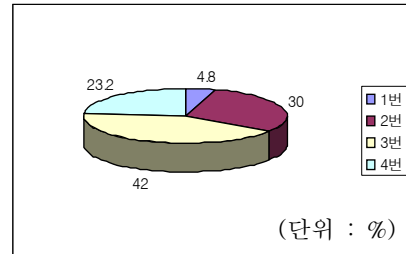


<그림-12>

■ 본 항 목

1. 귀하는 요즘 제주지역의 미술문화 상황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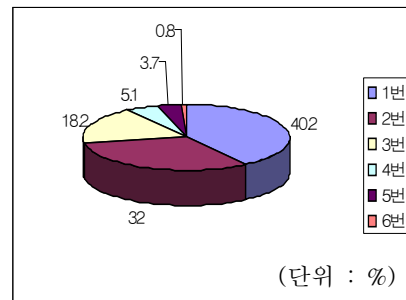
- ①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 29명
- ② 그런대로 활성화되고 있다 : 181명
- ③ 그저 그렇다 : 253명
- ④ 매우 침체되어 있다 : 140명



<그림-13>

2. 만일 제주지역의 미술문화 상황이 침체되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기반시설의 빈약 : 263명
- ② 열악한 지역경제 기반 : 209명
- ③ 갤러리의 전문성 부재 : 119명
- ④ 미술인들의 창작의욕 저하 : 33명
- ⑤ 무 응 답 : 24명
- ⑥ 기타의견 : 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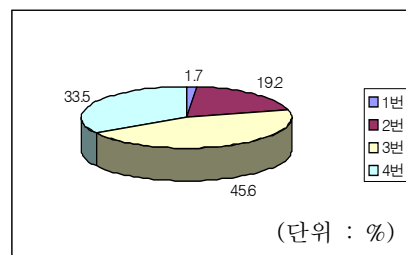


<그림-14>

(중복응답자 수 : 50명)

3. 현재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척상황이나 사업방식(BTL)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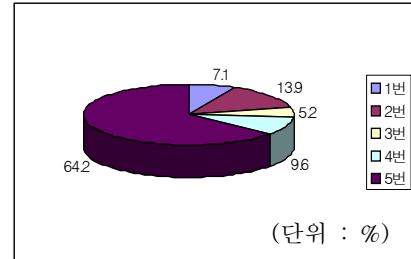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10명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116명
- ③ 잘 모르는 편이다 : 275명
- ④ 전혀 아는 바가 없다 : 202명



<그림-15>

4. 진척상황을 알고계신다면 그 규모(연면적) 및 완공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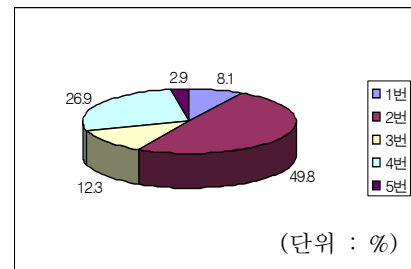
- ① 약 5,000㎡(1.5천평) : 43명
- ② 약 6,600㎡(2천평) : 84명
- ③ 약 8,200㎡(2.5천평) : 31명
- ④ 약 9,800㎡(3천평) : 58명
- ⑤ 무응답 : 387명



<그림-16>

5. <제주도립미술관> 건립비는 민자유치방식(BTL)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 경우 파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또는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총 건립비용 증가 : 50명
- ② 민간사업자 운영형태 및 상업화 변질 : 309명
- ③ 핵심 문화기반시설의 조기완공 : 76명
- ④ 미술관의 질적 서비스 개선도모 : 167명
- ⑤ 무응답 : 1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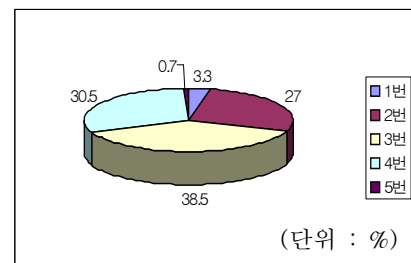


(중복응답자 수 : 17명)

<그림-17>

6. 민자유치 즉 BTL(Build-Transfer-Lease)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립한 뒤 정부에다 소유권을 넘겨준(기부채납한) 다음,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것으로, 일정기간 민간사업자가 그 시설 사용과 수익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그동안 들어보거나 알고 계셨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20명
- ②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 163명
- ③ 잘 모르겠다 : 232명
- ④ 전혀 아는 바가 없다 : 184명
- ⑤ 무응답 :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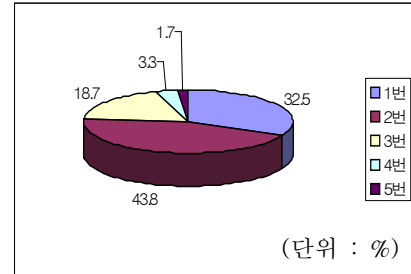


<그림-18>

7.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이후 미술관 활성화와 운영재정 확충차원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내외 공연(연극·무용 등)이나 ‘야외 자동차극장’(drive-in theater)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196명
- ② 대체로 찬성한다 : 265명
- ③ 그저 그렇다 : 113명
- ④ 적극 반대한다 : 20명
- ⑤ 무응답 : 10명

(중복응답자 수 :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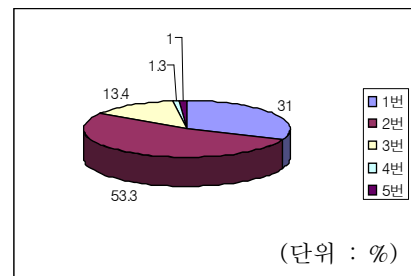


<그림-19>

8. 이미 제주지역에는 전국최초의 시립미술관인 서귀포기당미술관 이외 이중섭미술관이 운영중이며, 2007년 9월 현재 제주현대미술관이 제주서부에 새롭게 개관되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립미술관>이 완공될 경우 치열한 관람객 유치경쟁을 피하고, 미술관 운영예산과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미술관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찬성한다 : 187명
- ② 대체로 찬성한다 : 322명
- ③ 그저 그렇다 : 81명
- ④ 적극 반대한다 : 8명
- ⑤ 무응답 : 6명

(중복응답자 수 :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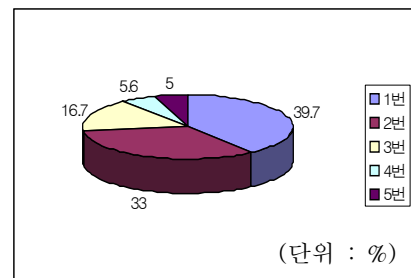


<그림-20>

9.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느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제주도립미술관 부설기구 : 240명
- ② 독립 비영리법인체(제주문화예술재단소속) : 200명
- ③ 지역미술인단체연합 부설기구 : 101명
- ④ 민간 영리법인체 : 34명
- ⑤ 무응답 : 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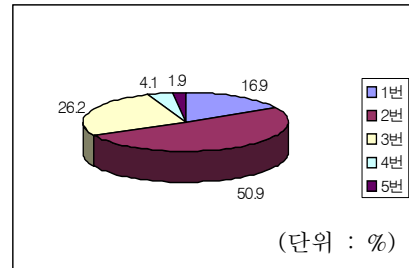
(중복응답자 수 : 2명)



<그림-21>

10.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 「기업메세나 운동」을 전개한다면 참여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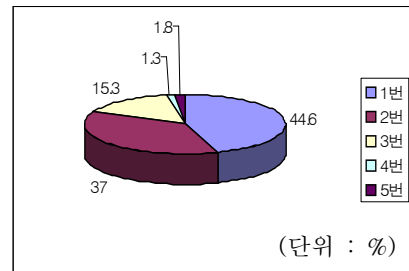
- ① 적극 참여할 것이다 : 102명
- ② 그런대로 참여할 것이다 : 307명
- ③ 그저 그렇다 : 158명
- ④ 전혀 참여할 생각 없다 : 25명
- ⑤ 무응답 : 11명



<그림-22>

11.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제주문예진흥기금」의 대폭적인 확충과 함께 지원절차의 다양화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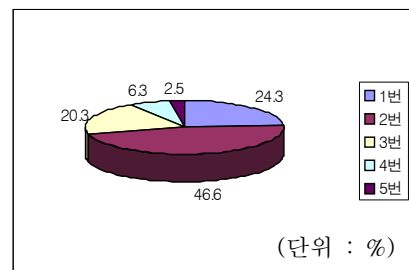
- ① 매우 필요하다 : 269명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223명
- ③ 그저 그렇다 : 92명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8명
- ⑤ 무응답 : 11명



<그림-23>

12.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려내는 「국제미술전람회」 개최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개최시기와 전람회의 성격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① 매년 개최 : 147명
- ② 격년 개최(비엔날레) : 282명
- ③ 3년마다 개최(트리엔날레) : 123명
- ④ 4년 또는 5년마다 개최 : 38명
- ⑤ 무응답 :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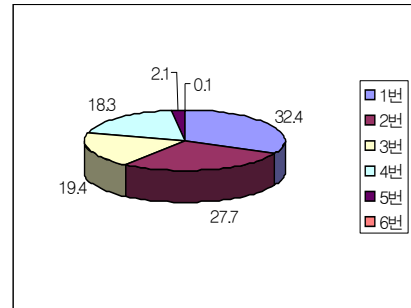
(중복응답자 수 : 2명)

<그림-24>

13. 실제로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미술전람회」 개최가 이루어진다면, 운영주체는
다음 중에서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도립미술관 조직위원회 : 196명
- ② 독립 국제전람회 조직위원회 : 168명
- ③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위원회 : 118명
- ④ 지역미술인단체연합 조직위원회 : 111명
- ⑤ 무응답 : 13명
- ⑥ 기타 : 1명

(중복응답자 수 : 4명)



(단위 : %)

<그림-25>

위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설문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들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정리해 보면 대략 이러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첫째는, 제주지역 미술문화 상황에 관한 것으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만 문화기반시설의 빈약과 열악한 지역경제기반, 갤러리의 전문성부재 등이 침체시키는 요인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활동작가들은 미술인들의 창작의욕 저하(8.8%) 때문이라는 시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그 외의 그룹과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2명의 전문미술인은 설문항목 이외에 미술인들의 융화 부족과 대중과의 교류(의사소통) 부족을 침체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둘째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실이나 사업방식(BTL)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 전문미술인들이 절반 가까이(43.8%)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미술관 규모나 완공시기에 대해서는 일반미술인과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무응답 한 설문자수가 평균 64.2%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미술인들조차도 절반이 넘는 상태(54.1%)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미술인(58.%)과 일반인(76.3%)일수록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립방식인 BTL 민자사업에 관해서는 전체 79.1%가 모르고 있었음은 물론 전문미술인들 가운데도 모르는 비율이 56.2%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특히 일반인은 열명에 한명 꼴인 11%만이 겨우 어느 정도 아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리고 민자사업 건립으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장단점에 관한 설문(5번항)에선

민간사업자 운영 횡포 및 미술관의 상업화 변질을 가장 우려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술관의 질적 서비스 개선도모가 가능하리라고 내다봤다.

셋째는, 미술관 활성화와 운영재정 확충차원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내외 공연(연극·무용 등)이나 ‘야외 자동차극장’(drive-in theater) 운영에 관해서는 전체 76.3%가 찬성하였고,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은 3.3%로서 그저 그렇다 18.7% 보다 훨씬 낮았다.

찬성의견으로는 미술관이 전시회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힘들 수 있으므로 전문성과 정체성 등의 미술관 색채가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병행해나가야 한다거나, 실내외 공연은 찬성하지만 자동차극장은 무대공연조차 관객들을 배제한 일방적 예술로 흘러가는 마당에 단순 관람만을 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반대의견으로는 순수예술성 및 미술관 정체성 훼손, 영화관련 산업(소극장)의 위축, 도내의 얇은 문화마니아 층으로 인한 관람객 동원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거나 확실한 운영 개념을 가지고 미술에만 전념해야 하므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 이런 것들이 과연 활성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에 찬반을 유보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는, 제주도립미술관이 완공될 경우 기존의 세 군데 공립미술관과 치열한 관람객 유치경쟁을 피하고, 미술관 운영예산과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미술관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84.3%가 찬성하였으며, 그저 그렇다 13.4% 반대한다는 의견은 1.3%로 거의 없었다.

여기서도 공립미술관으로서 특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과 함께 그나마 선의의 유치경쟁마저 없어진다면 미술관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에 반대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미술관 설립배경과 지역정서가 다를 뿐 아니라 관이 주도하는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으므로 반대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섯째는, 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느 방식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제주도립미술관 부설기구(39.7%)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 독립 비영리법인체(제주문화예술재단 소속) 33%, 지역미술인단체연합 부설기구 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영리법인체 선호는 5.6%에 불과했다.

이 설문 응답자들 중에는 선택이유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았는데 공정성 · 신뢰성 · 객관성 · 투명성 · 전문성 · 고유성(작품 수장관리 기능)을 이유로 도립미술관 부설기구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소속 비영리법인체를 많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예술인 양성은 물론 예술인 상호유대와 창작 욕구를 고취할 수 있어서 또는 미술지식 있어야 운영도 효율적이므로, 미술인들이야말로 미술품 다루는 마음이 남다를 것이기에 지역미술인단체연합 부설기구가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이 양자를 균형 있게 조직하였으면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민간 영리법인체를 선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일 것 같아서라거나 경제성을 보장해주거나 경쟁을 통해서 미술문화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여섯째는, 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심 「기업메세나 운동」을 전개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67.8%가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전문미술인의 경우는 81.5%에 이를 정도로 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일곱째는, 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문예진흥기금」의 대폭적인 확충과 지원절차를 다양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81.6%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문미술인의 경우에는 매우 필요하다 67.1% 어느 정도 필요하다 24.7%로서 전문미술인 91.8%가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의 개선을 강력 희망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이유로서는 문예진흥기금 확보와 집행에 관한 홍보가 없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창작욕구가 왕성한 작가 위주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비단 문예진흥기금만 아니라 관광기금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제주미술계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거나, 예술가(공급자) 지원보다는 향유자(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열악한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하지만 지원절차는 투명해야 한다, 개인전에 보다 많이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금지원이 확충되고 투명해짐에 따라 특정작가에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 낮은 작가에게까지 지원하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사진작가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전업 작가중심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많은 단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지원형식이

아닌 특성 있고 투자가 필요한 문화행사에 집중 투자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공개해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응답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반미술인들은 투명성 제고와 함께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채 무조건적인 지원이 있을 수 없다, 지역작가에게 고르게 혜택이 안되고 있어 어떻게 지원받았는가를 우리도 알아야 한다, 매년 똑같은 전시와 작품에 볼 것이 없다, 제주지역 문화기반이 부족하다, 보편타당성 있는 문화행정이 필요하다, 투자가 있다면 투명해야 신뢰감이 들 것 같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재정적 인적(학력·지연) 투명성 필요, 투명성 제고로 제주도민이 문화진흥에 기여하는 시너지효과 기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신뢰 얻을 수 있다, 절차의 다양화 및 투명성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의 정기적 지원이 필요하고 신진작가 발굴 지원도 필요하다, 타 지방에 비해 문화생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뒤떨어지기 때문에 기금을 확충해 문화적 저변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제주도민의 문화 예술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금확대 시급, 초중고 때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를 수동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등의 견해가 많았다.

여덟째는,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미술전람회」 개최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개최시기와 전람회의 성격에 대한 견해에는 격년 개최(비엔날레) 46.6%, 매년 개최 24.3%, 3년마다 개최(트리엔날레) 20.3%, 4년 또는 5년마다 개최 6.3%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문미술인의 경우에는 비엔날레가 41.5%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매년 개최(17%) 보다 트리엔날레(28.6%)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미술전람회의 성격에 관해서 전문미술인들은 주제별 장르별로 개최하되 종합전시회를 표방해야 한다거나 섬문화 특성을 살리는 것, 재정확보를 바탕으로 한 차별성 전문성 가진 비엔날레 형식, 미술의 저변확대가 시급한 만큼 일반인을 고려한 체험 관람적 성격, 제주의 특성이 부각할 수 있도록 평화와 생태를 축으로 한 전세계 미술인들의 축제의 장 마련, 신화를 테마로 또는 제주의 정체성과 글로벌 이미지의 연계적인 방향 모색, 국가에서 지원받는 전람회여야 한다, 회화·조각·공예 중심으로 3년마다 개최하자는 등의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반미술인들은 초기에는 매년 개최해 홍보 성격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개최시기보다 내용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제주 세계자연유산 홍보형식 필요, 광주비엔날레 컨셉 배경과 연계한 다양한 국제교류 형식, 제주의 환경을 살려 제주 전지역을 비엔날레 장소로 활용하는 즉 전시장내에서가 아닌 밖의 자연 환경을 전람회장화 하여 격식은 간소하나 동서양을 아울러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전시회, 다양한 체험 위주 전람회, 세계적인 디자인전, 정적인 작품위주 전시를 지양하여 다양한 공연활동이 추가된 퓨전 형식, 도내외 유망주 소개 또는 세계 미술흐름 조망하는 전시회와 워크숍 개최 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일반인들은 제주특성을 잘 나타내면서도 국제적으로 통하는 전람회(4명),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 있는 관광객들이 미술품을 들고 와서 자유롭게 전시하는 성격의 전람회(2명), 축제형식을 갖춘 전시회, 제주 역사·신화·풍경을 주제로 지역성 부각과 역사성이 가득한 전시회(2명), 조각을 위주로 한 전시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작품을 유치하는 전시회를 개최하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미술전람회 운영주체로서는 전체적으로 제주도립미술관 조직위원회(32.4%), 독립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27.7%),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위원회(19.4%), 지역미술인단체연합 조직위원회(18.3%) 순이었으나, 이 역시 전문미술인들은 독립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36.5%)를 가장 선호했고 제주도립미술관 조직위원회(27%), 지역미술인단체연합 조직위원회(19.6%),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위원회(12.8%) 순으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기타 제안으로서는 미술관 건립 관련 도민의 문화적 관심도와 저변확대 필요, 새로운 도전과 참여위주의 편-편(fun-fun)¹⁰⁸⁾ 프로그램 육성, 천혜 관광의 섬에서 ‘예술의 섬’이자 세계예술의 핵으로서 비전제시 시급, 도내 공공미술관의 원시스템(one system)화로 전시기획·작품구입·정보공유 등을 통한 예산절약 및 중복 수집예방, 공공 문화인프라 건립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충분한 공청회와 사전홍보 필요성 등이다.

참고로, 연구자의 설문조사 분석과정에서는 전체분석 및 집단별(전문미술인·일반미술인·일반인) 분석을 구분해 실시하였으나, 지면상 한계로 집단별 의견이 다를 경우에만 그 구체적인 비율을 가지고 이유를 설명하였음을 밝혀둔다.

108) 재미교포 진수테리의 ‘편 경영’ 이론으로서 성공전략이란 “신나게(Fun) 독창적으로(Unique) 보살피는(Nurturing)”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 웃음으로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감성적인 ‘편 마케팅’인 셈이다.

제1절 도내 공공미술관의 네트워크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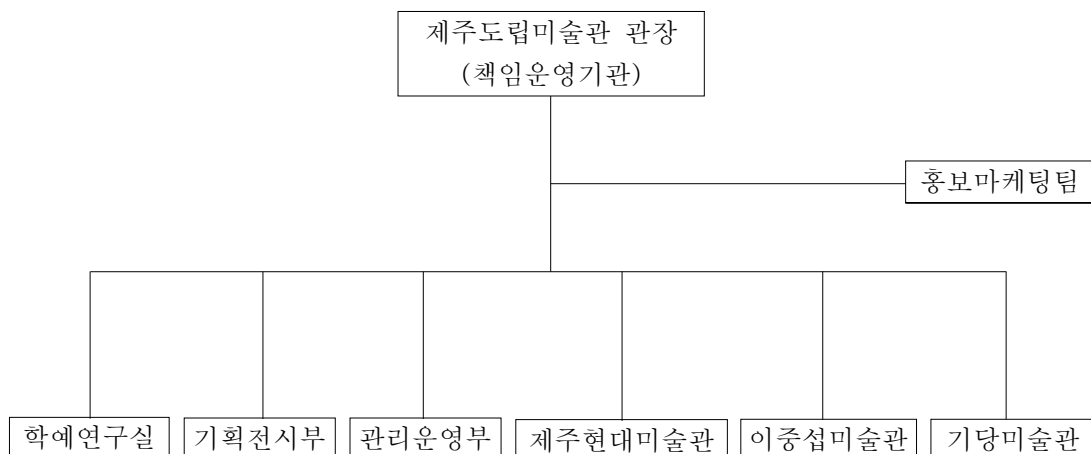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설문조사 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제주도립미술관의 건립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지역 미술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보자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로는 도내 공공미술관의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협조체계 보다는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처럼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이 훨씬 큰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미술관별 특성화방안 강구 - 책임운영기관제

현재 공립인 서귀포시기당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소속해 있으며, 제주현대미술관은 제주도 산하기관인 관광지관리사업소 내의 제주현대미술관 관리사무소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 본래기능으로서의 관장 체제를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학예직이나 기타 전문인력은 각 1명씩 2명만이 겨우 갖춰진 상태로서, 이 가운데 규모가 제일 큰 제주현대미술관은 이마저도 아예 없는 정말 딱한 실정이다.

<그림-26> 제주도내 공공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예시방안



따라서 제5장에서 다룬 2004년도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조직안 <그림-3>을 바탕으로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처럼 ‘홍보마케팅팀’을 관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존 3개부서와 함께 특별관 형태로서 ‘제주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미술관 네트워크 구축체제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미술관 운영방향이 작품구입을 통한 상설전시 보다는 기획전시를 중점적으로 펴나가야 하는 만큼 연구보고서 상의 기획개발부는 ‘기획전시부’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지방정부는 제주도립미술관을 본관으로 하고 나머지 3개 미술관을 특별관 체제로 하여, 도립미술관장이 전체의 수장으로서 인사권한을 가지되 관리책임도 지게 하는 ‘책임운영기관’ 제의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네 개의 공립미술관이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체계를 지님으로써, 인력관련 예산 절약은 물론 연구기능과 작품수집 관리기능, 전시기능, 교육기능 등 전 부문을 망라하여 매우 큰 상생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술관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있어서는 이중섭화백과 장리석화백은 6·25피난 시절 제주에 몇 년 거주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에, 도립미술관의 장리석기념관을 이중섭미술관으로 옮김으로써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이중섭미술관의 전시작품들은 대부분 복제품들로서 진품의 경우도 위작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미술관 기능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112점이나 되는 장리석화백의 작품을 소장 전시할 수 있다면 미술관 전시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1층 전시실은 두 예술가의 제주 피난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2층 전시실에는 두 작가의 방으로 나눠 상설 전시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 및 자료수집 과정에서 이중섭미술관이 인접 건물을 매입하여 조만간 미술창작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보다는 미술관 교육센터로 활용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하겠다.

그리고 기당미술관은 지금과 같은 소장작품 상설전시 위주로 하기보다는 조만간 새로 들어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전시실과 더불어 기획전시회 중심의 미술관 체제로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명칭과 위치적 특성상 걸맞게 제주현대미술관은 창작스튜디오를 겸한 실험정신이 강한 국내외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전시하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넓은 미술창작스튜디오를 갖추어 동시에 추진하게 된다면 이 또한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만난 어느 문화관계자가 한 ‘원로 예술인들의 별장촌’ 아니냐는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물론 이는 미술관 명칭과 예술인마을에 입주한 작가들의 연령과 작품경향에서 오는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여 성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새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주도립미술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려면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미술관 정책결정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코 그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진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방정부의 ‘한팔 거리두기 원칙’(arm's length principle)¹⁰⁹⁾이 세워지고 또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술(미술관)에 대하여 지원은 하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 일체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2. 미술창작스튜디오 설립과 지원

예전에 쓰던 화실 또는 작업실이라는 일반적인 명칭에서 1990년대 말부터 새롭게 ‘창작스튜디오’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옛 이름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한국에서 미술창작스튜디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1년 당시 문예진흥원이 미국의 P.S.I. 국제스튜디오와 교류협정을 맺고 국내작가가 참여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¹¹⁰⁾

흔히 미술창작스튜디오는 미술가에게 창작공간을 일정기간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여 작가들이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크게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과 일상적인 작업공간으로서의 그것

109) J. Pick, Arts Administration, London New York, E. & P. Spon. 1980, pp.10~11.

박일호, “공적 자원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과 위상”, 『현대미술관연구』(제15집), 국립현대미술관, 2004, p.39, 재인용.

110) 최관호, “한국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홍익대 미술대학원, 2006, p.16.

으로 나눌 수 있다.¹¹¹⁾ 용어 또한 국제적으로 통일해 부르지 않고 영어권에서는 규모나 유형에 따라 아티스트 커뮤니티(Artist Community), 아트 콜로니(Art Colony) 또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in-Residence) 등으로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촌, 집단 창작촌, 아트 스튜디오(Art Studio), 아틀리에(Atelier)라는 말을 쓰고 주로 있다. 2005년 10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모두 31개소가 있는데 국립 2개소, 공립 23개소, 사립은 6개소에 이른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국내 미술작가들의 창작여건 활성화와 해외교류를 통한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화를 위하여 창동 및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를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개관하여 국내외 입주작가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예술담론을 생산하는데 앞장서 오고 있다. 이곳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프로그램으로는 개별작업 지원,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오픈 스튜디오 및 전시기회 제공, 국제 교환입주 및 아시아 초청작가 지원프로그램 이외에도 ‘유네스코 국제문화진흥기금’(UNESCO International Fund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장학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출판물 발간과 스튜디오 정보자료실을 운영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¹¹²⁾

근래 들어 창작스튜디오는 일정기간 선발하거나 초청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위주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작업공간을 마련하는 쪽으로 전환해가는 추세이므로, 제주현대미술관이 위치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공사립 형태의 다양한 미술창작스튜디오가 들어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규모를 확장시켜 창작스튜디오 마을을 새로이 형성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이들과 연관된 아트샵은 물론 식료품점·식당·세탁소·이발소·미용실 등의 각종 상가와 예술인거리 형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적 인프라 활성화와 함께 이색적인 문화관광명소로까지 충분히 발돋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성을 대표하는 제주의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서귀포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20세기 미술의 살아있는 전시공간과 교육터전으로서, 제주

111) 양현미, “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미술창작스튜디오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국립현대미술관, 2005, pp.15~22, 참조.

112) 국립현대미술관, 『국립 미술창작스튜디오 연보 2005-2006』, 2006, pp.6~9, 참조.

서부지역은 21세기 신 미술의 생생한 체험공간 마당을 두루 갖춘 독특한 문화광명소로서 삼각 트라이앵글 벨트를 만들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게다가 이는 오늘날 적용하는 새로운 미술관의 개념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대중 친화적이며 개방적인 ‘살아있는 미술관’(Musée Vivant)¹¹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개념에는 마치 과거유산의 기록보존소와 교육정보센터 같은 죽어있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영화관이나 카페테리아, 놀이터, 파티장, 휴식공간 등이 다양하게 갖춰진 엔터테인먼트적인 복합 문화인프라로서의 기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제2절 제주미술문화의 활성화 여건 마련

앞서와 같은 희망적인 미래 청사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주미술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 설문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의 미술문화 상황은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고 적극 실천해 가야 한다.

여기서는 현재 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주문예진흥기금의 확충과 지원확대는 물론,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술은행제도 및 기업메세나 운동의 도입과 더불어 어떻게 응용하면서 전개하여 나갈 것인지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제주문예진흥기금 확충과 지원확대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생명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문예진흥기금은 현재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의 일부로서 총 300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다.

제주문예진흥기금의 지원목적은 제주문화예술을 진흥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제주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113) 김영호, “변화하는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1호, 도서출판 채원, 1998, p.8.
이보아,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예술경영 시리즈 3), 역사넷, 2003, p.29, 재인용함.

하고 있는데,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해 나가고 있다. 지원신청 자격은 도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 및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이며, 지원 원칙으로는 개인은 1개 사업, 창단사업 후 3년 이상 단체는 2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예술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회 지원받으면 그 다음해부터 3년간 지원받을 수 없다.¹¹⁴⁾

특히 2001년부터 제주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총 300억원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지만, 2006년 12월말 현재 116억원을 마련한 상태로서 조성실적이 매우 부진한 편이다.

<표-25>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조성계획 및 실적¹¹⁵⁾

구 분	조 성 목표액	조 성 액							비 고 (조성율)
		계	'01	'02	'03	'04	'05	'06	
합 계	300	116	52	11	16	24	7	6	39%
문예진흥기금	42	44	42	-	-	2	-		105%
제주특별자치도	228	69	10	11	16	19	7	6	30%
민 간 출 연	30	3	-	-	-	3	-		10%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액은 종전 시·군 출연액 20억원 포함. (단위 : 원)

또한 연도별 제주문예진흥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02년도 140건에 4억682만원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105건에 4억75만원, 2004년에는 122건에 4억4300만원, 2005년에는 135건에 4억7850만원, 2006년에는 132건에 4억5310만원, 2007년에는 86건에 4억2900만원을 지원해왔다.

이 가운데 전시부문만 더 살펴보면 2002년도 60건에 1억7510만원, 2003년도 36건에 1억500만원, 2004년도 53건에 1억4800만원, 2005년도 58건에 1억5650만원, 2006년도 46건에 1억5250만원, 2007년도 35건에 1억1900만원으로서 해마다 40~60건에 약 1억1000만원~1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설문분석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전문미술인의 경우에는 설문자의 91.8%

114)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jcaf.or.kr> 참조.

115) 제주도, 『200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 현황』, 2007, p.99.

가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의 개선을 강력 희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서는 문예진흥기금 확보와 집행에 관한 홍보가 없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창작욕구가 왕성한 작가 위주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학, 전시, 공연, 민속문화 부문별 형평성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전시의 경우에도 건별 3~5백만원 정도 하는 지원액수의 평준화 보다는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량 있는 작가발굴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미술문화수준을 가일층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 지역 미술은행제도 도입

미술은행이란 미술문화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정부가 미술품을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공공기관 및 일반에 임대해주는 제도로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설립목적은 미술품 구입을 통해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국내 미술시장을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우리미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¹¹⁶⁾

2005년부터 시작한 미술은행제도는 당초 매년 30억원씩 10년간 총300억원을 투자하여 보유작품을 약 5,000점을 확보해나갈 계획으로서, 문화관광부는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집행기능을 맡으며 운영위원회는 위원추천과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은 학예연구실 산하에 다시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심사위원회, 가격심의소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미술은행제도는 시행한지 그리 오래지 않은 만큼 이를 참고 삼아서 제주지역 미술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면, 지역 미술은행에서 모든 작품들을 꼭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작가정보 및 작품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일반에게 제공함으로써, 작가와 일반애호가 또는 기업체를 연결시키는 훌륭한 가교역할을 맡을 수 있기에 지역 미술시장 형성과 미술문화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16) 문화관광부·국립현대미술관, 『2005 미술은행백서』, 2006, pp.17~30, 참조.

이 연구서의 설문조사에서는 만일 「지역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느 방식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제주도립미술관 부설기구(39.7%)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소속 등의 독립 비영리법인체 33%, 지역미술인단체연합 부설기구 16.7%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영리법인체 선호는 5.6%에 불과했다. 이 설문 응답자들 중에는 선택이유에 대한 의견제시가 많았는데 공정성 · 신뢰성 · 객관성 · 투명성 · 전문성 · 고유성(작품 수장관리 기능)을 이유로 도립미술관 부설기구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소속 비영리법인체를 많이 선택하였다.

3. 기업메세나 운동 전개

우리나라에서 기업메세나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94년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메세나협의회¹¹⁷⁾가 출범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의 의미로 쓰이는 ‘메세나(Mecenat)’란 어원은 고대 로마제국의 재상이었던 마에케나스(Caius Cilinius 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된 프랑스어로서, 기업이 문화예술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뜻한다.

그리고 이름은 다르지만 전세계적으로 25개 나라에서 32개의 메세나 관련기구가 설립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업과 문화예술부문의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위하여 지원해나가고 있다.

2006년말 현재 한국메세나협의회 가입 회원사는 179개사로서 주요사업으로는 홍보분야에서 메세나대상 회원사 선정, 회원사 협력사업에서는 찾아가는 메세나 운동과 자연 속 맑은 콘서트 추진, 문화예술 교육사업에는 전국 아동복지시설 대상 문화나눔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를 위한 예술캠프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부터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과 예술인 및 예술단체 결연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데, 2007년 현재 40개 업체와 예술단체가 결연활동을 맺고 있다.

2006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현황을 보면 총 363개 기업이 3,182건의 문화사업에 약 1,840억원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기업당 평균

117) 한국메세나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mecenat.or.kr> 참조.

16억4000만원, 건별로는 평균 6,3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전체 지원 기업 가운데 메세나협의회 회원사는 69개사로서 평균 21억원을 지원해 일반기업의 지원액수 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¹¹⁸⁾

하지만 순수한 도내기업으로는 주식상장회사가 단 한군데도 없을 만큼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한 제주도 미술인들에게는 한갓 그림의 떡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부터 착실히 시작해 가다 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제주지역 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향토기업이나 국내외 대기업 산하 관광업체들과 지역미술인들의 만남을 적극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와 손잡고 추진중인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문화예술단체에 추가로 국고를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프로그램이다.

이 매칭펀드는 1년에 중소기업당 1회 활용가능하고 예술단체 또한 1회 수혜받을 수 있다.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 지원금액은 최하 1천만원으로 500만원 단위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창작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현물 지원도 할 수 있다.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업체가 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 예술단체를 대신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처리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연구서의 설문조사에서는 지역중심 「기업메세나 운동」을 전개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설문자의 67.8%가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전문미술인의 경우는 81.5%나 될 정도로 참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미술인들의 오랜 염원인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을 계기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절망감에 조금도 좌절하지 말고 지역 미술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118) 한국메세나협의회, 『2006년도 연차보고서』, 2007, p.21.

제3절 지역특성 살린 국제미술전람회 육성

앞서의 설문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미술전람회」를 개최한다면 그 시기는 격년 개최(비엔날레), 매년 개최, 3년 개최(트리엔날레), 4년~5년 개최 순으로 선호했으나, 전문미술인의 경우 비엔날레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매년개최 보다 트리엔날레를 더 선호하는 경향임을 알 수가 있다.

전람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주 세계자연유산 홍보 형식, 광주비엔날레와 컨셉 및 배경을 연계한 다양한 국제교류 형식, 제주 자연환경을 살려 전지역이 비엔날레 장소가 되는 즉 닫힌 전시장 안에서만이 아닌 밖의 자연환경을 전람회장으로 한 체험위주 전람회, 세계적인 디자인 전람회, 정적인 작품위주 전시를 지양하여 다양한 공연활동이 가미된 퓨전형식, 세계 미술흐름을 조망하는 전시회와 워크숍 개최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었다.

특히 일반인 가운데 일부는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소질 있는 관광객들이 미술품을 들고 와서 자유롭게 전시하는 성격의 전람회, 축제형식을 갖춘 제주 역사·신화·풍경을 주제로 지역성 부각과 역사성이 가득한 전시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작품을 유치하는 전시회 등과 같은 참신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제미술전람회의 운영주체는 제주도립미술관 조직위원회, 독립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위원회, 지역미술인단체연합 조직위원회 순으로 선호했다. 그러나 전문미술인들의 경우는 독립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를 가장 선호했고 제주도립미술관 조직위원회, 지역미술인단체연합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위원회 순으로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설문분석을 참고 삼아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제주트리엔날레와 국제워크숍 개최를 지역미술문화 활성화의 최종 방안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1. 세계자연유산 엑스포 ‘제주트리엔날레’ 개최

지금 우리나라는 축제공화국, 국제미술전람회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넓게는 광역시도 단위는 물론, 좁게는 시군구 차원을 뛰어넘어 ‘1마을 1축제’로

까지 치닫는 불쌍사나운 형국이다. 문화관광부의 2007년 전수조사에 따르면 연간 국내에서 열리는 지역축제의 수는 900~1,200여개로서 공식 집계숫자는 712개에 이른다. 하루에 서너개 꼴로 새로운 축제가 막을 올리는 셈이다. 이 가운데 규모·역사·내용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화축제로는 1995년부터 국내 예술축제 붐을 주도한 ‘광주비엔날레’, ‘부산국제영화제(PIFF)’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통영국제음악제’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을 꼽을 수 있다.¹¹⁹⁾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각 시도에서 앞 다퉈 차별화된 지역홍보와 예산 유치에 나서면서부터 축제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80년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축제가 90년대 넘어서면서 5년 간격으로 거의 두 배씩 증가했다는 점으로서,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생겨난 축제수는 전체 64%에 달한다. 축제 당 평균 약 2억1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고, 1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 축제만도 24개나 된다.

미술관련 주요 국제전람회만 봐도 이러한 추세를 알 수 있는데, 개최연도 순으로 보자면 광주비엔날레(1995),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1997),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1999), 부산비엔날레(2000),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2000), 세계도자비엔날레(2001),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2004), 광주디자인비엔날레(2005), 대구사진비엔날레(2006), 포천아시아비엔날레(2007) 등이 국내외 미술문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서로 몸부림치고 있다.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명성을 지닌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52회를 맞이하였는데, 베니스음악제(1930)와 베니스영화제(1932), 베니스연극제(1934) 등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도시 베니스시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165일간 펼쳐진 2007 베니스비엔날레는 최근 25년 이래 가장 많은 전세계 미술애호가 약 32만명이 방문했다고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공식발표를 했다. 조직위는 또 본전시와 국가관 행사 이외에도 베니스 전역의 교회나 전시공간에서 열린 42개 관련행사에 82만7천여명, 베니스 곳곳과 주변 섬 지역에서 열린 34개 부대행사에도 65만여명이 각각 다녀갔다고 말했다.¹²⁰⁾

더욱이 지난 6월10일 개막한 2007 베니스비엔날레는 스위스의 바젤 아트페어

119) 헤럴드경제, 2007.10.27자.

120) 연합뉴스, 2007.11.23자.

(6.13~6.17), 5년마다 열리는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6.16~9.23), 10년마다 열리는 독일 뮌스터 조각프로젝트(6.16~9.30) 등과 서로 겹쳐 미술애호가들은 ‘그랜드투어 2007’의 해로 불려왔다.

또한 2008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국제미술전람회가 개최할 예정이어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내년 6~9월 사이에 연달아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는 물론 시드니비엔날레(1973), 상하이비엔날레(1996), 싱가포르비엔날레(2006), 요코하마트리엔날레(2001) 등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아시아 그랜드아트투어’가 성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¹²¹⁾

그러나 세계최고 예술국가라고 자부하는 프랑스의 파리비엔날레가 1985년 관람객수가 2만명에 그치는 부진 끝에 결국 폐지해야만 했던 뼈저린 교훈을 결코 잊어서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주지역에서의 국제미술전람회를 개최하는 일은 무척 어렵고 험겨운 일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이미 1995년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주프레비엔날레가 결국 지속성 없는 실패로 끝나면서 입증한 바 있다. 그나마 같은 해에 열렸던 제주국제관악제만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1998년 1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축제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국내외적으로 요란하게 출발했던 제주세계섬문화축제는 2001년 한번 더 개최한 후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립미술관 설립을 계기로 국제미술전람회의 단독개최 보다는 종합엑스포 형식을 지녀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본다. 이미 서구에서는 6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를 중심으로 에코 뮤지엄(Eco-museum)이란 개념을 내세워서 전시위주의 실내 박물관(미술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정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유산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유산의 현지보전을 중시하는 박물관 밖의 박물관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는 바, 그리고 이웃 일본에서도 10여년 전부터 도입하여 진행시켜오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는 물론 생태환경 실습장, 생태박물관, 전통마을, 역사유적박물관, 인물기념관, 가면극박물관, 판소리박물관 등이 포함된다.¹²²⁾

121) 월간미술, 2007년 7월호, pp.74~79, 참조.

이외에 세계 주요 국제미술전람회는 브라질 상파울루비엔날레(1951), 프랑스 리옹비엔날레(1991), 독일 베를린비엔날레(1998), 영국 테이트 트리엔날레(2000) 등이 있으나, 선진국에서도 성공적인 전람회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도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국내 최초로 등재한 만큼 미래의 ‘생태와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저예산적인 국제전시회를 개최한다면, 자연유산 홍보와 더불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다시 말해 ‘제주세계자연유산 엑스포’라는 큰 명제 속에 ‘제주트리엔날레’라고 하는 자연유산과 연계한 미래의 ‘생태와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한 국제미술전람회를 개최해 나가자는 것이다.

개최장소는 물론 제주 전지역을 망라할 뿐 아니라 이미 박물관 천국인 만큼 이들의 문화 인프라시설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그 개최시기로는 비엔날레 보다는 트리엔날레로 정하고 개최 전년도에 프레(pre-triennale) 형식을 빌어서 환경예술(environmental art) 프로젝트나 환경조각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면 국내외 홍보측면에서 효과가 또한 클 것이다.

다만 첫 개최연도는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비엔날레들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하되 반드시 심층적인 사전분석을 거쳐야 한다.

2. 국제워크숍 활성화 -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와 같이 제주세계자연유산과 연계한 미래의 ‘생태와 자연’ 개념을 바탕으로 종합적 성격을 지닌 ‘제주세계자연유산 엑스포’가 빠른 시일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 절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광주비엔날레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추가 창설하는 것처럼 제주의 경우는 공식 국제행사가 열리는 직전 해에 미리 세계 환경조각심포지엄이나 환경예술(environmental art) 프로젝트와 같은 전략적인 공공미술 국제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공식 엑스포행사를 홍보하는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굳이 비엔날레로 정하지 않아도 비엔날레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는 아시아권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자연유산 엑스포가 될 수 있을 것이기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122) 김세훈 외,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p.172.

제7장 결 론

지금까지 제주도립미술관의 건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공공 문화인프라 활성화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먼저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물결 속에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미술관의 새 패러다임과 더불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핵심 문화 인프라로서의 미술관정책을 고찰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요지역의 공공미술관 현황과 운영실태, 제주지역 문화 인프라의 구체적인 현황분석을 시도하였다. 2000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정책에 힘입어 문화예산이 1%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대구, 울산, 충남, 경북지역 등 4개 지역에는 공립미술관이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의 경우는 그 규모가 작고 전문인력 또한 없거나 1~2명 정도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미술관 조직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았다.

또한 주요지역 공공미술관 가운데 서울시립미술관을 제외하고는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운영예산과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으나, 그러한 속에서도 전시기획과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열린 문화기반시설로서 변화하는 미술관의 새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제주지역의 문화인프라 시설은 근래 들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년 11월 현재 공사립을 모두 포함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숫자만 총 37개소로서 이중에 17곳이 제주시 관내에 있고, 20개소는 서귀포시 관내에서 개관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 등록하지 않거나 건립 또는 계획하고 있는 크고 작은 박물관과 전시관은 모두 40~50곳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므로 제주지역은 가히 박물관 천국이라고 부를 만할 것이다. 이들 사립의 경우에는 민속, 자연, 교육, 영화, 정원과 식물, 역사자료, 해외, 인형과 미니어처, 음식, 미술, 사진, 건강, 소리 등 갖가지 테마박물관이나 테마파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미술관 시설로서는 공립미술관 3개소, 사립미술관 6개소가 등록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립 문화기반시설의 경우 제주지역의 중추 문화인프라로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운영과 전문인력 부족 등이 아주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공립미술관 또한 재정형편이 어렵고 전문인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건물 연면적에 있어서도 2007년 9월 새로이 개관한 제주현대미술관이 1,911㎡(587평) 규모이며, 서귀포시기당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총공사비 약 182억원을 투자해 38,744㎡(11,720평) 부지에다가 연면적 7,087.09㎡(2,143.84평) 규모로 건립하는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지역 미술인과 도민들의 기대는 무척 크다 할 것이다. 2005년 4월 대구시립미술관에 뒤이어 BTL 건립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본격적인 추진과정을 거쳐 2007년 11월 착공했으며, 2009년 1월 완공하여 2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을 투입하여 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시점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한 후 민간사업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설정받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Lease)하는, 즉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약정기간동안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립미술관의 건립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개관준비와 전문인력 및 운영재정 확보방안, 전시·수집·연구·교육프로그램 콘텐츠 등을 검토 모색한 연후에,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기반으로 중장기 미술관 발전전략에 대해 5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개관시기에만 목표를 두고 무리하게 건축공정을 단축시킴으로써 총체적인 부실공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반드시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006년 10월 개관하였으나 총체적인 부실공사로 몸살을 겪고 있는 경기도미술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할 것이다.

둘째는, 중장기적으로 미술관 증축 가능성과 대형전시회를 감안하여 그 위치 등을 최소한 미리 고려해 놓은 다음 야외 조경공사 등의 마무리 공정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미술관 건물 이외에 야외 공간구성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미리 세워져야

한다. 대형전시회를 위한 임시 가건물 등의 위치선정을 한 다음으로는 드넓은 야외 공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최고의 문화인프라시설인 만큼 단순한 조정시설 위주로 전개하기 보다는 비록 저예산이지만 꾸준한 국내외 조각심포지엄 개최, 장차 창작스튜디오 운영 때 입주하는 작가의 작품설치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미리 해나가야 한다.

넷째는, 보다 열린 새로운 미술문화의 중심적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지역미술인, 일반주민들 모두가 삼위일체 이루어 부단한 개선노력을 서로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다섯째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 특색 있는 ‘국제미술전람회’를 발굴하고 적극 육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국내 최초로 등재한 만큼 미래의 ‘생태와 자연’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저예산적인 국제전시회를 개최한다면, 자연유산 홍보와 더불어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또한 이 연구서에서는 이러한 제주의립미술관의 건립과 더불어 지역 미술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서 공공미술관의 네트워크체제 구축, 지역미술은행제도 도입과 기업메세나 운동전개,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미술전람회 육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 문화인프라 현황과 실태는 물론 제주지역의 문화기반시설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박물관·미술관·전시관들이 규모나 소장자료 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미술관련 분야가 아니라거나 지면을 이유로 가급적으로 분석을 삼가 하였으므로, 총체적인 제주지역의 문화인프라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제주의립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분석하기에는 자료수집의 깊이와 폭에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제주의립미술관이 제주지역 핵심 문화인프라로서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뛰어 넘어 세계를 향해 미래의 미적가치를 창조해나가는 ‘예술의 전당’으로서 우뚝 서는 당찬 모습을 함께 보는 일일 것이다.

부 록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전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52호]

문화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1. 공연시설

가.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

- 1)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 2)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 3)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나.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 상영장

다.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2. 전시시설

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나.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라.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3. 도서시설

가.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나. 문고: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

4. 지역문화복지시설

- 가.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 나. 복지회관: 지역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집회 및 강연, 그밖에 각종 관련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 다.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 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문화보급·전수시설

- 가.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 나. 국악원: 전통 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 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전할 수 있는 시설

6. 그 밖의 문화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 [전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53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10조 관련)

1.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 예 사	시 설
종합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각 분야별 1명 이상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 · 도서실 · 강당 중 1개 시설 6. 화재 ·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전문박물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 · 도서실 · 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 ·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미 술 관	100점 이상	1명 이상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 · 도서실 · 강당 중 1개 시설 5. 화재 ·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동 물 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 · 수용 시설 4. 동물 진료 · 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 · 오수 처리시설
식 물 원	1.실내:100종 이상 2.야외:2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육종실 4. 묘포장 5. 식물병리시설 6. 비료저장시설

수 족 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	---------	-------	--

2.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 형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학 예 사	시 설
자료관 · 사료관 유물관 · 전시장 전시관 · 향토관 교육관 · 문서관 기념관 · 보존소 민속관 · 민속촌 문화관 · 예술관	60점 이상	1명 이상	1. 82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4. 화재 ·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 장치
문화의 집	도서 · 비디오 테이프 및 CD 각 300점 이상		1. 363제곱미터 이상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인터넷 부스(PC 4대 이상) 나. 비디오 부스(VTR 2대 이상) 다. CD 부스(CD플레이어 4대 이상) 라. 문화관람실(빔 프로젝터 1대) 마. 문화창작실(공방) 바. 안내데스크 및 정보자료실 사. 문화사랑방(전통문화사랑방) 2. 화재 · 도난 방지시설

설 문 지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지역문화 활성화방안

본 설문은 제주지역 문화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도립미술관>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리라고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역고유의 미술문화 활성화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응답자가 제시한 소중한 방안들은 오직 순수 학술연구 목적에만 사용되며, 이외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노출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미술문화를 사랑하고 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진솔하고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의 설문에 대하여 v표를 해주시거나 해당란에 의견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기초항목

1. 성별 : ① 남 ② 여 2. 활동 : ① 전업 ② 겸업 ③ 일반인()
3. 연령 : ① 3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4. 전공 : ① 회화(한국화·서양화) ② 조각 ③ 공예 ④ 디자인
⑤ 기타(미술이론·설치미술·판화·서예·사진·영상·게임·애니메이션)

■ 본 항 목

1. 귀하는 요즘 제주지역의 미술문화 상황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② 그런대로 활성화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매우 침체되어 있다.
2. 만일 제주지역의 미술문화 상황이 침체되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기반시설의 빈약 ② 열악한 지역경제 기반
③ 갤러리의 전문성 부재 ④ 미술인들의 창작의욕 저하
3. 현재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척상황이나 사업방식(BTL)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 아는 바가 없다
4. 진척상황을 알고계신다면 그 규모(연면적) 및 완공시기는 언제쯤이라 보십니까?
① 약5,000㎡(1.5천평) - 20 년 완공 ② 약6,600㎡(2천평) - 20 년 완공
③ 약8,200㎡(2.5천평) - 20 년 완공 ④ 약9,800㎡(3천평) - 20 년 완공

5. <제주도립미술관> 건립비는 민자유치방식(BTL)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 경우 파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또는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총 건립비용 증가 ② 민간사업자 운영횡포 및 상업화 변질
 ③ 핵심 문화기반시설의 조기완공 ④ 미술관의 질적 서비스 개선도모
6. 민자유치 즉 BTL(Build-Transfer-Lease)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립한 뒤 정부에다 소유권을 넘겨준(기부채납한) 다음,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익을 받는 것으로, 일정기간 민간사업자가 그 시설의 사용과 수익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그동안 들어보거나 알고 계셨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전혀 아는 바가 없다
7.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이후 미술관 활성화와 운영재정 확충차원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실내외 공연(연극·무용 등)이나 ‘야외 자동차극장’(drive-in theater)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적극 반대한다
 (④번 선택시 그 이유 : _____)
8. 이미 제주지역에는 전국 최초의 시립미술관인 서귀포 ‘기당미술관’ 이외 ‘이중섭미술관’이 운영중이며, 2007년 9월 현재 ‘제주현대미술관’이 제주서부에 새롭게 개관되었습니다. 이에 <제주도립미술관>이 완공될 경우 치열한 관람객 유치경쟁을 피하고, 미술관 운영예산과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미술관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찬성한다 ② 대체로 찬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적극 반대한다
 (④번 선택시 그 이유 : _____)
9.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느 방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제주도립미술관 부설기구 ② 독립 비영리법인체(제주문화예술재단 소속)
 ③ 지역미술인단체연합 부설기구 ④ 민간 영리법인체
 (선택이유 : _____)
10.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심 「기업 매세나 운동」을 전개한다면 참여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① 적극 참여할 것이다 ② 그런대로 참여할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참여할 생각 없다

11.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문예진흥기금」의 대폭적인 확충과 함께 지원절차의 다양화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①,②의 경우 의견 : _____)

12.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과 함께 지역 미술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미술전람회」 개최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개최시기와 전람회의 성격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① 매년 개최 ② 격년 개최(비엔날레)
③ 3년마다 개최(트리엔날레) ④ 4년 또는 5년마다 개최

(전람회 성격 : _____)

13. 실제로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미술전람회」 개최가 이루어진다면, 운영주체는 다음 중에서 어디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주도립미술관 조직위원회 ② 독립 국제전람회 조직위원회
③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위원회 ④ 지역미술인단체연합 조직위원회

14. 본 설문 이외의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본 설문지 작성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선진국을 위한 투자, 미술관정책』, 2005.
- _____, 『2005 미술관백서』, 2006.
- _____, 『2006 미술관백서』, 2007.
- _____, 『미술관 연보』, 2005
- _____, 『미술관 연보』, 2006.
- _____, 『국립 창작스튜디오 연보 2005-2006』, 2006.
-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5년사』, 2006.
- 경기도미술관, 「미술관 일반현황」, 2006.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2002.
- 기획예산처 · 한국개발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6.
- 김세훈 외,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 문화관광부, 『2006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성과 평가보고서』, 2007.
- _____,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007.
- 문화관광부 · 국립현대미술관, 『2005 미술은행백서』, 2006.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단위 및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기본방향 수립연구』, 2006.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연보 2002-2004』, 2005.
- 양현미 외,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7년도 현황」, 200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립미술관건립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CM)용역 입찰안내서」, 2006.
- _____, 「서귀포종합문예회관 시설개요」 현황자료, 2007.

_____, 「200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 관광 · 스포츠 현황」, 2007.

제주도 ·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도립미술관 건립기본계획 연구』, 2004.

제주현대미술관,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관 신축공사 도면, 2005.

한국개발원 · 기획예산처, 『임대형 민자사업(BTL)』, 2006.

한국메세나협의회, 『2006년도 연차보고서』, 2007.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제주도, 「제주도립미술관 BTL방식 사업추진에 따른 타당성 · 적격성 조사연구」, 200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대구시 『대구시립미술관 건립사업 BTL 민자투자사업 타당성 · 적격성 조사연구』, 2005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 『제주미협 40년사』, 1999.

홍사중, “문화민국의 출발”, 동아일보, 1999.9.2자.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 보도자료, 1990.6.2자.

경기방송(KFM), 뉴스 보도자료, 2007.9.29자.

뉴시스, 2007.7.18자, 2007.7.26자, 2007.9.17자,

대구 매일신문, 2007.8.14자.

미디어제주, 2006.2.1자.

서울신문, 2006.8.3자.

연합뉴스, 2006.5.25자, 2007.11.23자.

중앙일보, 2001.8.18자, 2005.10.21자, 2007.7.10자.

한국일보, 2002.7.8자.

한라일보, 2007.3.14자, 2007.4.6자.

헤럴드경제, 2007.10.27자.

2. 저서 및 간행물

도종광 외, 『What's How to BTL』, 건설신문사, 2006.

이경성, 『어느 미술관장의 회상』, 시공사, 1998.

이난영, 『(신판)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99.

이보아, 『성공한 박물관 성공한 마케팅』 (예술경영 시리즈 3), 역사넷, 2003.

앨빈 토플러(장을병 역), 『미래의 충격』, 범우사, 1999.

_____ (김진옥 역), 『제3의 물결』, 범우사, 1999.

_____ (이규행 역),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2002.

앨빈 토플러 · 하이디 토플러(김중웅 역), 『부의 미래』, 청림출판, 2006.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1999.

_____, 『월간미술』, 2004년 11월호 및 2007년 7월호.

자크 아탈리(김용채 역), 『미테랑 평전』, 뫼스, 2006.

Alex Inkeles, What is Sociology? : An Introduction to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Cliffs, NJ : Prentice-Hall, 1964.

James Cuno, Whose Muse? Art Museums and Tru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and Harvard University Art Museum, 2004.

J. Pick, Arts Administration, London New York, E. & P. Spon., 1980.

3. 논문

강승완, “국립미술관 시스템의 전문성 구현의 한계와 대안”, 『현대미술관연구』
제15집, 국립현대미술관, 2004,

구본춘 외, “지역별 문화기반시설 기초조사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1999.

김영호, “변화하는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현대미술학회논문집』 제1호, 도서
출판 재원, 1998.

김중세, “중소형 공공문화시설의 지역네트워크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7집,
2005.

김태희, “사회문화교육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전망”, 『민족예술』
2001년 3월호, 2001.

박일호, “공적 자원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의 역할과 위상”, 『현대미술관연구』
제15집, 국립현대미술관, 2004,

백병준, “국내 문화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6.

서지원, “미셸 푸코의 계보학적 입장에서 본 공공미술관”, 『미학』 제41집

(2005년 3월), 2005.

양지연, “문화예술교육 공교육화를 보장하라”, 『민족예술』 2004년 7월호, 2004.

양현미, “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미술창작스튜디오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국립현대미술관, 2005.

윤난지, “성전과 백화점 사이, 후기 자본주의시대의 미술관”, 『월간미술』
2002년 4월호, 2002.

최관호, “한국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홍익대 미술대학원, 2006.

캐롤 던컨, “공공미술관과 문명화의 의례”, 『오늘의 문예비평』 제47호
(2002년 겨울), 2002.

한미애, “한국과 일본의 국·공립미술관 기획전시 비교연구”, 동덕여대대학원,
2005.

4. 기타 (Web site)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gma.or.kr>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muse.gwangju.go.kr>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oca.go.kr>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jeju.museum.go.kr>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

김영갑갤러리두모악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dumoak.co.kr>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dmma.metro.daejeon.kr>

도깨비공원 홈페이지 <http://www.dokkebipark.com>

돌하르방공원 홈페이지 <http://www.dolharbangpark.com>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t.go.kr>

백남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paiknamjune.org>

부산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art.busan.go.kr>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seoulmoa.org>

서울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snumoa.org>

서귀포시기당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gidang.or.kr>
아프리카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africamuseum.or.kr>
이응노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ungnolee-museum.daejeon.kr>
이중섭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jslee>
제주조각공원 홈페이지 <http://www.jejuarts.com>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도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jejucculture.or.kr/jslee>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jeju.go.kr>
제주도박물관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maojp.org>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http://www.jcaf.or.kr>
한국메세나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mecenat.or.kr>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홈페이지 <http://www.kfaa-jeju.org>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A Study to Promote Infrastructure of Public Culture in the Community
- Specially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Museum of Art
and its Efficient Operation -

Hwang Si-kwon

Dept. of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Shin Kyoung-ho

(Abstract)

Our society, based on the possibility of limitless high-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is on the wave of rapid changes in every respect. These new cultural trends are expected to bring a turning point of civilization in our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t can be safely said that this new civilization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industrial society.

Our current cultural art is on the threshold of new trend. Specifically in the field of museums of art, artists try to share elegant art with the community by using museums of art for education and experience of art, not merely for collecting and exhibiting artistic works.

This tendency is shown in the government's progressive policy to promote cultural art to satisfy the increase of national income. The National Government earmarked over 1% for cultural art promotion in the year 2000. Furthermore, various facilities of cultural infrastructure are under construction or consideration.

Especially, 'Jeju Museum of Art' is to be opened in February, 2009 and it is planning to adopt BTL(Build-Transfer-Lease) for its operation, not

depending on provincial or national funds.

So this study tries to find an efficient policy to operate Jeju Museum of Art, which the local artists have long dreamed of, and to help promote public cultural facilities and local artistic cultur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ses by collecting literature and interview for field survey, to reduce fallacy.

To analyze cases, the current situation and operation,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is studied including Seoul Museum of Art, Gwangju Museum of Art, Busan Museum of Modern Art, Daejeon Museum of Art, Gyeonggido Museum of Art, Nam June Paik Museum(NJP Art Center), Ung-no Lee Museum and Daegu Museum of Art. This study showed that the public museums of art in the communities need more financial assistance and museum professionals, although they are efficiently used as facilities for education and experience.

With regard to major cultural facilities, Jeju Province has 3 public museums of art, 6 national or provincial museums of exhibition and 5 comprehensive exhibition halls. As for the private sectors, there are 2 museums, 6 museums of art, 2 comprehensive exhibition halls and 10 galleries, including some rental exhibition halls. Despite the number of facilities, their operations are inefficient regarding frequency of exhibition, scale and variety.

The construction of Jeju Museum of Art depends on BTL. This study tries to do research work about the process of its establishment and the size of the museum, and find mid-and-long-term strategies to promote the museum, including museum professionals as a director · curator · conservator · educator · exhibition designer · publisher · registrar · collection manager · editor · docent · marketing manager, etc.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do research work about a financial solution for its operation, and desirable contents for exhibition, collection, study and

educational programs. In order to study the examples of BTL, it studied som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Britain and Japan.

In summary, this study tries to offer some desirable policies to promote public cultural facilities and local culture of art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on of Jeju Museum of Art, establishment of the net work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and creative art studios, increase of culture promotion funds, and introducing a local art bank system and Mecenat as a local business council for the arts, cultivating local culture expo based on the world natural heritage site and holding international exhibitions.